

13일 Market Index	
코스피 5808.62 (-50.25)	코스닥 1099.84 (+6.21)
금리 (연이자율) 3.382 (+0.022)	환율 (원/달러) 1487.85 (+5.35)



## 기업들, 돈 줄 말랐다... '빚 돌려막기' 연명

4월 회사채 순발행액 -4547억  
상환액이 발행액 보다 많다는 것  
'빚 갚는 날' 상반기에 대거 몰려  
저신용 기업, 신용 리스크 확대  
회사채 '옥석 가리기' 예고

#. SK네트웍스는 지난 10일 회사채 (1500억원) 발행을 앞두고 진행한 수요예측에서 8300억원의 주문을 받았다. SK네트웍스는 조달 자금을 채무 상환에 쓸 예정이다. 이달에만 3600억원 규모의 회사채 만기가 도래하면 서 차환에 대응할 필요성이 높아졌다. 한일시멘트도 기존 공모채와 은행 차입금 상환을 위해 970억원 규모의 회사채를 발행했다.

빚을 갚기 위해 빚을 내는 기업이 늘고 있다. 13일 금융투자협회(금투협) 채권정보센터에 따르면 4월 들어 현재까지 회사채순발행액은 -4547억원으로 집계됐다. 상환액(3조3776억원)이 발행액(2조9229억원)보다 많았다는 얘기다. 회사채(Corporate bond)는 주식회사가 빚을 갚거나, 신규 투자 등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이자(금리)를 붙여 발행하는 채권이다. <관련기사 3면>  
회사채 발행은 상반기에 더 늘 전망이다. 전체 회사채(118조8000억원)만기 시점은 주로 상반기에 집중돼 있다. 상반기 회사채 만기 규모는 72조7000억원이다. 하반기 물량(46조1000억원)보다 30조원 가까이 많다. 상대적으로 신용도가 낮은 AA- 미만 기업의 올해 상반기 만기 도래액은 21조원이다. 하반기 10조



이재명 대통령과 도날드 투스크 폴란드 총리가 13일 청와대에서 열린 한-폴란드 정상회담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관련기사 6면> /뉴스

3000억원의 두 배를 웃돈다. 시장에서 돈을 빌리기 더 어려운 기업들의 '빚 갚는 날'이 올해 상반기에 대거 몰려 있다는 뜻이다.

현재 SK, 한화호텔앤드리조트, CJ푸드시, 호텔신라, 이랜드월드, 금호타이어, 포스코인터내셔널, HD현대, 롯데칠성음료, AJ네트웍스, 풍산, 한온시스템, 삼양식품 등이 회사채 발행에 나섰거나 예고한 상태다.

<2면에 계속>  
/허정윤 기자  
zelkova@metroseoul.co.kr

## 중전 결렬... 석화수급 난항 국내 산업계, '생사의 기로'

정유·석화업계, 최악엔 '가동중단'  
항공업계, 환율 급등에 '비상경영'

미국이 이란과의 중전 협상이 결렬되자 이란의 호르무즈 봉쇄에 맞서 '역 봉쇄'에 나서 국내 산업계의 위기감이 급팽창하고 있다. 휴전 국면이지만 원유와 석유화학 원료 등의 공급 봉쇄는 당분간 더 지속될 수 있어 기업들의 경영 불확실성은 더욱 심해질 것으로 보인다.

13일 산업계에 따르면 미군이 이란의 모든 항구에 대한 해상 봉쇄에 실제로 들어가면 호르무즈해협의 긴장감은 극단적으로 고조되고 사태는 예상 못할 국면으로 전개될 수 있을 것이라 전망이 확산되고 있다.

이와 관련 정유와 석화업계는 중동산 원유와 나프타 재고분이 빠르게 감소하고 있어 최악의 경우 연쇄 가동 중단 사태를 맞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최근 정부가 확보한 미국산 원유 등이 국내에 도착하면 나프타 수급에 다소 숨통이 트일 수 있지만, 이번 이란 해상 봉쇄로 비용 부담은 눈덩이처럼 커질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정유업계의 경우 중동산 원유 비중이 70%에 달하는 만큼 우회 경로를 확보해도 전체 물량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분위기가. 석화업계 역시 단기 대응으로 상황을 버티고 있지만 사태 장기화에는 속

수무책이라는 반응이다.

항공업계는 중동 전쟁 장기화로 초비상사태를 맞고 있다. 중동 전쟁 여파로 항공유 가격과 원·달러 환율이 급등하면서 대한항공과 저비용 항공사들이 일제히 비상경영에 돌입했다. 과거 항공업계를 강타했던 코로나19 사태와 맞먹는 경제적 타격을 입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에서는 미국의 해상 봉쇄로 항공유 가격은 빠르게 상승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대한항공의 올해 2분기 영업이익은 항공유 가격 인상에 따른 비용 부담으로 두 자릿수대 하락할 것으로 전망된다. 티웨이항공의 경우 중동발 사태 장기화로 수익성이 악화되면서 객실 승무원을 대상으로 5월부터 6월까지 두 달간 무급휴직을 시행한다. 티웨이항공이 승무원을 대상으로 무급휴직을 시행하는 건 2024년 8월 시행한 이후 2년 만이다.

해운업계는 호르무즈 해협에 한달 넘게 고립된 우리 국적 선박 26척과 한국인 선원 173명의 안전 확보에도 비상이 걸렸다. 미국과 이란의 중전 협상이 결렬되면서 남아 있는 2주간 휴전 기간에도 모든 선박이 해협을 벗어나기 힘들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4면에 계속>

/양성운 기자 ysw@metro

## "美, 첨단 제조능력 확보 전략거점 구축"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  
내후년 생산공정에 '아틀라스' 투입



는 로봇과 AI가 생산성과 품질을 높이는 기반을 구축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 회장은 보스턴다이나믹스의 휴머노이드 로봇 '아틀라스'를 2028년부터 생산공정에 투입하고, 2030년에는 연간 최대 3만대를 생산하겠다는 목표를 재확인했다.

그는 "이러한 인간 중심 접근은 고객을 위한 것"이라며 "고객의 요구가 변화함에 따라 로봇틱스와 AI는 제조 혁신과 최고 품질 제품 제공에 점점 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3면에 계속>  
/양성운 기자 ysw@metro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사진)이 미국을 그룹의 핵심 전략 시장임을 강조하며 현지 투자 의지를 재차 강조했다.

미국을 단순 제품 생산·판매 시장이 아닌 생산과 고용, 첨단 제조 능력을 확보하는 전략 거점으로 구축하고 미래 지속적인 성장의 토대를 다져나가겠다는 전략이다. 특히 미래 성장의 핵심 축으로 로봇틱스와 수소, 인공지능(AI)을 제시했다.

정 회장은 12일(현지시간) 미국 온라인매체 세마포와의 인터뷰에서 "로봇틱스와 AI는 단순 모빌리티를 넘어 진화하는 데 핵심 요소"라며 "인간과 협업하

### 社告

## 메트로경제가 미래를 선도할 인재를 찾습니다!

- 모집부문
  - ① 신입 취재기자(정규직, 수습기간 3개월)
- 모집내용
  - ① 전형방법
    - ▲ 1차: 서류전형
    - ▲ 2차: 취재역량평가(기사 작성 및 평가)
    - ▲ 3차: 면접(1차 실무 면접 → 2차 최종 면접)
  - ② 모집인원: 00명
  - ③ 응시자격
    - ① 4년제 정규대학 또는 동등학력 이상 졸업자(2026년 8월 졸업 예정자 응시가능)
    - ② 경력, 성별 및 나이 무관
    - ③ 남성은 병역필 또는 면제자
    - ④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 제출서류
  - ① 회사입사지원서 1부 (메트로신문 홈페이지, 구인사이트(잡코리아·사람인)에서 지원서 양식 다운로드)
  - ② 졸업(예정)증명서 등은 추후 최종 합격자에 한해 제출
- 원서접수
  - ① 기간: 2026년 4월 1일(수) ~ 2026년 4월 30일(목)
  - ② 접수방법: e메일 접수 recruit@metroseoul.co.kr / 방문 및 우편 접수(4월 30일 도착분)
  - ③ 접수장소: 03035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옥인동, 메트로빌딩)
- (주)메트로미디어 4층 경영지원실 인사담당자 앞
- 채용일정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026년 5월 8일(금) 본지 홈페이지 공고 및 개별 통보

- 취재역량 평가시험
  - ① 일시: 2026년 5월 13일(수) 10시 ~ 16시 40분
  - ② 장소: 추후 통지
  - ③ 내용: 공지하는 주제로 취재 기사를 작성하여 제출
- 1차 실무면접
  - ① 대상: 서류전형 합격자
  - ② 일자: 2026년 5월 14일(목)~15일(금) 중 1일
  - ③ 장소: 메트로경제 본사 3층 회의실
  - ④ 기타: 면접 시간은 개별 통보
- 2차 최종면접
  - ① 대상: 취재역량평가시험 및 1차 실무면접 합격자 <2면에 계속>



### 메트로 한줄뉴스



- ▲李 대통령 국정수행 '잘한다' 61.9%·'잘못한다' 32.8%
- ▲국힘, '한동훈 출마설' 부산북갑 무공천 주장에 "있을 수 없는 일" <사진 뉴스>

- ▲與 "내달 초 국회의원·원내대표 선거 실시...선관위 구성 예정"
- ▲北, 벨라루스 대사 파견에...통일부 "삼각협력 강화 기조"

- ▲국힘 "노란봉투법 시행 한 달, 노동현장 혼란 심각...재개정해야"
- ▲김 총리, 안도 화재 순직 소방관에 옥조근정훈장 추서

# 정부, '美 무역법 301조' 전략 대응... "기업이익 보호 총력"

## 대외경제장관회의

新통상협정 추진전략 등 논의  
자유무역협정 네트워크 확장  
구윤철 "새로운 개발금융 도입"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뉴시스

정부가 '미국 무역법 301조 조사'에 전략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미국 정부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우리 기업의 이익이 훼손되지 않도록 총력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고, "현재 우리나라를 둘러싼 대외 환경은 보호무역 확산과 지정학적 긴장 등으로 전례없이 급변하고 있다"며 이렇게 밝혔다.

구 부총리는 "미국 측의 지적과 달리, 우리 제조업 설비 가동률이 적정수준"이라고 말했다. 미국이 지적한 과잉생산과는 거리가 멀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우리 자본재 수출이 미 제조업 부흥에 기여하

는 점 등을 적극 설명하겠다고 했다.

또 "우리나라는 강제노동 금지에 대한 국제노동기구 협약 및 국내법 등 확고한 기반을 두고 있다"며 "이에 대해 엄정히 대응하고 있음을 전달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신(新)통상협정 추진전략 ▲중동전쟁 주요국 대

응사례 ▲개발금융 추진방안 등을 논의했다.

그는 또 자유무역협정(FTA) 네트워크를 확장해 수출 성장세를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향후 FTA 지도를 신남방·중남미·아프리카 등 신흥시장으로 촘촘히 확대해 글로벌 공급망을 다변화하겠다"고 했다.

또 "전략적으로도 FTA 모델을 유연화해 디지털·그린·공급망 등 모델형 통상협정, 산업·투자연계형 협정 등 통상 전략을 고도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중동전쟁 대응 관련해서는 "대다수 국가들이 비상대응체계를 구축하고 가격안정화 정책, 수급안정화 정책, 국제협력 등을 추진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선제적으로 가격·수급·보조금·국제협력 등 다양한 정책을 신속히 추진 중"이라고 했다.

정부는 우리 경제의 글로벌사우스 시장 진출 뒷받침을 위해 '한국형 개발금융'을 추진할 계획이다.

구 부총리는 "우리나라도 다른 선진국들과 같이 시장 차입, 투자 펀드 등 민간재원을 동원해 대출, 보증·보험, 자본투자 등 다양한 금융수단으로 개도국 개발을 지원하는 '새로운 개발금융'을 도입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metroseoul.co.kr



metro

>> 1면 '기업들 돈 줄...'서 계속

## 회사채 신용리스크 확대 금융시장 연쇄충격 우려

신규 투자나 연구개발(R&D) 자금 확보라면 반길 일이다. 기업으로선 장기자금을 일시 조달할 수 있는 데다, 상환일·금리를 확정된 만큼 자금 계획을 세우기도 좋은 장점이 있다. 하지만 빚을 빚으로 돌려막는 경우는 다르다. 현금 흐름이 나쁜 부실기업의 대규모 회사채 발행을 두고 "기업의 돈줄이 말라 붙었다"고 판단할 '리트머스지'로 보는 이유다.

그나마 회사채 빚이라도 낼 수 있다면 다행이다. 양극화가 뚜렷해지는 모양새다. 금융감독원의 '2026년 2월 중 기업의 직접금융 조달실적'을 보면 신용등급별로는 2월 발행한 회사채에서 신용등급 'BBB' 이하가 차지하는 비중은 3.6%에 불과했다. 'AA' 등급 이상 우량물 비중과 'A' 등급 비중이 각각 65.6%, 30.8%에 달했다. 기관투자자는 통상 신용등급이 A+ 이하일 경우 내부 규정상 투자를 제한하기도 한다. 신용등급이 낮은 회사가 회사채 발행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기 어려운 구조라는 얘기다. 투자은행(IB)업계 한 관계자는 "중동전쟁 이후 신용리스크가 확대되는 모양새다"면서 "신용등급이 떨어진 업종과 만기, 금리 수준에 따라 회사채 '옥석 가리기'가 두드러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시장은 이른바 '빚 돌려막기'가 금융시장 부담을 키울 수 있다고 우려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최근 회원국 기업들의 차환 의존이 심화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만기가 돌아온 채무를 신규 차입으로 상환하는 구조가 반복되면 부채 부담이 근본적으로 줄지 않은 채 이어지는 데 그칠 수 있어서다. 여기에 높은 금리 수준까지 이어지면서 기업들의 상환 부담은 한층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은기 삼성증권 팀장은 "회사채보다 기업어음(CP) 등 단기자금 금리로 조달하는 것이 비용 측면에서 매우 유리한 국면"이라며 "회사채 순상환으로 부족한자금을 기업어음(CP)이나 은행대출을 통해 조달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허정윤 기자 zelkova@

# 김정관 장관, 반월·시화산단 방문... "공급망 관리 최선"

## 산업부 석화분야 등 현장중심 대응 매점매석 금지·수급조정 규정 마련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중동 정세 불안에 따른 석유화학 원료 수급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반월·시화산단 생산 현장을 잇달아 방문하며 필수 산업 공급망 점검에 나섰다. 정부는 '전쟁 추경'을 통해 납사(나프타) 도입 비용 6744억원을 지원하고, 매점매석 금지와 긴급 수급조정 규정도 신속히 마련하기로 했다.

산업통상부는 김 장관이 13일 경기도 안산 반월·시화산단 내 석유화학 제품활용 기업 4개사를 릴레이로 방문해 보건·의료, 생활필수품, 핵심산업 관련 생산·수급 상황을 점검했다고 밝혔

다. 이번 점검은 석유화학 원료 수급 불안이 의료용품, 식료품 포장재, 반도체, 페인트 등 국민 생활과 주력 산업에 미칠 영향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김 장관은 대덕전자(반도체 PCB 기판), SP삼화(조선·자동차·주택용 페인트), 에이디캡테크(주사기·수액제 포장재), 롯데패키징솔루션즈(식료품 포장재) 등 4개 기업을 차례로 방문했다.

에이디캡테크에서는 수액제·주사기 포장재 수급 차질 우려 해소 사례를 공유하고, 보건·의료 필수품 공급 안정의지를 강조했다. 롯데패키징솔루션즈에서는 식료품 포장재 부족을 방지하기 위해 산업부·중기부·식약처 범부처 태스

크포스(TF)를 통해 수급 상황을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SP삼화에서는 지난 10일부터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상 수입 등록 절차를 간소화해 원료 수입이 신속해진 점을 설명하며 업계 협조를 요청했다. 대덕전자에서는 반도체 등 국가 핵심 산업 생산 차질이 없도록 안정적인 공급 필요성이 강조됐다.

김 장관은 "보건·의료, 생활필수품, 국가핵심산업의 공급망에 단 하루의 차질도 발생하지 않도록 최우선 관리 중"이라며 "산업부와 소관 부처가 긴밀히 소통해 즉각 조치를 원칙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석유화학 핵심 품목 수급 관리를 위해 40여 명 규모의 TF를 구성

하고 재고 및 수급 동향을 일일 모니터링하고 있다. 또 지난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전쟁 추경'을 통해 중동 외 지역 납사 수입 지원에 6744억원을 투입하는 등 산업부 소관 1조980억원 규모 예산을 반영했다.

아울러 공급 차질 발생 시 정부가 신속히 수급을 조정할 수 있도록 '석유화학제품 원료 등의 매점매석 금지 및 긴급수급조정에 관한 규정'도 조만간 마련할 계획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석유화학제품은 의료·생활필수·첨단산업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 소재"라며 "현장 중심 대응으로 공급망 불안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



metro

## 당정 "6월까지 추경 예산 85% 집행"

### 車 보험료·유류비 부담 완화 등 논의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13일 총 26조 2000억원의 추가경정예산(추경) 중 85%를 오는 6월까지 집행하기로 했다. 여기에 더해 정부는 자동차 보험료 요율 인하하는 방안을 보험 당국과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차량 2부제·5부제 시행으로 자동차 운행 거리가 줄어들고 있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민주당 중동전쟁 경제대응 특별위원회 간사인 안도걸 의원은 이날 국회의 원회관에서 재정경제부, 산업통상부와 특위 3차 회의를 연 뒤 기자들과 만나 이렇게 밝혔다.

안 의원은 "이번에 추경 26조 2000억원이 국회를 통과했다"며 "오는 6월까지 추경 예산의 85%를 집행할 계획"이라고 했다.

그는 특히 "자동차 보험료 문제와 관

련해 지금 2부제·5부제를 해서 그만큼 운행량과 운행 거리가 줄어든다"며 "보험료 인하 요인이 있다는 점을 자각해 금융위원회가 보험 당국과 긴밀히 협의하고 있고, 보험료 요율 인하 방안을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늦어도 내주 중 발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회의에서는 종량제 봉투 제조와 관련한 재생원료 사용 비중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됐다. 또 원재료 수급 차질에 따라 종량제 봉투 수급이 어려우면 일반 봉투에 쓰레기를 담아 버리는 것도 논의하기로 했다.

아울러 유류비 부담 완화와 관련해 주유업계가 요청해 온 카드 수수료 인하 문제 등을 논의했지만, 주요 소관 형평성 문제를 고려해 추후 더 논의하기로 했다.

/박경수 인턴기자 gws0325@



metro

## 고용부, 고용위기지역 지정요건 완화

### 중동 수출기업 등 고용유지 지원

고용노동부는 중동전쟁 장기화에 따른 고용 충격에 대비해 고용위기지역 지정요건을 완화하고, 중동 수출기업 등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을 선제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또 4165억 원 규모 추가경정예산을 신속 집행해 청년 일자리 중심 대응을 강화한다.

김영훈 노동부장관은 13일 '제3차 비상고용노동상황점검회의' 모두발언에서 "중동전쟁이 2주 휴전이라는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지만, 폭격이 계속되고 해협의 통행이 제한되는 등 불확실성은 여전한 상황"이라며 "공급망 충격이 일자리와 취약계층의 위기로 전이되지 않도록 그 어느 때보다 긴밀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특히 "고용위기지역, 특별고용지원업종 제도의 지정요건 판단 기

간을 12개월에서 6개월로 단축하고, 일용직의 고용 상황도 반영할 수 있도록 신속히 개선하여 즉각 위기를 포착해 실시간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또 "고용유지지원금의 경우에는 중동전쟁으로 인해 고용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석유 정제품 제조업,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그리고 중동수출사업주 등에 대해 매출액 감소기준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고용유지지원금을 선제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지난주 확정된 2026년 1차 추가경정예산과 관련해 "이번 추경으로 편성된 4165억원은 중동전쟁의 위기로 부터 고용충격을 완화하고, 취약노동자의 권리구제와 생활안정을 지원하며, 일자리 충격에 취약한 청년층에게 집중 지원하는 예산 중심으로 편성됐다"고 설명했다. /세종=한용수 기자



metro

## 社告

- ② 일자 : 2026년 5월 19일(화)
- ③ 장소 : 메트로경제 본사 3층 회의실
- ④ 기타 : 면접 시간은 개별 통보
- 최종 합격자 발표
- 2026년 5월 22일(금) 본지 홈페이지 공고 및 개별 통보

- 기타
- ① 제출된 서류는 돌려드리지 않습니다.
- ② 기타 궁금한 사항은 경영지원실 인사담당자 ☎ 02-721-9851로 문의 바랍니다.

metro

# 고금리 직격탄... 한계기업, 한국경제 '위기의 뇌관' 되나

이자도 못 내는 기업 17.1%  
제조업 경쟁력 약화에 경고등  
고금리 뉴노멀에 기업 부담 가중  
도미노 부실 뎀 경기침체 우려  
선별 지원·적극 구조조정 시급

최근 각국 중앙은행의 대파적 통화정책(통화 긴축) 유지와 시장 금리 상승에 빛이 많은 기업의 비용 부담이 크게 늘고 있다. 특히 벌어들인 돈으로는 이자도 감당하기 어려운 한계기업들은 벼랑 끝으로 몰리는 형국이다. 한국의 한계기업의 비중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여섯 번째(2021년 기준)로 높은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금리 인상 가능성이 거론되는 가운데 한계기업들의 도미노 붕괴가 나타날 경우 금융기관 부실과 경기 침체로 이어지는 '위기의 뇌관'이 될 수 있다고 경고한다.

## ◆중동발 리스크, 경쟁력 약화에 노출된 기업들

한국은행의 '금융안정성' 보고서를 보면 전체 외부감사 기업 중에서 이자보상배율이 3년 연속 1을 밑돈 한계기업 비중은 17.1%(2024년 말 기준)였다. 2010년 이후 최고치다. 이자보상배율이 1을 밑돌았다는 것은 한 해 벌어들인 돈으로 대출 이자조차 갚지 못했다는 뜻이다. 이 중에서도 중소기업의 한계기업 비중은 지난해 18.0%로 전체 평균보다 높았다.



ChatGPT로 생성한 '고환율과 고금리 이중 압박으로 인해 자금조달에 난항을 겪는 국내 기업' 관련 이미지.

전문가들은 한계기업이 비중이 꾸준히 늘어난 근본적인 원인으로 수출 제조업 경쟁력 약화를 꼽는다. 선진국이 제조업과 인공지능(AI)을 결합해 기술 수준을 키우고, 중국이 2015년부터 '제조 2025'를 표방하며 제조업 경쟁력을 강화하면서 국내 제조업 경쟁력이 급격히 쇠약해졌다는 설명이다. 재계 한 관계자는 "제조업 쪽에서 한계기업이 늘면 전체 경제성장률과 산업 경쟁력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며 "우량 기업이 많았던 수출 부문에까지 한계기업이 늘어난 상황은 크게 우려할만한 지점"이라고 말했다.

여기에 중동전쟁 후 한층 짙어진 '고금리 뉴노멀 충격'도 기업 전반의 부실

위험을 키우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의 2022년 자료를 보면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할 경우 기업의 추가적인 이자 부담은 2조원 증가한다. 이는 한국은행 통계로도 확인된다. 이미 많은 기업들은 빚더미에 앉았다. 국제결제은행(BIS)에 따르면 한국의 지난해 3분기 말 비금융부문 빚은 6500조5843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1년 전(6220조5770억원)보다 약 280조원(4.5%) 증가한 수치다. 기업부채는 3700조7807억원으로 같은 기간 700조원(23.34%) 늘었다. 금융감독원자료를 보면 지난해 12월말 현재 기업여신 부실채권 비율은 0.70%다. 1년 전보다 0.04%포인트 상승했다.

재계 한 관계자는 "기업들은 법인세

인상, 급격한 최저임금 상승, 파업 등의 위험에 늘 노출돼 있다"며 "그나마 저금리로 버티던 기업들이 중동 사태 이후 금리 부담뿐 아니라 원화값 약세의 뉴노멀로 인한 외화부채 증가까지 겹겹의 위기를 맞고 있다"고 했다.

## ◆벼랑끝 기업 살릴 해법은

한국은행은 '경제위기 이후 우리 성장은 왜 구조적으로 낮아졌는가?:기업의 투자경로를 중심으로' (조사국 조사총괄팀 이종웅 차장 등)란 제목의 이슈노트에서 "2014~2019년 중 전체 표본 기업 가운데 3.8%가 퇴출 고위험 기업이었으나 실제 퇴출된 기업은 2.0%였고, 이들 기업이 실제 퇴출되고 정상기업으로 대체됐다면 해당기간 투자는 3.3%, 국내

총생산은 0.5% 증가했을 것"이라고 추정했다. 또 팬데믹 이후에도 퇴출 고위험 기업의 비중은 3.8%로 여전히지만 실제 퇴출 기업 비중은 0.4%로 더 낮아졌으며, 이들이 성공적으로 대체됐다면 투자가 2.8%, 국내총생산 0.4% 증가했을 것이라고 보고서는 덧붙였다.

전문가들은 이들 한계기업이 '경제위기의 뇌관'이 되는 걸 막기 위한 종합 대책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고 조언한다.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과 함께 선제적 구조조정 등 '당근과 채찍'이 모두 동원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국은행은 "금융기관은 미국의 관세 정책 영향을 고려해 전반적인 신용위험 관리에 힘쓰고, 일시적 자금애로 기업에 대한 자금경색이 발생하지 않도록 안정적인 신용공급 노력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구조적 문제 등으로 회생 가능성이 낮은 기업들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구조조정을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는 '기업 성장생태계 진단과 과제' 보고서에서 "기업 규모별 지원과 규제를 넘어 생산성과 혁신성 기준으로 정책을 재설정해야 한다"며 "혁신 역량과 생산성이 여타 기업에 비해 높은 초기스타트업에 대한 자금 지원을 확대하는 등 기업 정책을 손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하은 기자

godhe@metroseoul.co.kr



metro

# 정년 후 길어지는 소득 공백... 든든한 노후엔 '다층연금'

## 연금과 생존전략

### ④ 노후대비 선택 아닌 필수

정년 60세·연금개시 65세 '소득절벽' 국민연금 실질 소득대체율 30%대 초반 퇴직연금 사각지대 여전히 노후 대비 IRP·연금저축·주택연금 활용 필요

고령화시대의 '노후 대비'는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다. 국가데이터센터(옛 통계청)에 따르면 한국인의 기대수명은 2024년 기준 약 83.7세(남자 80.8세, 여자 86.6세)다. 20년 전보다 6년 이상 늘어났다. 반면 법정 정년은 여전히 60세에 머물러 있다. 최소 20년 이상의 '소득 공백'이 발생하는 구조다. 이 기간 동안 필요한 생활비를 단순 계산해 보면, 월 250만원 기준 6억~7억원 이상의 자금이 필요하다.

든든한 노후를 위해 '다층연금' 탑을 쌓아야 하는 이유다. 국민연금은 물론 개인연금(IRP), 주택연금, 연금저축 등 매월 현금화가 가능한 연금 준비가 필요하다.

### ◆불충분한 연금... 노후소득 부족

40~50대부터 노후를 대비해야 한다. 국민연금제도는 40년의 납입을 가정해 소득대체율을 산정했지만, 실직이나 빠른 은퇴 등을 이유로 실제 납입 기간이 40년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작년 국민연금 신규수급자의 납입 기간 평균은 19년9개월(237개월)이다. 국민연금공단은 오는 2090년에도 납입 기간이 28년(336개월)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전



기대수명이 길어지면서 일해야 하는 나이도 늘어나고 있다. 고령자 공공일자리를 살피는 시민들. /뉴스시

망한다. 이 경우 국민연금의 실질소득대체율은 30%대 초반에 그치게 된다.

빠른 은퇴를 이유로 '조기노령연금'을 수급하는 경우 소득대체율은 더 낮아진다. 조기노령연금은 국민연금 지급개시 연령인 만 65세보다 최대 5년 일찍 연금을 수급할 수 있는 제도다. '소득 공백'이 이어지면서 조기노령연금 수급자는 지난해 7월부터 100만명을 넘겼다.

13일 국가데이터센터의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은퇴자의 평균 나이는 61.6세로 집계됐다. 법적 최소 정년인 60세보다는 1.6년 길지만,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인 65세보다는 3.4년 빨랐다. 은퇴자 대다수가 재취업을 희망했으나, 재취업자 대부분은 기존 업무와 관계없는 일자리에 종사하면서 임금 감소 겪었다. 재취업에 실패하는 경우도 잦았다. 국민연금 개시연령은 65세인데도, 대부분의 고령자는 이보다 이른 시기에 은퇴를 겪고 '소득 절벽'에 직면하

게 된다.

퇴직연금에도 사각지대가 여전하다. 지난 2005년 도입된 퇴직연금은 고용주가 매달 일정금액을 근로자의 퇴직연금 계좌로 지급하도록 하는 제도다.

###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 마련해야

은퇴 이후에도 충분한 노후소득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국민연금을 중심 축으로 각종 연금제도와 금융상품을 활용한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연금탑)'를 구축해야 한다. 국민연금의 임의가입·추가가입 제도를 활용해 국민연금 소득을 극대화하고, 자신의 소득 수준이나 자산 구조에 따라 주택연금·개인형IRP·연금저축 등 별도의 연금상품을 통해 부족분을 충당해야 한다.

'국민연금 임의가입제도'는 사업장가입자나 지역가입자가 될 수 없는 사람도 보험료를 납입하고 납입한 액수와 기간 만큼 납입을 인정받을 수 있는 제도다. 고용주가 보험료의 절반을 부담하는 사

업장가입자와 달리 보험료를 전액 본인이 부담해야 하지만, 국민연금은 다른 연금 제도보다 수익성이 높고 종신지급도 보장한다. 주부·학생 등 의무가입 대상이 아니라면 임의가입을 우선하는 것이 유리하다.

의무가입 대상이 아닌 60~64세를 위한 '국민연금 임의계속가입' 제도도 운영 중이다. 보험료는 전액 본인이 부담해야 하지만, 이후 연금을 지급받을 때 가입기간과 납입액을 고스란히 인정받을 수 있다. 특히 기존에 조기노령연금 제도를 활용해 조기에 국민연금을 지급받았더라도 지급을 중단하고 임의계속 가입제도를 통해 보험료를 납입하면 금액을 일부 되돌릴 수 있다.

'국민연금 추가납입제도'는 실직·휴직·육아 등을 이유로 보험료를 내지 못한 기간이 있다면 최대 119개월분까지 보험료를 추가로 납입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보험료율은 전액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추가납입 시에는 납입 당시의 소득대체율이 적용되는 만큼, 2026년 내에 납입한다면 9.5%의 보험료율에 42%의 소득대체율을 적용받을 수 있어 특히 유리하다.

소득에 여유가 있다면 개인형IRP(개인형 퇴직연금)이나 연금저축 등 비과세 혜택이 제공되는 연금상품을 고려하는 것이 좋다. 두 상품을 함께 이용하면 연 최대 900만원의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상품 유형에 따른 수익률도 기대할 수 있다. /양승진 기자 asj1231@

>> 1면 '美, 첨단 제조능력... 서 계속

## "2028년까지 38조 투자 장기 성장기반 강화"

또 정 회장은 핵심 시장인 미국으로의 투자 확대가 그룹 성장을 이끌 것이라며 대규모 투자 계획을 재차 강조했다. 그는 "현대차그룹에게 미국은 장기적인 회복력과 지속 가능한 성장의 핵심 기반"이라며 "2028년까지 총 260억달러(38조 원)를 투자해 장기 성장 기반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현대차그룹은 40여년전 미국에 진출한 이후 205억달러를 투자해왔다"며 "HMGMA(현대차그룹 메타플랜트 아메리카)의 소프트웨어 기반 제조 혁신 등을 통해 이러한 전략을 강화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최근 중동사태로 인한 지정학적 불확실성에 대해서는 "고객, 규제, 공급망이 지역별로 나뉘고 세계 시장은 점점 분절됐다"며 "유연성과 회복력을 기반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글로벌 확장과 지역별 민첩성 결합을 해결책으로 제시했다. 한국 생산기지와 미국 HMGMA, 미국 내 하이브리드 생산 확대, 인도-아시아태평양 지역 신규 생산 거점 등을 사례로 들었다.

수소 사업과 관련해선 "AI 인프라와 데이터센터 확대로 에너지 수요가 급증하고 있고 수소는 중요한 대안이 될 수 있다"며 "수소는 전기차와 경쟁 관계가 아닌 보완적 기술"이라고 말했다. 정 회장은 "국내외 환경 변화는 모두가 대응해야 할 과제"라고 강조했다.

/양승원 기자 ysw@



metro

# 메모리부터 패키징까지... 세계 유일 '종합반도체기업'으로

**42년의 베틀**  
**삼성**은 왜 반도체를 택했나  
**③ 이재용 회장의 AI 승부수**

이병철 선대회장이 자원이 없는 나라의 생존 전략으로 반도체를 택하고, 이견희 회장이 불황기에도 투자를 멈추지 않는 타이밍 경영으로 세계 1위를 만들었다면, 이재용 회장은 그 유산을 AI 시대의 언어로 다시 쓰고 있다.

결과는 숫자로 먼저 나타났다. 삼성전자는 올해 1분기 잠정 영업이익의 57조 2000억원을 제시하며 지난해 연간 영업이익(43조6000억원)을 단 한 분기 만에 넘어섰다. 같은 분기 기준으로 글로벌 빅테크와 비교해도 애플(77조원), 엔비디아(63조원), 마이크로소프트(58조원)에 이은 4위권이다. KB증권과 블룸버그는 올해 연간 기준으로는 엔비디아에 이어 글로벌 2위에 오를 것으로 전망했다.

이 실적의 배경에는 이재용 회장 시대 삼성 반도체가 구사해온 '융합' 전략이 있다. 삼성전자는 세계에서 유일한 메모리 설계·생산, 파운드리, 첨단 패키징을 모두 갖춘 종합반도체기업(IDM)이다. 이견희 회장 시대가 '한 세대 먼저' 움직이는 타이밍 경영으로 세계 1위를 만들었다면, 이재용 회장 시대는 이 모든 역량을 하나로 묶어 AI 인프라의 핵심 공급자로 올라서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올해 주주총회에서 전영현 DS 부문장은 "로직부터 메모리, 파운드리, 패키징까지 원스톱 솔루션이 가능한 유일한 반도체 회사"라고 짚었다.

그 전략에 속도를 붙인 것이 이재용 회장의 현장 경영이었다. 2025년 3월 이 회장은 전 계열사 임원 2000여 명을 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지난 2022년 기흥 반도체 연구개발 단지 착공식에 참석하여 임직원들과 만남을 가지고 있는 모습.

**AI 인프라 핵심 공급자 전략 속도**  
**HBM4 세계 첫 양산 출하... 기술력 ↑**  
**빅테크 수장들 만나 공급망 재편**  
**3나노 수율 60%... TSMC 추격**  
**HBM4E 양산·SF2 안정화 '과제'**

상으로 한 영상 메시지에서 "경영진부터 철저히 반성하고 사즉생(死則生)의 각오로 과감하게 행동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첫째도 기술, 둘째도 기술, 셋째도 기술"이라는 말이 이 자리에서 나왔다. 삼성 내부에서는 이견희 회장의 1993년 프랑크푸르트 선언 이후 가장 강도 높은 메시지로 받아들여졌다.

그해말 이 회장은 지난 2023년 이후 약 2년 만에 기흥·화성 반도체 캠퍼스를 직접 찾았다. 방진복 차림으로 NRD-K 클린룸에 들어가 메모리·파운드리·시스템반도체 기술 경쟁력을 점검했다. D1c(6세대 10나노급) D램과 HBM 등 첨단 제품 사업화에 기여한 직원들

과 간담회에서는 "과감한 혁신과 투자로 본원적 기술 경쟁력을 회복하자"고 강조했다. 당시 삼성전자는 HBM3E(5세대 고대역폭메모리) 시장에서 SK하이닉스에 밀려 주도권을 내줬다는 평가를 받고 있었다.

두 달 뒤인 올해 2월, 삼성전자는 HBM4(6세대 고대역폭메모리)를 세계 최초로 양산 출하했다. D1c D램과 SF4(4나노급) 파운드리 공정 베이스 다이를 결합해 초당 11.7기가비트(Gbps)의 동작 속도를 구현했다. HBM3E(5세대) 대비 대역폭을 약 2.7배 끌어올린 수치였다.

이 회장의 행보는 현장 경영에만 머물지 않았다. 그는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 리사 수 AMD CEO 등 글로벌 빅테크 수장들과 잇따라 만나며 공급망 재편에 나섰다.

올해 3월 GTC 2026에서 젠슨 황은 개막 기조연설에서 삼성전자가 엔비디아의 그록3(Groq3) LPU(언어처리장치)를 제조하고 있다고 밝히며 "삼성



이재용 회장이 지난 3월 서울 이태원동 승지원에서 리사 수 AMD 최고경영자(CEO)와 만찬에 앞서 술잔을 들고 기념 촬영하고 있다.

최대한 빠르게 생산을 늘리고 있다"고 말했다. HBM을 넘어 파운드리까지 협력 범위가 확대된 것이다.

2014년 CEO 취임 이후 처음으로 한국을 방문한 리사 수 AMD CEO도 삼성 평택캠퍼스에서 이재용 회장과 만나 HBM4 우선 공급 및 파운드리 협업에 합의했다. 삼성전자는 AMD 차세대 AI 가속기 인스틴트(Instinct) MI455X에 탑재될 HBM4 우선 공급업체로 지정됐다. 설계부터 메모리 공급, 위탁 생산, 패키징까지 삼성이 수직계열화를 이루는 구도가 가시화되고 있다.

이 전략을 뒷받침하는 물리적 기반도 갖춰지고 있다. 기흥의 NRD-K는 메모리와 시스템 반도체를 한 곳에서 개발하고 양산으로 이어가는 선순환 체계를 목표로 조성 중인 차세대 연구개발단지다. 전영현 DS부장은 "기흥에서 삼성 반도체 50년 역사가 시작됐다"며 "이 새로운 100년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다만 57조원의 실적이 완성을 뜻하지는 않는다. TSMC가 3나노 공정에서

수율 90% 이상을 달성하며 파운드리 시장의 70%를 장악하는 가운데, 삼성전자는 3나노 수율을 초기 20~30%에서 최근 60% 수준까지 끌어올리며 추격에 속도를 내고 있다. HBM4E(7세대 고대역폭메모리) 양산과 SF2(2나노급) 파운드리 공정 안정화도 앞으로 넘어야 할 과제다. 이병철의 결단이 반도체 산업 진입을 열었고, 이견희의 타이밍 경영이 세계 1위를 만들었다면, 이재용은 지금 그 42년의 유산을 AI 문명 전환의 핵심 인프라로 재설계하는 세 번째 도전의 한가운데에 있다.

업계 관계자는 "과거 삼성 반도체가 D램으로 일본을 추월했다면 지금은 HBM과 첨단 패키징을 통해 AI 시대 주도권을 다시 확보할 수 있을지가 핵심"이라며 "결국 이재용 회장 시대의 승부수는 메모리 1위 유산을 AI 인프라 전반으로 확장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구남영 기자

koogija\_tea@metroseoul.co.kr



metro

>> 1면 '중전 결렬...'서 계속

## '첨단 패키징' 중요성 부각... '턴키 솔루션'으로 승부수

삼성전자, 메모리·파운드리로 경쟁력 AI칩 공급부족 현상... 기회요인으로 TSMC, CoWoS 분야 우위 격차 부담

파운드리 기술 경쟁의 무게 중심이 미세 공정에서 패키징으로 이동하고 있다. 단순 위탁 생산을 넘어 설계부터 패키징까지 전 공정을 아우르는 '파운드리 2.0' 시대에 진입하면서 얼마나 빠르고 효율적으로 칩을 연결하고 공급하느냐가 핵심 경쟁력으로 부상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삼성전자는 메모리·파운드리·패키징을 결합한 통합 전략을 앞세워 시장 대응에 나서려는 모습이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메모리 분야에서 확보한 수익성을 기반으로 반도체 설계부터 파운드리, 첨단 패키징까지 전 공정을 아우르는 '턴키 솔루션' 모델을 올해 완성하는 것을 핵심 전략으로 추진하고 있다.

특히 인공지능(AI) 반도체 시장이 확대되면서 첨단 패키징 기술의 중요성이 부각되는 모습이다. AI 칩은 단순한 미세 공정만으로 성능이 결정되지 않고 수십 개 이상의 칩을 하나의 패키지 안에서 연결해 데이터를 처리하는 구조를 갖고 있다.



삼성전자 평택캠퍼스 전경.

삼성전자는 2.5D 패키징 플랫폼 'I-Cube', 로직 다이 3D 적층 기술 'X-Cube', 고집적 AI·HPC용 솔루션 'H-Cube' 등 자체 패키징 플랫폼을 운영 중이다. 업계에서는 HBM4 이후 로직 다이와 메모리 다이를 수직으로 적층하는 본격 3D 패키징 경쟁이 전개될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또 삼성전자는 3D 하이브리드 구리 본딩 기술을 구축하고 로직 기반 베이스 다이와 메모리 기반 코어다이를 3D 스택킹하는 HBM제품군을 개발·양산 협력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하이브리드 구리 본딩 기술은 칩을 구리 접합 방식으로 직접 연결하는 방식으로 기존 마

이크로 bumps 기반(TCB) 방식보다 열 저항을 20% 이상 줄이고 16만 이상 고적층 메모리를 구현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다만 TSMC가 첨단 패키징 기술인 CoWoS(칩온웨이퍼온서브스트레이트)분야에서 우위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이 삼성전자에 부담으로 남아 있다. TSMC는 현재 CoWoS 월 생산능력을 지난 2025년 말 3만5000장에서 2026년 말 13만장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대규모 증설을 진행 중이다.

그럼에도 삼성전자는 HBM 메모리와 첨단 파운드리를 동시에 보유한 점을 강점으로 꼽는다. CoWoS를 중심으

로 첨단 패키징 생태계에서 TSMC 대비 격차를 좁혀야 하는 과제는 여전히 있지만 메모리와 파운드리를 모두 내재화한 구조를 바탕으로 경쟁사 대비 차별화된 통합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다는 평가다.

더욱이 AI칩 수요가 폭발하면서 3나노·2나노 등 선단 공정을 비롯해 첨단 패키징까지 공급 부족 현상이 심화되는 모습이 뚜렷해지고 있다. 특히 TSMC의 생산라인이 한계에 도달하면서 일부 생산라인은 수년치 예약이 밀린 것으로 파악된다. 이로 인해 고객사들은 후공정 업체나 다른 파운드리를 활용해 물량을 분산하는 전략을 확대하고 있다. 이같은 흐름이 패키징과 파운드리를 동시에 제공할 수 있는 삼성전자에 기회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의견도 따른다.

업계 관계자는 "삼성전자는 메모리와 파운드리, 설계, 패키징까지 아우르는 구조를 갖춘 만큼 통합 경쟁력 측면에서는 강점이 있다"면서도 "다만 첨단 패키징 분야에서는 TSMC가 이미 입지를 공고히 한 만큼, 결국 고객 신뢰 확보와 점유율 확대가 관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차현정 기자 hyeon@metro



metro

## 전자·자동차 업계도 비상경영 기조 돌입

해운업계 관계자는 "이란이 해협 통제권을 고수하고 있고 미국은 이에 맞서는 역봉쇄 작업에 들어가면서 물류 정상화까지 적잖은 시일이 걸릴 것"이라며 "선사나 보험사도 안전을 완전히 보장받기 전에는 선불리 해협 통과를 결정하기 힘든 상황이다"라고 말했다.

해상 운송을 이용하는 전자와 자동차 업계의 고민도 커지고 있다. 삼성전자와 LG전자 등 가전업체는 해상 운임 상승에 직격탄을 맞고 있다. 세탁기와 냉장고 등 대형 가전은 부피가 크기 때문에 운송비가 원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 삼성전자와 LG전자는 1분기 역대급 영업이익을 달성했지만 2분기 실적 둔화를 염두에 두며 비상 경영 기조를 실행하고 있다.

완성차 업계도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기아는 지난 10일 '기아 최고경영자 인베스터 데이'에서 중동 전쟁에 따른 영향으로 "3개월 이내 종료된다는 시나리오라면 중동 지역에서 약 4만대 정도의 판매 손실이 나올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사태가 이 이상 장기화될 경우 '예측 불가능한 단계'에 진입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양성운 기자 ysw@



# 우리가 **원**하던 오늘

오늘을 더 맛있게

# 한-폴란드, 방산·경제·문화 아우르는 포괄적 협력관계 도약

**폴란드 투스크 총리 정상회담**  
K2 전차·K9 자주포 등 무기 수출  
공동 생산·기술 이전까지 협의  
문화·교육 협력·인적 교류 확대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한국을 공식 방문한 도날드 투스크 폴란드 총리와 정상회담을 한 뒤 양국 관계를 13년 만에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기로 합의했다. 이 대통령은 "양국의 방산 협력이 더욱 두텁게 발전하고 있다"면서 협력 확대 의지를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한-폴란드 정상 확대회담 모두발언에서 "오늘 투스크 총리님의 방한을 계기로 양국 관계를 포괄적 전략동반자관계로 격상하기로 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투스크 총리는 이 대통령 초청으로 1박2일 일정으로 전날(12일) 방한했다. 투스크 총리의 이번 방한은 폴란드 총리로는 27년 만의 양자 방문이자, 투스크 총리 취임 후 첫 비유럽 국가 양자 방문이기도 하다.

이 대통령은 투스크 총리에게 방산 협력과 관련해 "지정학적 위기가 지속되는 상황 속에서도 2022년에 442억달러 규모에 달하는 총괄 계약을 체결할



이재명 대통령과 도날드 투스크 폴란드 총리가 13일 청와대에서 한-폴란드 공동언론발표를 하고 있다. /뉴시스

정도로 양국의 방산 협력은 더욱 두텁게 발전하고 있다"고 밝혔다. 폴란드는 지난해 12월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국산 다연장로켓 '천무'에 대해 5조6000억원 규모의 3차 수출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이어 "K2전차, K9자주포, FA50 공격기 그리고 천무까지 대한민국의 기술과 자부심이 담긴 무기들이 폴란드의 푸른 대지를 위풍당당하게 누비면서 폴란드의 영토와 국민을 지켜내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양국 간의 방산 협력은 단순한 무기 판매에 그치지 않는다"며 "폴란드 내에 공동생산, 기술이전, 교육 훈련 등 호혜적인 협력을 통해 폴란드 방산 생태계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더욱 크다"고 강조했다.

또 "한국은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나라이고, 폴란드 역시 지리적 이점과 우수한 노동력을 비롯한 기초과학 기술 역량을 갖춘 강국"이라며 "이러한 양국의 강점이 호혜적

인 방식으로 시너지를 발휘한다면 양국 협력의 새로운 지평이 열릴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양국 국민 간 유대와 우정이 더욱 깊어질 수 있도록 문화 교육 협력을 강화하고 인적 교류를 증진할 방안에 대해서도 협의하면 좋겠다"고 했다.

아울러 투스크 총리의 정치적 동지인 폴란드 자유노조 창설자이자 노벨평화상 수상자인 레흐 바웬사를 거론하며 "대한민국이 80년대 민주화 투쟁을 하고 있을 때 폴란드의 자유노조, 레흐 바웬사는 매우 인상적인 희망의 불빛 같은 존재였다. 민주주의의 힘으로 폴란드와 대한민국이 더 많이 발전하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과 폴란드는 1989년에 수교를 한 후 각 분야에서 우호 협력 관계를 계속 발전시켜 왔다. 한국에 있어 폴란드는 유럽연합(EU) 국가 중 5위를 차지하는 중요한 교역국이고, 폴란드에 한국은 비유럽 국가 중 1위의 투자국가이기도 하다"며 "이 방한이 양국 관계 발전의 새로운 이정표가 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기대했다.

투스크 총리는 "저도 대통령님과 마찬가지로 젊은 나이에 노동자로 일했던 경험이 있고, 민주주의와 자유를 위해

서는 큰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점도 서로 잘 이해하고 있다"며 "어려운 시기에 대통령께서 개인적으로 모범적인 부분을 보여주셨음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화답했다.

이어 "폴란드뿐만 아니라 유럽, 전세계적으로도 대통령님의 노력이 감탄을 보여주고 있다. 대통령께서는 폴란드뿐만 아니라 유럽에서 좋은 평가를 받고 계신다"면서 "한국을 위해 여태까지 해 온 모든 일을 좋게 평가하고 있는 것 같다"고 했다.

그는 "한국은 폴란드에 있어 미국 다음으로 가장 중요한 동맹국이고, 특히 방위 산업 쪽이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며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믿고, 방위 산업 협력과 관련해 개인적으로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관리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또 양국 관계가 포괄적 전략 동반자관계로 격상한 것을 언급하며 "폴란드뿐만 아니라 한국이 유럽국가와도 파트너십을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특히 평화 전략이나 새로운 국제 평화에 기여하는 부분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서예진 기자

syj@metroseoul.co.kr



## 중동 위기에 손잡은 여야... 매주 정례 회동

**월요일 마다 만나 대응 본격화**  
나프타 수급 문제 등 논의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3일 중동전쟁 장기화에 따른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매주 월요일 정례 오찬 회동을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중동 전쟁으로 인한 현재의 위기 상황 극복을 위해 여야가 공동으로 상황 점검을 해야 한다는 공감대를 형성했다"며 "매주 월요일 오찬 회동을 통해 대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양당 원내대표와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번 오찬 회동을 통해 중동전쟁으로 인한 현재 위기상황 극복을 위해 공동으로 상황점검을 해야 한다는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보인다.

또 전쟁상황 대응의 긴급성을 감안해 오는 16일 오전 여야 원내대표, 수석부대표, 관련 부처 등이 참여하는 '긴급 현안 보고 및 대응 점검회의'를 합동으로 갖기로 했다.

회의에서는 중동 상황이 국내 경제, 에너지 수급, 물가 등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하고 정부 대응 상황에 대해 공유할 예정이다. 특히 나프타(납사) 수급

문제와 관련한 의약품 수급 불안, 플라스틱 제품 생산 차질과 종량제 봉투 공급 불안 등도 이날 회의에서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정부가 편성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중동 위기 대응을 위한 예산 집행 관련 사항도 점검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7일 청와대에서 정청래 민주당·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와 오찬 간담회를 갖고 중동전쟁 장기화에 따른 위기상황 극복을 위해 초당적 협력을 부탁한 바 있다. 해당 간담회에는 한병도 민주당·송언석 국



(오른쪽부터)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지난달 30일 서울 영등포구 한 음식점에서 악수하고 있다. /뉴시스

민의를 원내대표도 참석했다.

이를 감안하면 이번 합의는 정부뿐 아니라 국회도 초당적으로 협력해 여야가 함께 상황 점검을 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풀이된다. 국회

차원에서 여야정 민생경제협의체가 공동되는 셈이다. 여야는 중동 전쟁에 대응하기 위한 민생법안 처리를 위해 조만간 국회 본회의를 개최할 것으로 알려졌다. /서예진 기자·박경수인턴 기자 syj@

## 민주당, 광역 10곳서 모두 국민의힘 앞서

**한국갤럽 가상대결 여론조사**  
경남서만 오차범위 내 접전  
서울시장, 정원오 52% 오세훈 37%

6·3 지방선거를 50여일 앞둔 13일 서울·부산·대구 등 광역자치단체장 주요 승부처 10곳의 가상대결 여론조사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국민의힘 후보에 오차범위 밖으로 앞선다는 결과가 나왔다. 여론조사를 한 10곳에서 국민의힘 후보가 앞선 곳은 없었고, 경남 한 곳만 여야 후보가 오차범위 내 접전이었다.

한국갤럽이 세계일보 의뢰로 지난 7~11일 서울·인천·경기·강원·부산·대전·대구·충북·충남·경남 등 10곳의 여야 가상대결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민주당은 경남을 제외한 9곳에서 국민의힘과 큰 격차를 보였다. 가상대결이 실시된 10곳 중 인천과 강원, 부산, 경남은 대진표가 확정된 곳이며, 나머지 6곳은 경선이 진행 중이다.

현재 국민의힘 후보가 확정되지 않은 서울시장 가상대결에서는 정원오 민주당 후보가 52%를 얻어 오세훈 현 시장(37%)을 15%p(포인트) 앞섰다. 정 후보는 민주당 약세 지역으로 꼽히는 서울 동남권역(강남구·서초구·송파구·강동구)에서도 48% 대 42%로 오 시장을 눌렀다. 정 후보와 박수민 국민의힘 의원이 맞붙었을 때는 57% 대 25%, 정 후보와 윤희숙 전 의원이 맞붙었을 때는 57% 대 26%로 집계됐다.

경기에서는 추미애 민주당 후보가 양향자 국민의힘 예비후보와 대결에서 56% 대 27%, 조광한 국민의힘 예비후보와 대결에서 57% 대 27% 등 두 예비후보를 약 30%p 가량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선거에서 격전지로 떠오른 대구에서는 김부겸 민주당 후보가 국민의힘 모든 주자를 오차범위 밖에서 앞서는 것으로 조사됐다. 대구는 통상적으로 국민의힘 '텃밭'으로 꼽힌다.

하지만 조사 결과 김 후보와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 간 대결에서는 53% 대 35%,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과 그의 대결에서는 54% 대 37%, 추경호 의원의 대결에서는 53% 대 36%를 기록했다. 다만, 주 의원과 이 전 위원장은 국민의힘 경선에서 탈락한 상태다. 이에, 남은 국민의힘 예비후보 중 추경호

의원(36%)의 경우 김 후보(53%)가 17%p 앞섰다.

역시 전통적으로 국민의힘이 당세가 강한 부산시장 가상대결에서도 전재수 민주당 후보가 51%를 얻어 현역인 박형준 부산시장(40%)을 11%p 가량 따돌렸다.

인천에선 박찬대 민주당 후보 49%, 유정복 인천시장이 33%로 10%p 이상 격차를 보였다. 강원지사의 경우 이상호 민주당 후보가 48%, 김진태 강원지사가 37%를 기록했다.

대전에서는 국민의힘 소속인 이장우 대전시장이 장철민(51%)·허태정(55%) 민주당 예비후보와 맞붙어도 각각 29%·28%를 기록하며 오차범위 밖에서 밀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충남역시 박수현(51%)·양승조(52%) 민주당 예비후보 모두 김태홍 충남지사

(각각 34%·33%)와 붙어도 오차범위 밖에서 앞섰다. 충북도 신용한 민주당 후보가 김영환(29%)·충북지사·윤갑근(27%)·윤희근(25%) 예비후보와 붙어도 각각 55%·57%·58%를 기록해 과반을 차지한 것으로 나왔다.

경남의 경우만 오차범위 내 격차를 보였다. 김경수 민주당 후보가 44%, 국민의힘 소속 박완수 경남지사가 40%를 기록해 10곳 중 오차범위(±3.5%p) 내 접전을 벌였다.

한편 조사는 이동통신사 제품 무선전화 가상번호를 무작위로 추출해 전화조사원 인터뷰(CATI) 방식으로 진행했고 ▲서울 10~11일 ▲경기 9~10일 ▲인천 7~8일 ▲강원 7~8일 ▲대전 8~9일 ▲충북 10~11일 ▲충남 8~9일 ▲대구 10~11일 ▲부산 9~10일 ▲경남 7~8일 이뤄졌다. /서예진 기자

함께 성장하며  
행복을 나누는 금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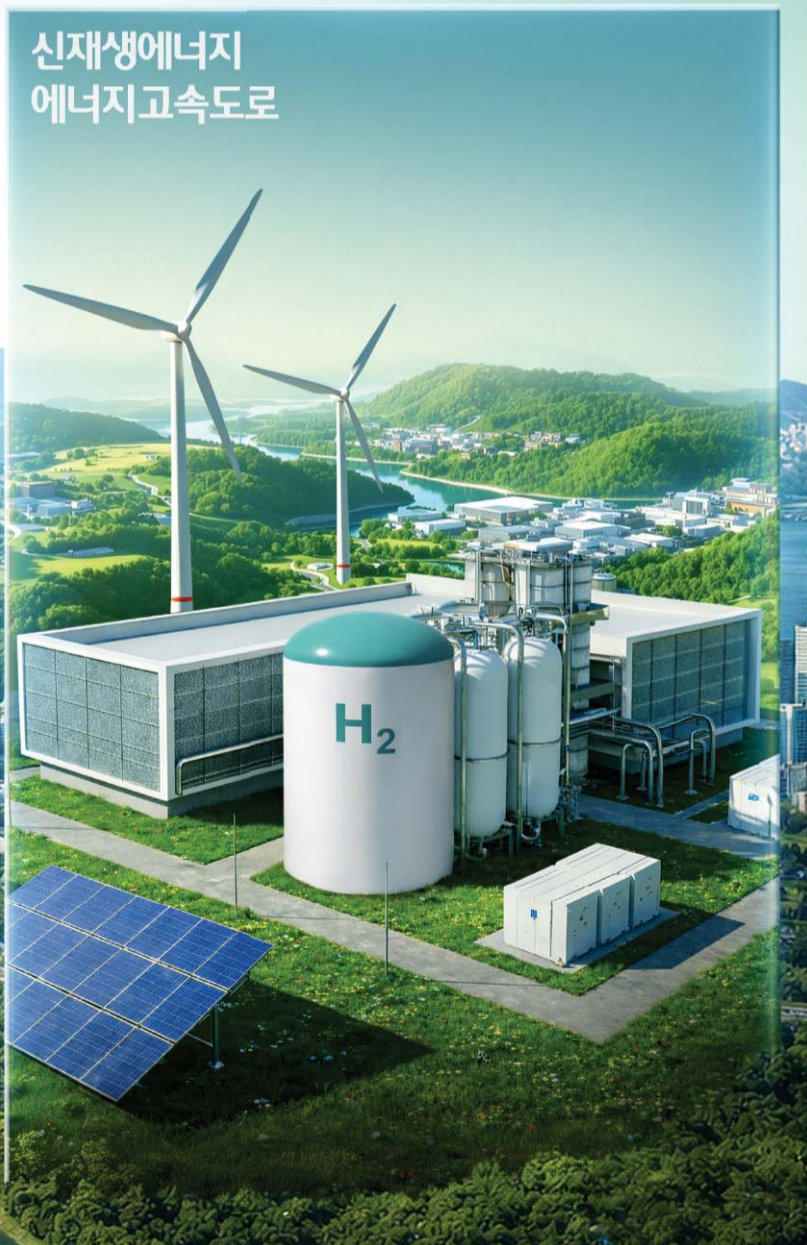


# 대한민국의 미래를 여는 하나 모두 성장 프로젝트

하나금융그룹은 생산적 금융을 실천하며  
모두 함께 성장하는 대한민국의 내일을 만들겠습니다.

기업의 도전이 멈추지 않도록  
산업의 성장이 이어지도록  
대한민국 경제가 다시 한번 도약할 수 있도록

하나금융그룹이 든든한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 하나 모두 성장 프로젝트 ] 하나금융그룹은 국가 미래 성장과 민생 안정 지원을 위해 2030년까지 5년간 총 100조원을 투입하여 생산적 금융과 포용 금융을 실천하겠습니다

- 신재생에너지·에너지고속도로
- 핵심 성장 산업 지원·K-밸류체인 강화
- 산업단지 고도화를 위한 중소·중견기업 지원

하나금융그룹

| 하나금융지주 | 하나은행 | 하나증권 | 하나카드 | 하나캐피탈 | 하나생명 | 하나손해보험 | 하나저축은행 | 하나자산신탁 | 하나자산운용 | 하나대체투자자산운용 | 하나에프앤아이 | 하나벤처스 | 하나펀드서비스 | 하나금융티아이 | 핀크 |

# 소상공인 위한 '제4인뱅' 재추진 수익·건전성 확보가 성패의 핵심

## 금융권, 제4인뱅 논의 본격화

“은행, 개인사업자 개인신용 평가 ‘소호 스코어’ 같은 평가체계 필요”

최근 정치권에서 개인사업자 대출 확대를 위한 ‘제4인터넷전문은행’ 논의가 다시 부상한 가운데 수익성과 건전성 확보가 성패를 가를 핵심 변수로 떠올랐다. 지난해 금융당국 예비인가 과정에서 자본력 한계가 드러난 만큼, 안정적인 수신 기반 확보 필요성도 커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사업계획 심사 기준을 강화하고 총량규제를 보다 정교하게 운영해 건전성 리스크를 관리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제4인터넷전문은행 논의는 소상공인과 중저신용자 등 금융 사각지대 해소 필요성에 힘입어 본격화됐다. 국내 소상공인은 약 554만명으로 전체 취업자의 약 20%를 차지한다. 이들의 금융부채는 약 1000조원 규모로 추산되며, 이 가운데 은행권 대출만 약 460조원에 달한다.

### ◆ 소상공인 금융 공백 여전

인터넷은행에 도전하는 곳은 소상공인을 위해 네번째 인터넷은행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인목 한국신용데이터 이사는 “현재 은행은 개인사업자를 사업이 아닌 개인 신용 기준으로 평가하고 있다”며 “사업 데이터 기반의 ‘소호 스코어’와 같은 새로운 신용평가



Chat GPT로 생성한 이미지.

체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현재 인터넷은행의 지난해 여신 성과를 보면 가계대출 중심 편중현상이 심화됐다. 인터넷은행 3사의 여신 가운데 90%는 가계대출에 집중돼 있고, 개인사업자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8%에 불과하다.

회사별 가계대출 잔액 규모를 보면 카카오뱅크는 43조8000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케이뱅크(16조1000억원)와 토스뱅크(14조원)가 뒤를 이었다. 반면 개인사업자대출은 카카오뱅크 3조1000억원, 케이뱅크 2조3000억원, 토스뱅크 1조4000억원으로 집계됐다.

### ◆ 건전성·자본력 검증 우선

금융당국은 제4인터넷전문은행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초기 자본 조달의 안정성과 건전성 측면의 리스크 대응 능력이 충분히 입증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종진 금융감독원 팀장은 “은행은

안정성과 공익성이 핵심인 산업으로 문제가 발생할 경우 소비자 피해를 넘어 금융 시스템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예비인가 탈락은 혁신성 부족이라기보다 초기 자본 조달의 안정성과 건전성 측면에서 리스크 대응이 충분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재 시점에서 필요한 특화 은행이 무엇인지, 시장에 미치는 영향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금융위 역시 인가 재추진에 대해 신중한 입장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제4인터넷은행은 금융 소외 계층에 대한 자금 공급 상황, 은행업을 영위할 수 있는 사업자의 적합성, 금융시장 경쟁 구조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며 “현재 인터넷은행 3사가 사회적 요구를 충족하고 있는지, 개인사업자와 지방 기업에 대한 여신 공급에 제도적 한계는 무엇인지도 함께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작년 하반기 한국소호은행, 소소뱅크, 더존뱅크, 유뱅크 등 예비인가 신청업체들이 제4인터넷은행에 도전했지만 모두 탈락한 바 있다. 대부분 자본조달 능력 부문에서 의문이 제기됐다. 현재 로선 소상공인 전문은행을 내세우고, 전략적 투자자가 참여하는 컨소시엄이 유리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나유리 기자

yul115@metroseoul.co.kr



metro

# “중동 리스크 대응… 금융시장 모니터링”

## 금융위, 금융 비상대응 TF 회의

금융위원회가 ‘중동사태’의 지정학적 리스크 재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금융시장 리스크 요인을 대대적으로 점검하고, 시장 동향을 24시간 모니터링한다. 또한 피해가 우려되는 주요 산업을 대상으로 업권별 ‘탈레이 간담회’를 지속 개최해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발굴한다.

금융위는 13일 이석원 위원장 주재로 ‘금융부문 비상대응 TF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TF 회의는 미국과 이란의 휴전 합의가 불발하며 지정학적 리스크가 재확산하는 상황에서 금융시장 리스크 요인을 최소화하고, 범정부 차원의 비상대응체계를 공고히 하고자 마련됐다.

### 이석원 금융위원장

“명확한 종전 선언까지 긴장 유지  
시장 안정과 민생지원 등 추진을”

이석원 금융위원장은 “휴전 합의 불발로 우리경제를 둘러싼 불확실성은 여전히 엄중한 상황이다. 후속협회의 여지가 남아있다고는 하나 명확한 종전 선언이 있기까지 긴장의 끈을 놓쳐선 안된다”라며 “현재 가동하고 있는 ‘금융부문 비상대응체계’를 철저히 유지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범정부 차원에서 현재의 비상대응체제를 엄중히 유지하기로 한 만큼, 앞으로도 금융시장 안정과 민생·실물경제 자금지원 등 노력을 빈틈없이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먼저, 금융시장반에는 중동상황에 따른 시장동향을 24시간 밀착 모니터링하며 변동성이 확대될 경우 시장안정조치를 즉각적이고 과감하게 시행해 달라고 주문했다. 특히 ‘채권·자금시장 안정프로그램’의 지원규모 확대방안은 이미 마련된 만큼, 필요시 즉각 확대해



이석원 금융위원장.

/뉴스1

달라고 강조했다.

민생·실물경제 현장의 긴급한 자금이 용에 어려움이 없도록 빈틈없이 지원할 것을 당부했다. 특히 피해기업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정책금융 지원프로그램’이 최근 추경을 통해 지원규모를 확대한 만큼 보다 적극적인 집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민간 금융권의 신규자금공급 등 지원상황도 면밀히 모니터링해 필요시 지원규모대상 확대 등에 대한 협조를 요청할 것을 당부했다.

이어 주요 산업 ‘탈레이 간담회’ 등 현장의 금융애로를 직접 청취하고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도 지속 발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지난 주 개최한 ‘건설업-금융권 간담회’에서 논의된 과제에 대해서는 신속히 검토조치 해달라고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금융산업반에는 실물경제의 리스크 요인인 금융산업으로 전이되지 않도록 최악의 상황을 가정한 스트레스테스트를 통해 선제적으로 대응할 것을 당부했다.

이석원 금융위원장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 “금융시장의 안정을 지키는 것이 우리 경제의 펀더멘털을 수호하는 핵심”이라며 “시장 참여자들이 정부의 대응의지를 신뢰할 수 있도록 모든 금융권 역량을 집중해 달라”고 당부했다.

/안승진 기자 asj1231@

# 美 ‘매파 기류’… 한은, 금리인하 여지 줄어

한은 “중동전쟁 영향으로 국내의 물가 상방·성장 하방 압력 증가  
연준 의사록, 선택지 좁히는 변수”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내부에서 다시 매파(통화긴축 정책 선호) 기류가 고개를 들면서 한국은행의 추가 완화 여지도 더 좁아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은이 지난 10일 기준금리를 동결(연 2.50%)한 가운데, 연준 3월의 사록과 미국 기대인플레이션 상승까지 겹치면서 ‘빠른 인하’ 기대는 한층 힘을 잃는 모양새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연준의 3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의사록은 미국 쪽 바람이 다시 매파로 기울고 있음을 보여준다. 연준은 공식 의사록에서 인플레이션의 상방 위험과 고용의 하방 위험이 모두 높아진 상황을 적시했다. 일부 참석자들은 물가 상방 위험이 현실화할 경우 정책 제약을 더 강화하는 것이 적절할 수 있다고 봤다.

같은 시기 뉴욕연은의 3월 소비자대조사에서도 1년 기대인플레이션은 3.4%로 전월보다 0.4%포인트(p) 뛰었다. 단순히 ‘연내 인하가 늦어질 수 있다’ 수준이 아니라, 미국 내부에서 인플레이션 재가열에 대한 경계가 다시 또렷해졌다는 의미다.

이 대목이 한은에 더 무겁게 다가오



신현승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가 13일 오전 서울 중구 한화금융플라자에 마련된 인사 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뉴스1

는 이유는, 한은이 이미 국내 변수만으로도 쉽게 움직이기 어려운 환경에 놓여 있기 때문이다. 한은은 지난 10일 통화정책방향에서 “중동전쟁의 영향으로 물가 상방압력과 성장 하방압력이 증대됐고 금융·외환시장의 변동성이 크게 확대됐다”고 진단했다.

원·달러 환율은 중동 전쟁과 외국인 주식 순매도, 달러 강세가 겹쳐 1500원 대까지 높아졌다가 미국·이란 간 임시휴전 이후 일부 하락했고, 국고채금리와 주가도 큰 폭으로 등락했다. 즉 한은이 이번 회의에서 동결을 택한 배경에는 경기만이 아니라 물가, 환율, 금융시장 전반의 변동성이 함께 들어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연준 의사록은 한은의 선택지를 더 좁히는 변수다. 연준이 쉽

게 비둘기파로 돌아서기 어렵다는 신호가 강해질수록, 한은은 금리차와 원화 약세 부담을 더 의식할 수밖에 없다.

로이터가 금융위 직전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이코노미스트 31명 전원이 한은의 4월 동결을 예상했고, 장기 전망을 제시한 30명 중 26명은 연말까지도 기준금리 2.50% 유지를 전망했다. 같은 조사에서 전문가들은 전쟁 발발 이후 유가가 50% 넘게 뛰었고, 원화는 달러 대비 약 4% 약세를 보였다고 지적했다.

한국처럼 원유의 상당 부분을 걸프 지역에 의존하는 경제에선 이 조립이 수입물가와 소비자물가를 동시에 자극할 수 있어, 한은이 환율을 직접 목표로 삼지 않더라도 원화 약세를 가볍게 보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특히 차기 한은 총재 후보자조차 환율과 물가의 결합을 핵심 변수로 보고 있다는 점에서, 시장이 기대하는 ‘빠른 인하 복귀’는 더 멀어질 수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신현승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는 13일 국회 제출 서면답변에서 “과도한 원화 약세에는 적절히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현재 환율 수준 자체가 당장 문제라고 보진 않는다”며 “전쟁 이후 원화 절하 속도가 다른 통화보다 빨랐고 불확실성이 높은 만큼 면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했다. /김주형 기자 gh471@

# 집값에 떠밀려 ‘탈서울’… 경기도에 집 샀다

경기 부동산 매수 서울거주자 비중  
지난달 16%… 3년여 만에 최고치

지난달 서울 거주자의 경기도 부동산 매수 비중이 3년여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비싼 집값에 전세난까지 겹치면서 서울 거주자가 경기권으로 눈을 돌리며 이동한 것으로 보인다.

13일 직방에 따르면 대법원 등기정보광장의 소유권이전등기 신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집합건물 기준 경기도 부동산을 매수한 수요 중 서울 거주자 비중은 3월 15.69%로 나타났다. 이는 전월(14.52%) 대비 1.17%포인트(p) 상승했으며, 지난 2022년 6월(16.28%)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서울 거주자의 경기도 매수 비중은 2024년 말 9.32%로 저점을 찍은 이후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

직방 관계자는 “수도권 부동산 시장은 서울이 여전히 높은 가격 수준을 유지하는 가운데 가격 부담과 금융 규제 환경이 맞물리며 수요의 이동 경로가 재편되는 흐름”이라며 “전월세 가격도 높은 수준으로 임차 부담을 줄이기 위한 실수요의 매입 전환 움직임도 일부 이어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반면 같은 기간 서울로의 유입은 둔화됐다. 서울 집합건물을 매수한 수요 중 경기도 거주자 비중은 2025년 중반 16%대 안팎이었지만 지난달에는 13.76%로 낮아졌다.

서울에서 인천으로의 이동도 변화가 크지 않았다. 서울 거주자의 인천 매수 비중은 최근 약 1.8~2.5% 수준에서 등락을 보이며 큰 변화 없이 유지되고 있다.

직방 관계자는 “경기도의 경우 서울과의 물리적 접근성과 생활권 공유가 가능한 지역이 많아 서울 대체지로서의 선택이 상대적으로 용이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며 “인천은 일부 지역을 제외하면 서울과의 생활권 연계성이 상대적으로 제한적이고, 지역 내 자족적인 수요 기반이 형성되어 있어 외부 수요 유입에 따른 변동 폭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향후 금리 수준과 대출 규제 강도에 따라 이러한 흐름은 점진적으로 구조화될 가능성이 있다”며 “부동산 시장은 자금 조달 여건 변화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만큼 시장 흐름에 대한 점검과 함께 변동성 확대에 대비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덧붙였다. /안상미 기자 smahn1@

# 수익연봉 '부푼 꿈'... SK하이닉스 생산직 수시채용

급증하는 AI 반도체 수요 대응  
신규 생산거점 선제적 인력 확충  
성과급 기대감에 고용시장 '들쭉'

SK하이닉스가 급증하는 AI 반도체 수요와 확대되는 생산능력에 맞춰 전임직(생산직) 채용에 나섰다. 인력 선제 확보 차원으로 급증할 성과급 기대감과 맞물려 구직 시장의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다.

SK하이닉스는 13일 채용 홈페이지에 '4월 탤런트 하이웨이 메인트 및 오퍼레이터' 모집 공고를 올렸다. 마감은 이달 22일까지다. 채용 직무는 반도체 장비 유지보수를 담당하는 메인트(Maintenance)와 장비 운용 및 공정 지원을 맡는 오퍼레이터(Operator)다.

SK하이닉스는 올해 초 경력 채용 브랜드 '월간 하이닉스 탤런트'를 '월간 하이웨이(Talent hy-way)'로 개편하고 사무직은 물론 전임직까지 수시 채용 제도로 확대했다. 시기와 경로에 제한 없이 반도체 인재를 확보하겠다는 취지다. 이달 초에는 테크 R&



경기 이천시 SK 하이닉스 본사 모습. /뉴스

D·IT·제조 분야 경력직 공고도 별도로 냈다.

정확한 채용 규모는 공개되지 않았다. 다만 지난해 전체 직원 수가 3만 4549명으로 전년(3만 2390명) 대비 2159명(6.7%) 늘었다는 점에서 올해도 이에 준하거나 그 이상의 증원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채용은 기존 이전캠퍼스를 넘어 신규 생산거점까지 염두에 둔 선제적 인력 확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회사가 현재 건설 중인 청주 M15X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가 그 대상이다. 특히 용인 클러스터는 SK하이닉스가 120조원 이상을 투자해 조성 중인 국내 최대 규모의 반도체 단지로 완공 시점에 맞춰 숙련된 현장 인력을 선형 배치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크다.

이번 채용에 시장이 주목하는 가장 큰 이유는 성과급이다. SK하이닉스는 지난해 9월 노사 합의를 통해 성과급 구조를 전면 개편했다. 매년 영업이익의 10%를 초과이익분배금(PS·영업이익일정 비율을 직원에게 나누주는 성과급 제

도)으로 활용되던 기존 '기본급 1000%'로 묶여 있던 지급 상한선을 폐지한 것이 핵심이다. 실적이 오를수록 보상도 그만큼 늘어나는 구조다.

SK하이닉스는 2025년 연간영업이익 47조 2063억원으로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했고 직원들은 올해 초 기본급 2964% 수준의 PS를 수령했다. 영업이익의 10%인 약 4조 7200억원을 재원으로 삼아 직원 1인당 단순 평균으로 약 1억 3663만원이 지급된 셈이다.

올해 전망치는 이를 크게 웃돈다. 업계는 SK하이닉스의 올해 연간영업이익이 200조원에 근접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으며 같은 공식을 적용하면 내년 초 지급될 성과급은 직원 1인당 평균 약 5억 8000만원 수준이 될 것으로 추정된다. 일각에서 거론되는 성과급 규모 '7억'은 올해 영업이익이 250조원을 달성했을 때를 가정한 수치다.

더 확대된 전망도 나온다. 글로벌 투자은행 맥쿼리는 SK하이닉스의 향후 영업이익이 447조원에 달할 수 있다고 봤다. 이 전망대로라면 PS 재원은 약 44조 7000억원 직원 1인당 평균 성과급은 약

12억 9000만원이라는 계산이 나온다. 다만 특정 가정에 기반한 추정치이며 실제 지급액은 개인별 연차와 성과에 따라 달라진다.

특히 SK하이닉스의 성과급 규모가 전년(약 1억 3663만원) 대비 최소 3~4배에서 최대 10배 가까운 상승이 예상되면서 구직 시장을 달구는 핵심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이 같은 분위기는 채용 선호도에도 고스란히 반영됐다. SK하이닉스는 최근 커리어 플랫폼 사람인 조사에서 삼성전자를 제치고 '가장 입사하고 싶은 대기업' 1위에 올랐다. 오랫동안 국내 취업 선호도 정상을 지켜온 삼성전자를 처음으로 앞선 것으로 과격적인 성과급 기대감이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업계 관계자는 "성과급 구조 자체가 달라진 만큼 지원자 경쟁률도 예년과는 다른 양상을 보일 것"이라며 "고졸·초대졸대상 생산직이 사실상 '드림 직장'이 된 구조"라고 말했다. /구남영 기자

koogija\_tea@metroseoul.co.kr



## 김동명 "LG엔솔 핵심자산에 AX 결합"

전사 구성원에 CEO 메시지 전달  
다수 특허·인재 기반 경쟁력 확보  
"2028년까지 생산성 50% 증대"

LG에너지솔루션의 김동명 사장이 인공지능 전환(AI)을 기반으로 한 생산성 혁신에 본격 시동을 걸었다. 글로벌 배터리 시장 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단순한 규모 확대를 넘어 인공지능 중심의 구조 전환을 통해 경쟁 방식을 바꾸고 2028년까지 전사 생산성을 50%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

김 사장은 13일 전사 구성원에게 보낸 CEO 메시지를 통해 "AX는 생존과 직결된 필수 과제"라며 독보적인 경쟁력 확보를 위한 실행 전략을 공유했다.

김 사장은 현재 글로벌 배터리 시장을 '기술이진 운동장'으로 진단했다. 경쟁사들이 정책 지원과 대규모 인력을 앞세운 양적 경쟁을 벌이고 있는 상황에서 단순한 규모 확대만으로는 승산이 없다는 판단이다. 이에 따라 AX를 통해 '핵심 자산 및 인재 중심'으로 경쟁의 물을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회사가 보유한 다수의 특허 등



김동명 LG에너지솔루션 최고경영자(CEO) 사장. /LG에너지솔루션

지식재산권과 약 30년에 걸친 업력, 축적된 인재 역량을 핵심 경쟁력으로 제시하며 "이 자산들이 AX와 결합할 경우 경쟁 판도를 바꿀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실제 LG에너지솔루션은 기존 '2030년까지 생산성 30% 개선' 목표를 '2028년까지 50% 개선'으로 대폭 상향 조정했다. 경쟁사들의 투자 확대에 대응해 보다 빠른 시점에 성과를 확보하겠다는 전략이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전사적 지원 체계도 강화한다. 김 사장은 AX 추진 과정

에서 제조업 특유의 복잡성과 국가핵심 기술 보안, 현업 적용 문제를 동시에 해결해야 한다고 짚으며 강력한 리더십과 체계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이와 함께 매일 CEO가 직접 주재하는 'AI 거버넌스 위원회'를 운영해 AI 도입과 보안, 변화관리 이슈를 점검하고 있다. 또한 기업형 AI 플랫폼을 비국가핵심기술 영역부터 단계적으로 도입하고 전사 AI 교육도 확대할 계획이다.

AI 도입에 따른 고용 불안 우려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김 사장은 "계산기가 있어도 연산 원리를 이해해야 제대로 쓸 수 있듯 AI 역시 문제를 정의하고 구조화할 줄 아는 숙련된 경험을 가진 사람이 더 잘 활용할 수 있다"며 "AX는 구성원을 덜

중요하게 만드는 변화가 아니라, 비효율적인 일에서 벗어나 사업적 임팩트를 창출하는 '진짜 업무'에 집중하게 만드는 변화"라고 설명했다. 이어 "시도와 피드백, 빠른 보완이 AX 추진의 핵심 방식"이라며 "경쟁의 판을 바꾸고 쉽게 따라올 수 없는 경쟁력을 확보하는 '이기는 혁신'을 함께 만들어가자"고 강조했다.

/원관희 기자 wkh@

## 삼성전자 노조 '블랙리스트' 작성 의혹

사측, 법 위반 판단... 경찰 수사 의뢰

삼성전자 내부에서 임직원의 노조 가입 여부를 식별해 이른바 '블랙리스트'를 작성하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며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회사 측은 해당 사안을 중대한 법 위반으로 판단하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지난 10일 사내 공지를 통해 '특정 부서의 단체 메신저에서 부서명, 성명, 사번, 조합 가입 여부 등이 포함된 명단이 공유된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해당 명단에는 수십 명 이상의 임직원 정보가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일부 직원들이 노조 가입 사이트의 '사번 중복 확인' 기능을 활용해 특정 임직원의 가입 여부를 확인하고, 이를 바탕으로 미가입자 명단을 작성·유포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노조 가입 여부는 개인의 신념과 결사의 자유와 관련된 민감 정보로, 당사자 동의 없이 수집·활용

할 경우 법 위반 소지가 크다.

삼성전자는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해 지난 9일 경기도 화성동탄경찰서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형사 고소장을 접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논란과 관련해 일각에서는 노조가 미가입자 색출을 조정하거나 묵인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된다. 노조 측 인사가 과거 공개 발언을 통해 파업 미참여자 명단 관리 필요성을 언급한 점 등이 배경으로 거론된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사안을 전형적인 '블랙리스트' 문제로 볼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한 노동 전문 변호사는 "노조 가입 여부나 쟁의행위 참여는 개인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결정돼야 한다"며 "특정인을 식별해 명단화하는 행위는 심리적 압박을 가하고 사실상 참여를 강요하는 효과를 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차현정 기자 hyeon@

## 대한항공, 1분기 매출 4.5조... 역대 최대

불확실한 외부 환경에도 실적 견조

대한항공이 3월 한 달간 지속된 중동 발 고유가, 고환율 등의 불안 속에서도 1분기 기준 역대 최대 매출을 달성했다.

대한항공은 13일 별도 재무제표 기준 올해 1분기 매출이 4조 5151억원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14%(5592억원) 증가한 수준이며,

1분기 기준 역대 최대 매출이다.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47%(1660억원) 급증한 5169억원을 기록했다. 당기순이익은 2427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6%(495억원) 늘었다.

사업 부문별로는 여객 사업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1776억원 증가한 2조 6131억원을 기록하며 실적을 견인했다. 2월 설 연휴 기간의 견조한 수요 유입과 유

럽 및 주요 환승 노선 중심의 매출 증대가 주효했다는 분석이다.

화물 사업 매출은 고정 물량 계약 확대와 미주 노선 탄력 운영에 힘입어 전년 동기 대비 366억원 증가한 1조 906억원으로 집계됐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최근 국제 유가 상승으로 인한 비용 급증에 대비해 4월부로 비상경영체제로 전환했다"며 "유가 단계적 대응을 통해 전사적 비용 효율화를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양성운 기자 ysw@

## LG전자 연구·전문위원 22명 선발

LG전자는 연구위원 15명, 전문위원 7명 등 총 22명을 '2026년도 연구·전문위원'으로 선발했다고 13일 밝혔다.

연구·전문위원 제도는 연구·개발(R&D)·생산·품질·디자인 등 각 분야에서 최고의 전문가를 육성하기 위한 LG전자의 핵심 인재 경영 시스템이다. 선발된 위원들은 독립된 업무 환경과 별도 처우를 보장받으며 각자 전문 분야에 몰입하게 된다.

올해 연구위원 선발은 미래 먹거리로 육성 중인 중점 분야에 집중됐다.

CTO부문 소재재료연구소 김정섭 연

구위원은 차세대 AI 데이터센터에 필수적인 냉각 솔루션 개발 공로를 인정받았다. VS사업본부 김동욱 연구위원은 운전사 시선 추적 기반의 초경량 AR-HUD 등 차세대 차량용 디스플레이 기술 개발을 이끌었다. 또 디지털 트윈 기술을 활용해 실제 장비 없이 성능을 검증하는 인공지능(AI) 능동제어 분야의 박노마 연구위원(ES사업본부)도 신임 명단에 올랐다.

전문위원 직군에서도 특허·상품기획·디자인·품질 등 직군에서 성과를 입증한 인재들이 고루 선발됐다. 연구·개발 직군은 기술 경쟁력 확보에, 그 외 직군은 전사 차원의 핵심 과제를 주도하는 역할을 각각 수행하게 된다. /구남영 기자

# 한솔테크닉스, 월테크놀러지 품고 반도체 사업기반 강화

900억 유증, 한솔홀딩스 617억 참여  
1772억 들여 지분 83.37% 확보  
프로브카드 앞세워 반도체 사업 확대  
테스트 공정 공략, 수익구조 고도화  
3년째 영업익 감소, 수익성 회복 승부



유경준 한솔테크닉스 대표.

실적부진으로 돌과구가 절실했던 한솔그룹 계열 한솔테크닉스가 월테크놀러지를 인수하고 시너지 모색에 적극 나선다. 비메모리 특화 프로브카드(Probe Card) 제조 전문인 월테크놀러지는 관련 분야 1위를 차지하며 삼성전자의 핵심 공급사이자 유일한 프로브카드 전략 육성 업체로 자리잡고 있다.

13일 한솔그룹에 따르면 한솔테크닉스는 지난 10일 이사회 결의를 통해 제3자배정방식으로 450억원, 주주배정 후 일반공모방식으로 450억원 등 총 9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실시한다. 그룹 지주사인 한솔홀딩스도 이번 유상증자에 참여해 최대 617억원 규모의 신주를 사들일 예정이다. 한솔홀딩스는 한솔테크닉스 지분 20.47%를 보유한 대주주다.

유상증자 자금은 전액 월테크놀러지

인수에 활용한다. 인수금액은 총 1772억원이다. 이를 통해 이윤정 월테크놀러지 대표를 포함해 김명환 및 특수관계인, 알머스투자조합 등이 보유한 지분 83.37%를 확보하며 최대주주가 된다.

한솔 관계자는 “프로브카드는 반도체 시장 전반의 수요 증가에 힘입어 지속적인 성장세가 기대되고 있다”면서 “한솔테크닉스는 월테크놀러지 인수를 통해 반도체 사업 영역에서의 확고한 기반과 경쟁력을 확보하고 장기적 성장 비전에 대한 실행력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전했다.



한솔그룹은 앞서 그룹의 핵심 신성장 동력 사업 중 하나로 반도체를 선정한 바 있다. 한솔테크닉스를 통해 월테크놀러지를 품고 안으면서 프로브카드를 중심으로 한 반도체 부문 시장 진출과 수익구조 고도화를 적극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2001년 설립한 월테크놀러지는 지난해 674억원의 매출과 96억원의 영업이익을 거뒀다. 이는 전년도 매출(667억원), 영업이익(92억원)과 비슷한 수준이다. 2022년 당시엔 750억원의 매출과 73억원의 영업이익을 거둔 바 있다.

시장조사전문기관인 Yole에 따르면

글로벌 프로브카드 시장은 2024년 24억 4000만 달러에서 오는 2028년에는 31억 1000만 달러까지 성장할 전망이다. 인공지능(AI) 서버, 자율주행, 고속통신, 의료, 한공, 사물인터넷(IoT) 등의 분야까지 활용폭이 넓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국내 프로브카드 시장규모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수요에 의해 대부분 결정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업계에 따르면 반도체는 웨이퍼 제조 공정→산화 공정→포도 공정→식각 공정→박막 공정→배선 공정→테스트 공정→패키징 공정의 8대 공정을 거쳐 만

들어진다.

이 가운데 프로브카드는 7번째인 테스트 공정에서 사용하는 소모품으로, 테스트 장비와 웨이퍼를 전기적으로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한다. 특히 프로브카드는 미세 프로브 핀의 설계와 제조 품질이 성능을 좌우한다.

현재 한솔테크닉스는 전기·전자부품, 자동차 전장, 전력계통운영시스템(EMS), 에너지 솔루션 분야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지난해 기준 매출액은 1조2524억원으로 전년(1조1995억원)보다 소폭 상승했다. 하지만 영업이익은 204억원으로 2024년(334억원)보다 하락했다. 영업이익은 2022년 당시 599억원을 기록한 이후 3년째 내리막이다. 한솔테크닉스는 이번 월테크놀러지 인수에 앞서선 반도체 장비소재의 정밀 가공, 세정, 코팅 사업 등을 영위하는 아이윈스(2022년), 반도체 소재 재생 사업을 영위 중인 에스아이머트리얼즈(2025년)를 각각 인수하며 반도체 장비 가공·소재 재생 사업에 뛰어든 바 있다.

/김승호 기자



metro

## 한성숙 장관, K-뷰티 업계 만나 “추경 신속 집행”

(중소벤처기업부)

충주 아우딘퓨처스서 K-뷰티 간담회  
수출바우처 1000억, 긴급자금 2500억  
중동 전쟁 여파에 원부자재 공급 차질



13일 충북 충주시 아우딘퓨처스에서 열린 ‘중동 전쟁 관련 K-뷰티 기업 간담회’에서 중소벤처기업부 한성숙 장관이 박수를 치고 있다. /중기부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K-뷰티 관련 기업들을 만나 “수출바우처 1000억원, 긴급경영안정자금 2500억원 등 추경예산을 신속하게 집행해 중소기업들의 위기 극복을 돕겠다”고 강조했다.

한 장관은 13일 오후 충북 충주에 있는 화장품 제조·판매기업 아우딘퓨처스를 방문해 관련 기업들과 가진 간담회 자리에서 “문제 해소를 위해 나프타 위기 품목 지정, 상승한 원부자재 가격 인상분의 납품대금 반영 여부 모니터링, 정책자금 만기 및 법인세 납기 연장 등 정부의 가능한 정책수단을 총동원하고 있다.

피해 중소기업들의 물류비 부담 경감, 수출 다변화 지원 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이날 자리는 중동 전쟁에 따른 대형 약재 이후 K-뷰티 기업의 피해 현황과 애로 사항을 듣기위해 마련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기업 대부분은 중동

전쟁으로 인한 원료, 포장재 등 원부자재 공급 차질과 단가 인상을 가장 큰 애로로 호소했다. 원료나 용기 제조기업들은 제품 생산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으며, 화장품 ODM 기업들도 용기 등이 제때에 공급되지 않아 고객사 납기 과정에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물류 문제에 대한 지적도 많았다. 물류 비용 폭등과 함께 운송 지연으로 인해 원부자재 수입은 물론 화장품 수출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사태가 더 장기화될 경우 K-뷰티의 글로벌 경쟁력에도 적지않은 타격이 있을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들이 많았다.

이날 자리를 함께한 오우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도 “우리 화장품 업계가 해외 진출에 어려움이 없도록 국내·외 인허가 정보와 글로벌 원료 규제 정보 등을 제공하고 국가별 규제 관련 온라인 교육도 실시하는 등 다양한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향후에도 K-뷰티 업계의 목소리에 더욱 귀를 기울여 애로사항을 수시로 파악해 실효성 있는 지원방안들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중기부에 따르면 중소기업 화장품 수출 규모는 2022년 44억7000만 달러에서 2023년과 2024년에는 각각 53억2000만 달러, 68억5000만 달러를 기록했다. 지난해에는 83억2000만 달러로 늘면서 이 기간 평균 23% 가까운 성장세를 이어오고 있다.

한편 이날 자리에선 중소기업 글로벌 진출 지원 강화 등을 위해 중기부, 식약처, 수출입은행, 기술보증기금이 업무 협약을 가졌다.

이를 계기로 이들 기관은 수출기업 대상 금융지원 및 투자 확대, 수출기업 애로 해소 지원 등을 공동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김승호 기자

## 삼표그룹

0도에도 강도 확보

특수 콘크리트 개발

현대건설과 간절기 기술 구현

삼표그룹이 현대건설과 0°C에도 굳는 간절기용 특수 콘크리트를 개발하고 현장에 성공적으로 적용했다.

13일 삼표그룹에 따르면 삼표산업이 현대건설과 공동 연구를 통해 개발한 간절기 특수 콘크리트는 ‘기온 보정값’ 적용 방식의 한계를 극복한 것이 핵심이다.

기존에는 낮은 기온 환경에서 강도 확보를 위해 시멘트 사용량을 늘려 콘크리트 규격을 높이는 방식이 주로 활용됐지만 이는 공사비 증가와 함께 일교차가 큰 간절기에는 내구성 저하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삼표그룹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삼표시멘트의 조강형 슬래그 시멘트를 적용한 간절기 콘크리트를 개발했다. 해당 기술을 통해 외기 온도가 0도(°C)에 가까운 환경에서도 48시간 이내 5MPa(메가파스칼) 이상의 강도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게 됐다.

/김승호 기자

## 시몬스 뷰티레스트 블랙, 더마테스트 ‘엑셀런트’ 획득

독 피부과학 시험기관 더마테스트 인증  
아토피 피부군 테스트서 저자극 입증

시몬스의 최상위 라인 ‘뷰티레스트 블랙’이 독일의 권위있는 연구기관 더마테스트의 피부과학 시험 인증에서 ‘엑셀런트(Excellent)’ 등급을 획득했다.

13일 시몬스에 따르면 더마테스트는 1978년 독일에서 설립된 세계적인 권위의 피부과학 시험 연구기관으로, 피부과 전문의·생물학자·식품화학자 등으로 구성된 전문가들이 피부에 접촉하는 제품

을 대상으로 피부 자극 여부와 안전성을 엄격히 검증하며 모든 기준을 충족한 제품에 한해서만 인증 마크를 부여한다.

이번 시험에서 뷰티레스트 블랙은 민감성 피부 중에서도 가장 까다로운 조건을 적용하는 ‘아토피 피부군’을 대상으로 한 패치 테스트에서 저자극 제품임을 인정받으면서 피부가 예민한 사람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제품임을 객관적으로 증명했다. 해당 테스트는 일반적인 피부 관련 인증과는 달리 직접 피부 접촉을 통해 안전성을 검증하는 것이 특

징이다. 이번에 인증을 받은 모델은 ▲ 켈리 ▲ 데보라 ▲ 마리옹 ▲ 루실 ▲ 브리짓 ▲ 로렌 ▲ 애거 등 뷰티레스트 블랙 전 제품이다.

뷰티레스트 블랙은 시몬스 침대의 전 역량을 집대성한 제품으로, 국내 초고가 침대 시장을 이끌어 가고 있다. 시몬스의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을 구현하는 포켓스프링 중에서도 3중 나선 구조의 ‘어드밴스드-포켓스프링’을 사용해 섬세하면서도 세련된 지지력을 구현하며, 수면 도중 작은 뒤척임에도 기민하게 반

응하고 신체를 세밀하게 지지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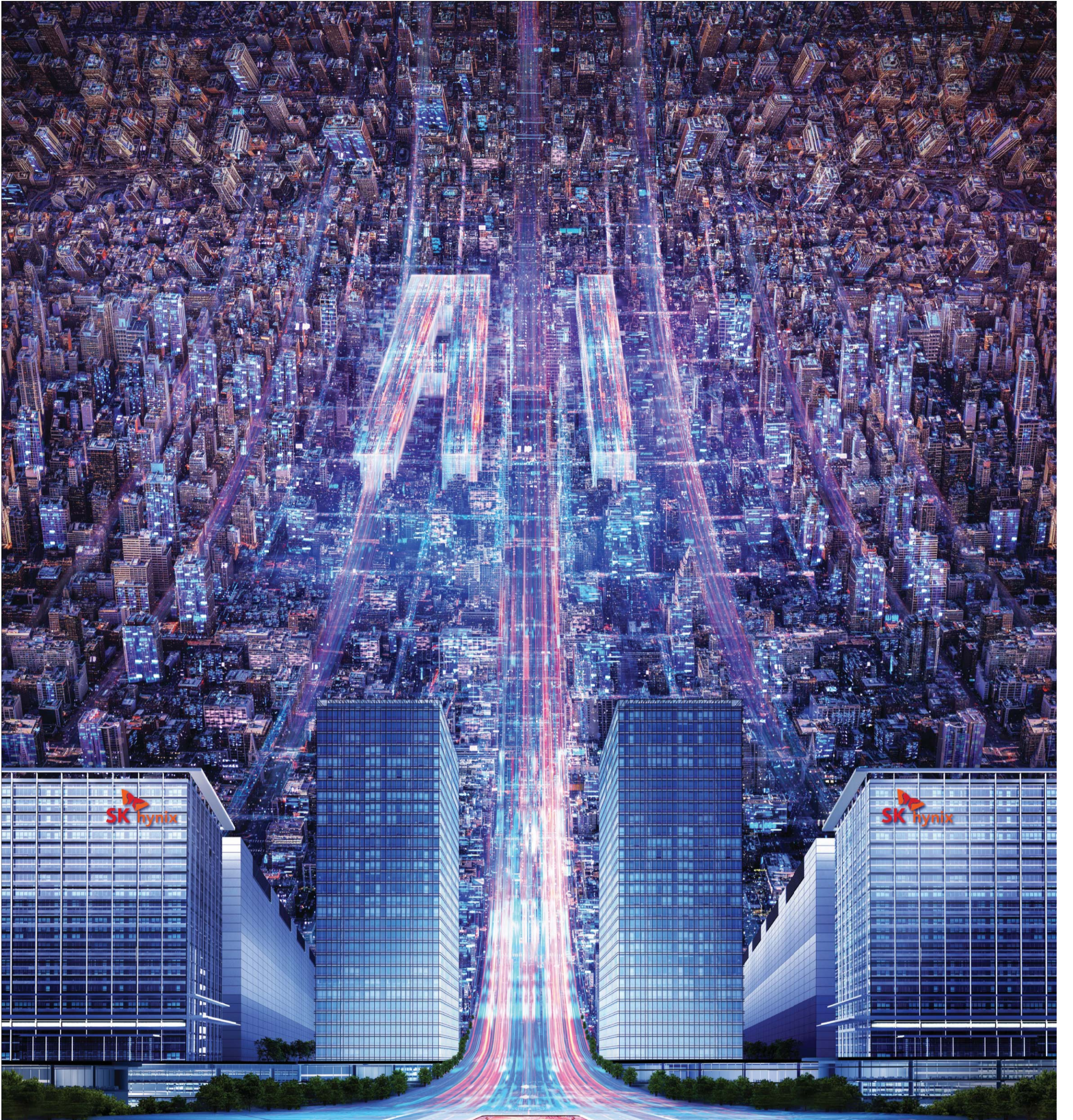
이런 기술력을 인정받아 지난 2016년 출시 이후 매년 두 자릿수씩 성장세를 이어왔으며, 2018년 출시 2년 만에 매출 300억원을 기록했다. 이후 2023년에는 월 300개, 올해 3월에는 처음으로 월 판매량 500개를 돌파했다.

시몬스 관계자는 “더마테스트 인증 획득을 통해 초프리미엄 매트리스로서 차별화된 안전성을 다시 한번 인정받았다”면서 “이를 계기로 소비자들이 더욱 신뢰하고 안심할 수 있는 수면 환경을 만들고, 프리미엄 침대의 기준을 더욱 높여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김승호 기자



삼표그룹은 현대건설과 0°C에서도 굳는 간절기 특수 콘크리트를 개발해 현장에 적용했다.



SK hynix

SK hynix

# 시 대 전 환

SK하이닉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이곳에서 새로운 AI 시대가 펼쳐집니다

We Do Technology  
첨단기술의 중심, 더 나은 세상을 만듭니다



# 中 시장 열렸지만 리스크 여전... K-게임 '양보다 질' 찾아야

지난해 K-수출 비중 1위 '중국' 게임 집중도 지수는 1.4배 그쳐 美 5배, 日 6.6배... 참여·소비 높아 대형 게임사, 서구권 비중 확대 흐름 향후 경쟁력 '효율적 수익'으로 이동

국내 게임 산업의 최대 수출 시장인 중국을 둘러싼 구조적 한계가 다시 부각되고 있다. 수출 비중은 여전히 1위를 유지하지만 사용자 밀도와 수익성, 정책 리스크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경우 실질 경쟁력은 제한적이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일부에서는 외형 중심 성장에서 벗어나 북미와 일본 등 '고밀도 시장' 중심으로 전략을 전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13일 한국콘텐츠진흥원이 발간한 '2025 대한민국 게임백서'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게임 수출 비중은 중국이 29.7%로 가장 높았다. 동남아 20.6%, 북미 19.5%, 일본 8.3%를 앞선 수치다. 전



/붉은사막

/붉은사막

년 대비 비중도 상승하며 중국 시장이 다시 확대되는 흐름을 보인다.

그러나 시장의 질적 구조를 들여다보면 얘기가 달라진다. 국가별 게임 집중도 지수 기준으로 중국은 1.4배에 머문다. 인구 대비 실제 시장 기여도가 낮다는 의미다. 반면 미국은 5배, 일본은 6.6배로 나타나 사용자 참여도와 소비 강도가 높은 '고밀도 시장'으로 평가된다. 단

순 수출 규모와 실제 수익 구조 간 괴리가 확인되는 대목이다.

◆"이용자 많아도 돈은 안 된다"...수익 구조 한계

중국 시장은 대규모 사용자 기반을 갖추고 있지만 개별 이용자의 결제 성향은 상대적으로 보수적이라는 평가가 많다. 특히 미성년자 이용 제한과 확률형 아이템 규제 등 정책 변화가 이어지며 소비

환경이 위축된 영향이 크다. 이용자 수 대비 고금 비중이 낮아 매출 변동성이 크고 안정적인 수익 구조를 만들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반복되는 정책 변수...리스크 상수화  
정치적 불확실성도 핵심 변수로 꼽힌다.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를 둘러싼 갈등 이후 이어진 한한령은 국내 게임사의 중국 진출을 장기간 제한했던 대표 사례다. 최근 외자 관호 발급이 일부 재개되며 중국의 규제 완화 기대가 나오지만, 업계에서는 이를 구조적 변화로 보지 않는다. 관호가 정책적 판단에 따라 좌우되는 만큼 시장 접근성 자체가 불안정하다는 인식이 여전히 강하다.

◆이미 움직인 대형사...서구권 성과 확대

이 같은 환경 변화 속에서 대형 게임사들은 전략 전환에 나선다. 중국 중심 구조에서 벗어나 북미·유럽 등 서구권 시장 비중을 빠르게 확대하는 흐름이다. 넥슨은 아크레이더스 신작들을 통해

북미·유럽 매출을 전년 대비 61% 늘리며 6507억원을 기록했다. 펠어비스는 북은사막을 앞세워 콘솔 중심 글로벌 시장 공략에 속도를 내고 있으며 넷마블은 왕자의게임 출시를 통해 서구권 사용자 기반 확대를 노린다.

업계에서는 향후 경쟁력이 '얼마나 많이 파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효율적으로 수익을 내느냐'로 이동한다고 본다. 이에 따라 사용자 밀도와 결제율이 높은 시장 중심으로 사업 구조를 재편하는 흐름이 뚜렷해진다. 콘솔과 PC 기반 글로벌 시장 대응력이 핵심 경쟁력으로 부상하는 배경이다.

업계 관계자는 "중국은 여전히 중요한 시장이지만 변수 관리가 필요한 시장"이라며 "북미와 일본처럼 이용자 밀도와 수익성이 높은 지역 중심으로 포트폴리오를 재편해야 안정적인 성장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최빛나 기자

vitna@metroseoul.co.kr



metro

## 위메이드맥스 '나이트 크로우' 3주년... 장기흥행 '주목'

자회사 매드엔진 제작 MMORPG 누적 매출 7500억, 이용자 1400만명 서비스 고도화·글로벌 확장 본격화

모바일 게임 시장에서 장기 서비스 역량이 핵심 경쟁력으로 부상하고 있다. 신작 중심으로 빠르게 재편되던 구조에서 벗어나, 안정적인 라이브 운영과 지속적인 매출 창출 능력이 기업 실적을 좌우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13일 게임업계에 따르면 위메이드맥스 개발 자회사 매드엔진이 만든 MMORPG '나이트 크로우' (사진)가 국내 서비스 3주년, 글로벌 서비스 2주년을 맞으며 장기 흥행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나이트 크로우'는 출시 이후 현재까지 누적 매출 약 7500억원, 누적 이용자 수 1400만명을 기록했다. 단기 흥행에 그치지 않고 안정적인 매출 흐름을 유지하며 장기 수익 모델을 구축한 점이 특징이다.

글로벌 시장에서도 성과가 이어지고



있다. 위믹스를 결합한 경제 시스템을 기반으로 이용자 참여를 유도하며 대만·태국·인도네시아 등 주요 시장에서 매출 상위권에 진입했다. 동시접속자 수는 최대 45만명을 기록하며 안정적인 이용자 기반을 확보했다.

최근에는 필리핀 가상자산 거래소 '코인스'에 위믹스가 상장된 이후 현지 이용자 지표도 개선되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 블록체인 기반 경제 시스템과 지역별 시장 전략이 맞물리며 글로벌 확장성이 강화되는 모습이다.

시장 환경 변화도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최근 게임 산업은 초기 흥행 중심에서 벗어나 라이브 서비스 기반의 장기 운영 능력을 중요하게 평가하는 방향으로 이동하고 있다. 지속적인 콘텐츠 업데이트와 이용자 피드백 반영이 서비스 성패를 가르는 핵심 요소로 자리 잡고 있다.

'나이트 크로우' 역시 서비스 기간 동안 콘텐츠 확장과 운영 안정성을 동시에 유지하며 이용자 이탈을 최소화해왔다. 이는 외부 시장 환경 변화에도 매출 변

동성을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하며 사업 안정성을 뒷받침하고 있다.

위메이드맥스는 3주년을 기점으로 서비스 고도화에 나선다. 기존 이용자 기반을 강화하는 동시에 지속적인 업데이트를 통해 게임 완성도를 끌어올릴 계획이다.

글로벌 확장 전략도 본격화한다. 위메이드와 함께 연내 중국 시장 진출을 목표로 현지 출시를 준비하고 있으며, 이를 글로벌 매출 확대의 핵심 성장 축으로 삼겠다는 구상이다. 업계에서는 중국 시장 진출이 현실화될 경우 기존 성과에 더해 실적 레버리지 효과가 확대될 가능성에 주목한다.

업계 관계자는 "최근 게임 시장은 단기 흥행보다 장기 서비스 역량과 글로벌 확장 가능성이 동시에 중요해지고 있다"며 "안정적인 라이브 운영 경험과 글로벌 진출 기반을 갖춘 게임이 향후 경쟁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빛나 기자



엔씨가 MMORPG '아이온2' 이용자를 직접 만나는 오프라인 간담회를 열고 소통 강화에 나섰다. 소인섭 사업실장, 김남준 개발 PD(왼쪽부터)가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엔씨

## 엔씨 아이온2 소통 행보에 이용자 600명 몰렸다

개발 PD·사업실장 질의응답 진행

엔씨가 MMORPG '아이온2' 이용자를 직접 만나는 오프라인 간담회를 열고 소통 강화에 나섰다.

엔씨는 지난 11일 서울 강남구에서 '아이온2' 이용자 간담회 '지금 만나러 갑니다'를 진행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행사에는 김남준 개발 PD와 소인섭 사업실장이 참석해 이용자들과 직접 만나 감사 인사를 전하고 질의응답을 진행했다.

행사는 당초 400명 규모로 준비됐지만 600명 이상이 현장을 찾으며 높은 관심을 보였다. 엔씨는 이용자 참여 열기에 맞춰 기존 3부로 계획했던 프로그램을 4부까지 확대 운영했다.

현장에서는 이용자들의 다양한 의견이 공유됐다. 게임 콘텐츠에 대한 질문과 개선 요청은 물론 신규 콘텐츠 아이디어 제안까지 이어지며 개발진과 이용자 간 직접적인 소통이 이뤄졌다. 회사는 현장에서 수렴한 의견을 향후 개발과정에 적극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엔씨는 이번 간담회를 시작으로 오프라인 접점을 확대한다. 강원과 제주 지역에서도 추가 간담회를 준비 중이며, 일정과 세부 내용은 공식 공지를 통해 안내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지역 이용자들과의 접점을 넓히고 커뮤니티 기반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최빛나 기자

## SKT, 장기고객 대상 '숲캉스 데이' 운영

에버랜드 포레스트 캠프로 초청

SK텔레콤이 10년 이상 장기고객을 대상으로 자연 체험형 이벤트 '숲캉스 데이'를 운영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고객과 가족·지인을 에버랜드 포레스트 캠프로 초청해 진행되는 피크닉형 프로그램으로, 일반에 공개되지 않는 자연 생태 공간을 활용한 차별화된 고객 경험이 핵심이다. 지난해 경쟁률이 212대 1에 달할 만큼 높은 관심을 보인다.

행사는 5월 3일부터 18일까지 총 6회에 걸쳐 진행되며, 약 1800명이 참여한다. SKT 10년 이상 가입 고객이라면 T

멤버십 앱을 통해 응모할 수 있고, 당첨 시 최대 5명까지 동반 참여가 가능하다.

프로그램은 숲 산책, 어린이 자연 체험, 고객 추억 기록 프로그램, 가족 레크리에이션 등 체험 중심으로 구성됐다. 참가자 전원에게 도시락과 음료가 제공되며, 텐트와 피크닉 용품도 현장에서 대여할 수 있다.

SKT는 이번 행사를 시작으로 미식, 놀이공원, 공연 등 장기고객 전용 이벤트를 확대할 계획이다. 기존 '스페셜 T'는 'T 장기고객 프로그램'으로 개편해 접근성을 높였고, 데이터 리필 쿠폰 등 실질 혜택도 유지·강화할 방침이다.

/김서현 기자 seoh@

## KT "집 어디서나 방송·VOD 이용하세요"

태블릿형 IPTV '지니 TV 탭 4' 선택

KT가 13일 태블릿형 IPTV 단말 '지니 TV 탭 4'를 출시한다.

지니 TV 탭 4는 집 안 어디서나 실시간 채널과 VOD를 이용할 수 있는 디바이스로, 기존 시리즈의 강점인 이동성과 함께 콘텐츠 접근성과 AI 기능을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전국 KT 매장과 공식 온라인몰 'KT 닷컴', 고객센터를 통해 구매 및 가입이 가능하다.

이번 제품은 홈 화면 위젯을 통해 별도 앱 실행 없이 클릭 한 번으로 인기 VOD를 바로 시청할 수 있도록 했다. 여기에 구글 제미나이 호출 기능을 탑재해 음성

으로 콘텐츠 검색은 물론 일상 정보 확인까지 가능한 AI 비서 경험을 제공한다.

하드웨어는 11인치 화면과 7040mAh 배터리를 유지하면서 25W 고속충전을 지원한다. 6GB RAM과 128GB 저장공간을 기본 제공하며, 외장 스토리지를 통해 최대 2TB까지 확장 가능하다.

출고가는 37만9500원이며 색상은 그레이 단일 모델이다. KT 와이파이를 통해 IPTV 서비스와 OTT, 키즈 콘텐츠 등 다양한 미디어를 이용할 수 있다.

기존 IPTV 이용자는 월 8800원을 추가하면 추가 TV 단말로 사용할 수 있으며, '삼성 초이스' 요금제 가입 시 단말 할부금 할인도 제공된다. /김서현 기자

# 종전 무산에 증시 '출렁'... 스태그플레이션 우려 다시 확산

코스피 0.86% ↓ 변동성지수 50.13  
에너지 수입 의존도 높아 타격 클듯  
경기침체·물가상승 가능성 재점화



ChatGPT로 생성한 '미국과 이란 간 종전 협상 결렬에 변동성이 확대된 한국 경제 분위기' 관련 이미지.

미국과 이란의 종전 협상 결렬에 따른 일시적 조정이나 장기 회복의 시작이나, 다시 확산한 중동 불안에 직면한 코스피를 보는 시각은 양쪽으로 엇갈린다. 전문가들은 향후 코스피의 움직임은 중동 협상 결렬 상황이 얼마나 길어질지에 달렸다고 본다. 양측이 협상 테이블에 다시 앉을 경우 빠른 회복이 가능하지만, 이란과 미국 양측이 완전히 호르무즈해협을 봉쇄하고 양측의 무력 충돌이 확대될 경우 큰 폭의 조정이 있을 수 있다고 내다봤다.

### ◆중동 리스크 다시 부상

13일 코스피는 0.86% 하락한 5808.62에 마감했다. 한국판 공포지수로 불리는 코스피200 변동성 지수(VKOSPI)는 50.13을 기록했다. 시장 출렁임이 심하고 전망이 어두울 때 지수가 오르는데, 50 이상이면 '극단적 공포' 구간으로 해석된다.

환율도 치솟았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장보다 6.8원 뚝 달러당 1489.3원에 주간 거래를 마쳤다.

시장에 빨간불이 켜진 것은 중동 지역의 리스크가 확산한 탓이다. 이란과의 종전 협상에서 미국 대표단을 이끈 JD 밴스 미국 부통령은 파키스탄 현지 시간으로 12일 오전 6시 30분께 이슬라마바드 세레나 호텔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란과 합의에 도달하지 못했고 합의 없이 미국으로 귀환한다"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란과의 1차 종전 협상이 결렬된 뒤 호르무즈 해협을 오가는 선박을 미 해군력을 동원해 봉쇄하는 절차에 들어갈

것임을 선언하면서 휴전 합의도 닦새만에 풍전등화의 위기에 처하게 됐다.

미국과 이란의 협상 결렬로 인해 국제 유가는 치솟고, 스태그플레이션(경기 침체, 물가 상승) 공포가 재점화한 모양새다.

인베스팅닷컴에 따르면 한국시간 13일 오후 2시 30분 기준 5월 인도분 서부텍사스산원유(WTI) 선물 가격은 전장 대비 7.35% 오른 배럴당 102.20달러를 기록했고, 브렌트유 6월물은 8.48% 오른 배럴당 104.76달러를 나타

내고 있다. WTI와 브렌트유는 지난주 2주 휴전 합의 소식에 95달러 밑으로 진정됐지만, 다시 100달러 선을 돌파한 모습이다. 김기봉 국제금융센터 책임연구원은 "호르무즈 해협의 원유 수송량이 7월까지 전쟁 이전 수준으로 점진 회복될 전망이다. 그동안 공급부족이 이어지면서 유가가 20달러가량 추가 상승할 여지도 열려 있다"고 내다봤다.

시장에서는 미국과 이란의 호르무즈해협 폐쇄로 중동산 에너지 의존도가 높고 국내 에너지 생산이 제한적인 한국과 일본이 큰 타격을 받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프랑스게 투자은행(IB) 나틱시스(Natixis)는 한국의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1.8%에서 1.0%로 대폭 하향 조정했다. 이는 지난 2월 한국은행이 경제전망 때 제시한 2.0%의 반토막 수준이다. 국내외 기관 중 한국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1%대 초반까지 낮춰 잡은 곳은 나틱시스가 처음이다. 영국의 리서치 회사인 캐피털 이코노믹스도 최근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0%에서 1.6%로 0.4%포인트 하향했다. 나틱시스는 "(한국을 포함한) 신흥 아시아 국가들이 중앙은행이 도울 수 없는 스태그플레이션(경기 침체, 물가 상승)에

직면할 위험이 크다"며 "한국은 경상수지 흑자에도 수입 에너지에 대한 높은 의존 때문에 국내총생산(GDP)에 상당한 충격을 받게 될 것"이라고 짚었다.

### ◆불확실성 대비해야

이날 미국과 이란 양측의 협상 결렬로 중동전쟁을 둘러싼 불확실성은 더 심해졌다. 시장 전망도 엇갈린다.

한지영 키움증권 연구원은 "당분간 시장은 인플레이션 이벤트 전후로 변동성에 노출될 것이며, 그 변동성의 진폭을 제어할 수 있는 것은 미-이란 협상 결과에 달려 있을 전망이다"이라면서도 "이번 1차 협상 결렬 소식으로 주식시장은 관련 불안심리가 우위에 있겠지만, 매도 대응을 선 순위로 가져가는 것은 지양할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오는 22일 예정된 휴전 기간 동안 협상 진전 가능성이 열려 있다는 예상이다.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미국과 이란 협상은 이란의 핵 포기 확약과 해협 즉각 개방 거부로 노딜 종료했다"며 "밴스 미 부통령은 최종 제안을 던지고 귀국했으며 2주 휴전 기간 내 합의를 위한 휴전 연장 여부가 향후 관건"이라고 짚었다.

/신하은 기자

godhe@metroseoul.co.kr



metro

# 해커 표적 된 금융권... 금감원 '총력 대응'

지난달 위협정보 건수 약 2.5배 증가  
디지털 리스크 분석·감독팀 확대 개편

중동 전쟁 이후 글로벌 소프트웨어를 노린 사이버 공격 등이 늘어나면서 금융당국이 전파한 위협정보 건수가 한 달 새 배 넘게 증가했다.

1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이 금융보안통합관제시스템 '퍼스트(FIRST)'를 통해 전 금융사에 전파한 보안 위협 건수는 지난 3월 한 달간 전월 대비 2.5배 늘어났다.

금융당국은 보안상 이유로 구체적인 건수는 공개하지 않았다.

금감원은 올해 초 디지털 보안 사고 대응 강화를 위해 관련 조직을 디지털 리스크 분석팀과 감독팀으로 확대 개편했다.

전쟁발발 직전인 2월 말 FIRST를 본격 가동해 소프트웨어 취약점, 사이버 공격 동향, 전자금융 부정 결제 등 주요 위험 요인을 전 금융사에 실시간 전파하고 있다.

위협정보 전파 증가는 이란 등 국가 배후의 해킹 세력이 미국과 이스라엘 등을 공격하는 과정에서 글로벌 소프트웨어의 취약점이 노출된 영향이 일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마이크로소프트(MS), 오라클 등 공통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국내 금융권도 사실상 영향권에 들어갔다는 것이 금감원의 설명이다. 최근 텔레그램 등을 통해 국내 금융사 대상 해킹 첩보 신고도 증가하는 추세다.

실제로 지난달 중순 국내 한 카드사를 겨냥한 디도스(DDoS·분산서비스거

부) 공격이 포착돼, 금감원은 FIRST로 500여개 금융사에 실시간 알람을 전파해 선제 대응했다.

임종인 고려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이란은 사이버 공격 능력이 강한 국가"라며 "글로벌 SW 취약점 노출 시 우리 금융권도 간접적으로 영향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국내 사이버 위협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따르면 민간 분야(금융·유통 등) 침해사고 신고는 2023년 1277건, 2024년 1887건, 2025년 2383건으로 2년 만에 86.6% 늘어났다.

임 교수는 "최근에는 인공지능(AI)을 이용해 악성코드 생성이 자동화되면서 공격이 더욱 정교해진 상태"라고 설명했다.



ChatGPT로 생성한 사이버 공격 관련 이미지.

금감원은 최근 시장 영향도와 사고 빈도 등을 종합해 디지털 리스크 고위험사를 선정하고, 보안 분석 주기도 단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고위험사로 분류될 경우 경영진 면담, 현장점검 등 사전 예방 체계를 가동하고 엄중 제재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중동 사태와 FIRST 도입이 맞물리면서 적시 전파가 이뤄지고 있다"며 "향후 디지털 리스크가 금융 시스템 사고로 이어지지 않도록 사례 공유와 상시 감시를 통해 사전 예방 체계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허정윤 기자 zelkova@

# 지난달 외국인 채권 보유잔고 '최대폭 감소'

중동발 리스크 영향

3월 중동 지정학적 리스크 영향으로 외국인의 채권 보유잔고가 월단위 기준 역대 최대폭으로 감소했다.

13일 한국금융투자협회가 발표한 '2026년 3월 장외채권시장 동향'에서 따르면 지난달 말 외국인 국내 채권보유 잔고는 340조4000억원으로 나타났다. 전월말(350조6000억원)대비 10조2000억원 감소했다.

협회는 "월 단위 보유잔고 감소 규모

는 기존 최대인 6조5000억원(2023년1월)을 상회하는 사상 최대폭"이라고 분석했다.

외국인 투자자는 국채 9조6000억원, 통안증권 2000억원을 순매수한 반면, 기타채권 2조4000억원을 순매도하며 총 7조4000억원을 순매수했다. 3월 순매수 규모는 전월 대비 4조7000억원 감소한 수준이다.

전쟁 양상이 격화된 월 중반부터 달러 조달비용을 반영하는 통화스왑(CRS) 금리가 빠르게 상승하며 외국인의

재정거래 유인이 크게 축소됐고, 은행채를 중심으로 외국인 매도세가 확대되면서 3월 외국인의 채권 순매수는 전월 대비 큰 폭으로 감소했다는 설명이다.

협회는 지난달 국내 국고채 금리에 대해 "외환, 금융시장의 변동성 확대 속에서 전월 대비 큰 폭으로 상승하며 약세로 마감했다"며 "호르무즈 해협 봉쇄 장기화 우려에 따른 국제유가 급등이 물가 상승 압력을 자극하며 기준금리 인상 기대를 강화했다"고 짚었다.

지난달 31일 외국인 매수금액은 4조5000억원으로 최근 1년 월말 일평균매수금액(1조5000억원)대비 3배 수준에 달한다.

/허정윤 기자

# 자본시장연구원 부원장에 이인형 선임

자산 가격 결정 등 활발한 연구 수행

자본시장연구원 이사회는 이인형 선임연구위원(사진)을 신임 부원장으로 선임했다고 13일 밝혔다. 임기는 이날부터 바로 시작된다.

이인형 부원장은 서울대학교 국제경제학과를 졸업한 뒤, 미국 브라운 대학교에서 경제학 박사학위 취득했다. 이후 LG경제연구원과 수원대학교를 거쳐 자본시장연구원에 재직하며 동향분석실장, 연구조정실장, 자본시장실장

을 지냈다.

더불어 이 신임 부원장은 자산 가격 결정, 지속가능성 가치 평가 및 공시 분야에서 활발한 연구를 수행해 왔다. 앞서 금융위원회 금융발전심의회 위원,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 기재부 기금부담금운용평가단장, 보건복지부 국민연금기금 수탁자책임전문위원 등을 역임했다.

/신하은 기자



# 박수근 “노란봉투법, 임금인상·직접고용 의무 확대 아냐”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박 위원장, 취임 후 첫 기자회견  
경영계 무분별한 교섭 우려 선 그어  
“무조건 노동계 편들지는 않을 것”

박수근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이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이후 경영계가 우려하는 무분별한 교섭 의무 확대에 대해 선을 그었다. 원청의 사용자성이 인정되더라도 그것이 곧 임금인상이나 직접 고용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박 위원장은 1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취임 후 첫 기자회견 자리에서 “사용자성이 판단됐다고 해서 임금을 인상해주거나 직접고용을 해야 한다는 것이 아니다”며 “노동위원회가 무조건 노동계 편을 들지는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개정법은 근로계약 당사자가 아니라도 근로조건을 실질적·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하는 지위에 있다면 사용자로 간



박수근 중앙노동위원장이 지난 3월 4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개정 노동조합법 현장안착을 위한 고용노동부-노동위원회 공동워크숍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스1

주한다. 이에 따라 법 개정 이후 지난 10일 기준 1012개 하청 노조(14만7000여명)가 372개 원청 기업에 교섭을 요구했으며, 노동위는 사용자성 판단을 구하는 사건 294건이 접수된 상태다. 교섭요구를 받고도 공고하지 않은 데 대한 시정 신청이 171건, 교섭단위 분리 신청이

117건이다. 노동위는 현재까지 처리된 사건 중 19건에 대해 사용자성을 인정했다. 주로 제조업 사내하청, 건설업, 용역계약을 맺은 환경미화·보안 업체 등에서 ‘산업안전’ 관련 의제를 중심으로 사용자성이 인정되는 추세다.

박 위원장은 원청 기업들의 교섭 기피 현상에 대해 “임금인상이나 직접고용 문제까지 엮여들어갈까 봐 하는 생각 때문이라고 본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개정법은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력이 인정된다고 해서 권리를 인정하라는 것이 아니라, 대화하고 교섭하라는 것”이라고 법의 취지를 설명했다.

특히 교섭 범위와 관련해 “노조가 여러 의제를 제기하더라도 노동위가 일부만 사용자성과 관련 있다고 판단하면 그 범위 내에서 교섭이 이뤄져야지, 나머지까지 자동 인정되는 건 아니다”며 “이를 넘어서 요구까지 포함해서 쟁의행위를 한다면 정당성 판단에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임금 문제에 대해서도 “노동부 지침과 기존 법리에 비춰볼 때 원청이 하청 노동자의 임금을 직접 인상해야 할 의무를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명시했다. 다만 교섭 과정에서 하청 대가 인상 등을 통한 간접적인 개선 가능성만 열었다.

박 위원장은 교섭 요구를 공고하라는 하청 노조의 시정 신청이 다음 주 이후 급증할 것으로 내다봤다. 하청 노조 교섭요구는 많은 반면 교섭 사실을 공고한 원청이 크게 못 미치는 만큼 교섭 미공고 시정 신청이 늘 것이라 설명했다.

박 위원장은 최근 쟁점이 된 HMM 본사 이전 문제에 대해서는 “서울에서 부산으로의 이전 결정 자체는 경영상의 결정이 될 가능성이 높다”면서도 “이로 인해 근로자들이 부산으로 근로지를 옮긴다고 하면 근로조건 변화로 볼 수 있어, 쟁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본다”는 견해를 밝혔다.

시행 한 달을 맞은 개정법 운영에 대해 박 위원장은 “정부 지침을 바탕으로 개별 사건에 따라 판단하고 있다”며 “현재까지는 비교적 순탄하게 제대로 운영되고 있다고 본다. 경영계 우려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고 평가했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metroseoul.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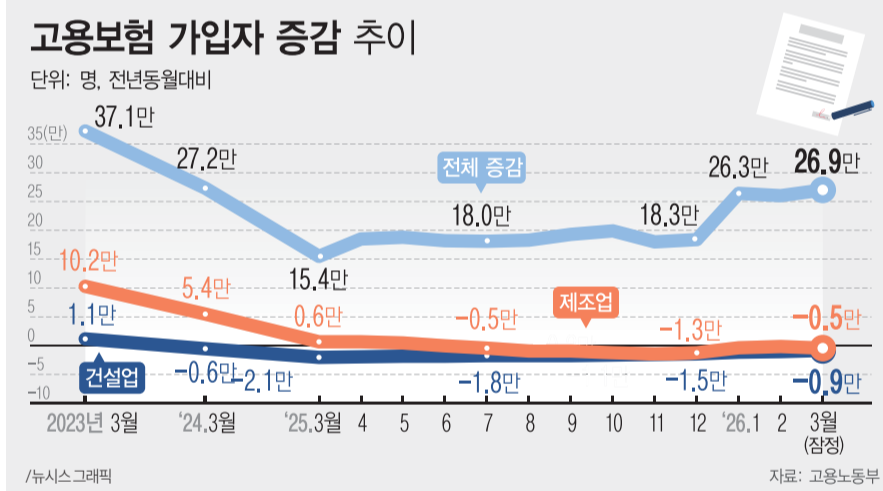
## 고용보험 가입자, 3개월 연속 20만명대 증가

고용노동부 3월 노동시장 동향  
서비스업·고령층 중심 외연 확장  
제조업·건설업 침체 장기화 국면

지난달 고용보험 가입자 수가 26만 명 넘게 늘어나며 3개월 연속 20만 명대 증가세를 유지했다. 서비스업과 고령층을 중심으로 고용 시장의 외연은 확장되고 있으나, 우리 경제의 중추인 제조업과 건설업의 침체는 갈수록 깊어지는 모양새다.

고용노동부가 13일 발표한 ‘2026년 3월 고용행정 통계로 본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고용보험 상시가입자 수는 1570만 4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26만 9000명(1.7%) 증가했다. 지난해 내내 10만 명대에 머물던 증가 폭이 올해 들어 3개월째 20만 명 중후반대를 기록하며 지표상으로는 회복 국면에 진입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 증가세의 일등 공신은 서비스업이다. 보건복지업(12만 명), 숙박·음식점업(5만 1000명) 등을 중심으로 총 28만 명의 가입자가 늘어나며 전체 상승을 주도했다. 연령대별로는 60세 이상 가입자가 20만 8000명 급증하며 고령층 중심의 일자리 확대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반면 청년층의 고용 한파는 여전한데다, 29세 이하 가입자는 6만 5000명 감소하며 2022년 9월 이후 43개월 연속 하락세를 이어갔다. 40대 역시 9000명 줄어듦에 고용 동력이 약화된 모습을 보였다. 산업별로는 명암이 극명하게 엇갈렸다. 제조업 가입자는 전년 대비 5000명 줄며 10개월째 감소세를 기록했다. 특히 내국인 가입자 감소는 30개월째 지속되고 있어 현장의 인력난과 고용 위축을 동시에 드러냈다. 반도체 등 전자부품 제조는 수출 호조로 반등했으나, 자동차

제조업이 감소로 돌아서며 전체 지표를 끌어내렸다. 건설 경기 침체도 장기화되고 있다. 건설업 가입자는 32개월 연속 감소를 기록했다. 다만 감소 규모(9000명)는 전월 대비 소폭 축소되며 최악의 상황은 지났다는 분석도 조심스럽게 나온다. 기업의 구인 의지를 나타내는 신규구인 인원은 17만 1000명으로 전년 대비 11.2% 증가했다. 이에 따라 구인배수도 0.36을 기록하며 전년(0.32)보다 소폭 개선된 수치를 보였다. /세종=한용수 기자

## 기후부, ‘재생원료 종량제봉투’ 제작 지원

생산설비 교체 등 138억 투입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재생원료를 활용한 종량제봉투의 제작 지원에 나선다. 중동전선 여파로 종량제봉투 원료인 폴리에틸렌의 공급이 원활하지 않은 상황에 대한 대응이다.

기후부는 재생원료 생산 및 종량제봉투 제작 업체를 비롯한 관련 기관과 재생원료 사용 종량제봉투 제작 확대를 위

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13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농수산재활용사업공제조합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한국프라스틱공업협회, 한국농수산재활용사업공제조합, 한국환경공단, 인테크, 동성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고품질 재생원료를 사용한 종량제봉투의 생산과 보급을 확대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유관 생산 정

보·기술 등을 공유하며 종량제봉투 산업생태계 전반의 상생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기후부는 최근 추가경정예산에 담긴 종량제봉투 생산설비 교체 비용 지원사업을 통해 138억 원을 투입할 방침이다. 김성환 기후부장관은 “국내 폐자원으로 만든 재생원료는 우리 자원 공급망의 든든한 기초”라며 “업계와 협력해 종량제봉투부터 재생원료 사용을 늘리겠다. 이를 통해 중동전선 같은 외부 충격에도 흔들리지 않는 순환경제의 모범사례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세종=김연세 기자

## 농어촌공사, AI 기반 배수장 효율 개선

극한호우 등 재난대응 역량 강화

한국농어촌공사가 극한호우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목적으로, 배수장 운영에 인공지능을 활용하는 ‘배수장 운영 의사결정 지원 프로그램’을 도입한다고 13일 밝혔다.

‘배수장 운영 의사결정 지원 프로그램’은 인공지능 기반의 지능형 재난 대응 체계다. 인공지능이 기상 상황과 하천 수위 변화를 실시간으로 분석해 현장 담당자에게 적정 가동 시점을 제시하면, 담당자는 이를 토대로 수문 개폐와 펌프 가동 여부를 효과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농경지 침수와 인명피해를 차단하는 것은 물론, 배수장을 효율적으로 가동해 설비 과부하를 예방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펌프 고장 위험이 줄어

들어 연이은 집중호우 상황에서도 안정적으로 재난에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공사는 올해 59개 배수장에 시스템을 우선 구축할 계획이다. 국비 20억 원을 투입해 전남(보성, 장흥 등 37개소)과 경북(예천, 경산 등 22개소) 지역에 우선 도입하고, 향후 시스템의 전국 확대와 인공지능 모델 고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김인중 농어촌공사 사장은 “빠르게 변화하는 기후위기 상황에 시설물 관리자의 직관과 경험을 뒷받침해 줄 데이터 기반의 정밀한 재난 대응이 필수적”이라며 “향후 권역 단위 재해시설 간 상호 연계 운영으로 지능형 재난 관리 체계를 확고히 다져, 농업인이 안전하게 영농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

## 국민연금공단, 퇴직자 재취업 돕는다

한국폴리텍대학 업무협약 체결

한국폴리텍대학과 국민연금공단이 중장년 퇴직(예정)자들의 성공적인 인생 2막을 위해 힘을 모은다. 양 기관의 전문성을 결합한 실효성 높은 재취업 지원 체계가 구축될 전망이다.

폴리텍대학은 13일 전주시 소재 국민연금공단 본부에서 국민연금공단과 퇴직(예정)자의 재취업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양 기관은 협약을 통해 국민연금공단의 ‘노후 준비 설계’ 역량과 한국폴리텍대학의 ‘중장년 특화 기술교육’ 노하우를 결합해, 단순 교육을 넘어 실질적인 취업으로 이어지는 맞춤형 과정을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주요 협력 내용은 ▲ 재취업 교육과정 공동 개발 및 운영 ▲ 재취업 설명회 공동 개최 ▲ 임직원 대상

기술체험 프로그램 운영 등이다.

폴리텍대학은 앞서 공무원연금공단과의 협약을 통해 운영한 퇴직공무원 재취업 기술교육에서 평균 5.9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며 큰 호응을 얻은 바 있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바탕으로 올해 하반기부터 국민연금 수급자 및 퇴직 예정자를 위한 맞춤형 교육과정을 공동으로 운영하며 본격적인 지원 사격에 나선다.

이철수 폴리텍대학 이사장은 “이번 협력은 막대한 불안감을 안고 있는 중장년층에게 ‘평생 기술’이라는 확실한 무기를 쥐어주는 것”이라며, “대학이 축적해 온 기술교육 노하우를 적극 활용해 대한민국의 중장년이堂堂하게 인생 2막을 열 수 있도록 직업교육을 지속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세종=한용수 기자



홈페이지: <http://여수축제.com>



# 제60회 여수 거북선축제

우리는 오늘, 이순신이다!

2026. **5.1. (금)** ~ **5.3. (일)** 3일간  
이순신광장 및 중앙동 일원

**통제영길놀이** 5.1.(금) 19:00  
서교동 로터리 - 교동사거리 - 중앙동로터리

**개막식 & 주제공연** 5.1.(금) 20:20  
이순신광장 주무대

**주요 행사** 5.1.(금)~5.3.(일) 10:00~21:00

- 제례행사 ● 상설 체험, 전시, 먹거리 ● 주무대 공연, K-컬처 페스티벌
- 거북선 콘텐츠 경연대회 ● 축제이벤트 ● 전통문화 행사 ● 부대행사



주최 | 여수시

주관 | 제60회 여수거북선축제추진위원회 여수진남거북선축제보존회

# 경북도, 재난 대응체계 본격 가동... 예방 중심 안전관리 강화

‘안전재난예방추진단’ 구성  
현장 밀착형 예방활동 추진  
“도민 안전확보 모든역량 집중”

경북도는 안전사고와 재난 예방을 위한 ‘안전재난예방추진단’을 구성하고 총력 대응 체계를 본격 가동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봄철 기온 상승에 따른 해빙기 사고 위험 증가와 재난·안전사고 우려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해 초대형 산불 피해 1주기를 맞아 유사 사고를 차단하고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겠다는 취지를 담았다.

도는 안전행정실장을 단장으로 하는 추진단을 중심으로 도내 각종 시설물에 대한 안전재난 예방 점검에 나설 계획이다.

추진단은 부서 간 진행 상황을 공유하고 협업 체계를 강화해 안전 점검의 효율성을 높이며 도민 안전 확보에 나선다. 특히 급경사지와 하천, 노후 저수지, 주요 기반시설 등 취약시설을 집중 점검하고 결과를 공유해 도 전체 안



경북도청 전경.

전점검 현황을 일원화된 체계로 관리할 방침이다.

아울러 경북도는 ▲도민 생명 보호 ▲시설물 점검 ▲하계 재난사고 대비 등 3대 분야 20개 업무를 선정해 현장 밀착형 예방 활동을 추진한다.

도민 생명 보호 분야에서는 경북형 주민대피시스템을 개선해 스마트 알림, AI 자동전화, 주민 안심콜, 순찰 앱 등을 도입할 예정이며 올해 시군당 1-2개 마을을 대상으로 고도화 사업을 추진한다.

사업장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도내 사업장을 대상으로 안전감찰과 안전보건지킴이 사업도 실시한다. 또 국비 14

억원을 투입해 중대재해 예방 사각지대 해소사업을 추진하며 잠재 위험요인 발굴과 제거에 나선다.

시설물 점검 분야에서는 봄철 지역 축제장과 다중이용시설, 여객자동차터미널 등에 대한 현장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노인요양시설과 장애인주거시설 등 취약계층 이용시설에 대한 점검도 병행한다.

해빙기 취약시설 점검 과정에서 발견된 위험 요인에 대해서는 신속한 보수·보강을 실시하고 하천과 노후 저수지 등 취약시설에 대한 집중 점검도 이어갈 예정이다.

하게 재난사고 대비 분야에서는 집중호우와 폭염 등에 대비한 인프라 점검을 선제적으로 추진한다.

도는 재난 예·경보 시스템 정상 작동 여부를 사전 점검하고 오작동 방지 조치를 완료하는 한편 저지대 침수 취약지역, 하천 범람 우려 구간, 산사태 위험지역 등을 점검해 풍수해 피해 최소화에 나선다.

특히 산발 피해지역의 2차 피해 예방을 위해 생활권 피해 우려지역 64개소에 대한 긴급조치를 완료했으며, 토사유출 우려지 238개소에는 81억원을 투입해 응급 복구를 마무리했다. 이와 함께 총 500억원 규모의 산사태 예방사업을 추진해 산지사방, 계류보전, 사방댐 설치 등을 진행하고 있다.

황명석 경북도지사 권한대행 행정부지사는 “안전은 사후 수습이 아닌 사전 예방에서 완성된다”며 “선거철 행정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도민 안전 확보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경북=김준한 기자

kih9@metroseoul.co.kr



metro

## 지역 이모저모

### 부산시

#### ‘부산형 통합돌봄’ 고도화

부산시는 시민이 살던 곳에서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하는 부산형 통합돌봄 다자간 업무협약(MOU)을 13일 시청 국제회의실에서 체결했다고 밝혔다.

부산형 통합돌봄은 전국 공통적으로 시행하는 통합돌봄 서비스 외에도 병원안심동행, 가사 지원, 주거환경 개선 등 8가지 서비스를 추가로 개발해 더 촘촘한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한 부산만의 특화 서비스다.

이날 협약에 따라 부산시는 사업 총괄기획을, 부산자활센터는 주거환경개선 사업을 맡게 된다. 더불어 대한물리치료사협회 부산지부 및 대한작업치료사협회 부산울산경남회는 방문운동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부산=이도식 기자

### 사천시

#### 경상대 사천캠퍼스 설립 승인

경남 사천시는 경상국립대학교 사천캠퍼스 설립이 교육부 최종 승인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경상대는 용현면 통양리 소재 사천GN U사이언스파크 일원에 사천캠퍼스를 조성하고, 2026학년도부터 우주항공 분야 대학원 학과를 이전·운영할 계획이다.

사천캠퍼스에는 글로벌대학사업을 통해 이미 설치·운영 중인 일반대학원 우주항공 기술경영학과(계약학과)를 비롯해 항공우주 특성화대학원 2개 학과(항공우주공학과, 우주항공정책학과)가 이전한다.

/사천(경남)=이도식 기자

### 진주시

#### 승산마을 ‘세계 관광마을’ 후보

LG·GS·삼성·효성 등 글로벌 기업 창업주들을 배출해 부자마을로 알려진 경남 진주시 지수면 승산마을이 유엔관광청이 주관하는 세계 최우수 관광마을 후보지에 올랐다.

진주시는 지수면 승산마을이 유엔관광청(UN Tourism)이 주관하는 ‘제6회 세계 최우수 관광마을(Best Tourism Villages)’ 공모에서 대한민국 후보지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에서는 전국 6개 마을이 후보지로 선정됐으며 경남에서는 유일하게 승산마을이 포함됐다.

/진주(경남)=이도식 기자

### 포항시

#### 고향사랑기부제 기금사업 공모

포항시는 기부자의 뜻을 지역 발전으로 연결하기 위해 ‘2026년 포항시 고향사랑기부제 기금사업 아이디어’를 공개 모집한다.

이번 공모는 기부금 활용의 실효성을 높이고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하기 위해 추진됐다.

모집 분야는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 및 청소년 육성 ▲주민의 문화·예술·보건 증진 ▲지역공동체 활성화와 지원 등 관련 법에서 정한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 전반이다.

/포항=김진곤 기자

## 경남도, 제조AI 대전환 육성방안 추진

5대 하드웨어·4대 제조서비스 기반  
20개 사업 우선 발굴... 8141억 투입

경남도(도지사 박완수·사진)가 경남테크노파크와 손잡고 조선·미래차·우주항공·방산 등 주력 산업의 비약적 도약을 위한 제조AI 대전환 육성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경남도는 5대 핵심 하드웨어와 4대 제조서비스를 두 축으로 삼아 산업 생태계를 조성한다.

5대 핵심 하드웨어는 휴머노이드 로봇, 고성능 센서, 극한 환경용 소재, 냉각 공조 시스템, 초정밀 반도체다. 휴머노이드 로봇으로 제조 현장의 인력난을 해소하고 액추에이터·감속기 등 국산화 기술 개발을 추진한다. 고성능 센서와 극한 환경용 소재 분야에서는 450억원 규모의 극한 환경 피지컬 AI용 반도체 센서 IC 시스템 개발 및 실증 사업을 벌인다. 초정밀 반도체는 중소·중견기업이 공동 활용할 수



있는 전력 반도체 테스트베드를 운영해 항공우주·방산·정밀기계 등 고부가가치 산업과의 연계를 꾀한다.

4대 제조 서비스는 에너지·통신, MRO, 데이터, 인력으로 구성된다. 에너지 분야에서는 SMR 혁신 제조 국산화 기술 개발에 2695억원을 투입해 글로벌 시장 선점에 나선다. 인력 양성은 2026년부터 2031년까지 AI 융합·고급인재 6000명을 키워 취업·창업·정주로 이어지는 순환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경남도는 20개 사업을 우선 발굴해 2026년부터 2033년까지 총 8141억원을 투입한다. 이를 통해 전방·후방·연관(MRO) 산업이 상생하는 선순환 생태계를 완성하고, AI 스타트업과 반도체·소부장 기업 유치를 확대해 첨단 산업 투자 허브로의 도약도 노린다.

/경남=손병호 기자 metrobusan5@

## 경주시, 농촌지역 하수도 정비사업 순항

경주시는 농촌지역 공공하수도 확충과 수질 개선을 위해 ‘현곡 소현처리분구 하수관로 정비사업’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해당 사업은 현곡면 8개 리를 대상으로 생활하수 처리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2021년부터 2027년까지 총사업비 385억 원이 투입된다.

주요 내용은 하수관로 52km 정비와 중계펌프장 22개소 설치, 배수설비 1293가구 개선 등이다. 시는 이를 통해 농촌지역 하수 처리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경주시는 2023년 총괄공사를 발주해 1차분 공사를 시작했으며, 2024년에는 2차분 공사와 건설사업관리 용역을 병행 추진했다. 이후 3차분 공사에 착수해 현재 공정을 이어가고 있으며, 2027년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올해는 4차분 공사에 돌입해 단계적으로 마무리 작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사업이 완료되면 생활하수의 체계적 처리를 통해 하천 수질 개선은 물론, 주민 생활환경과 위생 수준 향상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경주(경북)=김진곤 기자 jingon@

## 전남도, 민생안정 사업비 2856억 확보

고유가 피해지원금 2431억 등 집행

전남도는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고유가 대응 등 민생안정 사업비 2856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주요 반영 사업은 고유가 피해지원금 2431억원을 비롯해 어업인 면세경유 유가연동보조금 153억원, 연안화물선 유류비 보조 67억원, 지역산업 위기대응 35억원, 무기질비료 가격보조 및 수급안정 지원 22억원, 시설농가 면세유 유가연동보조금 19억원, 농기계 3종 면세경유 유가연동보조금 79억원 등이다.

당초 정부안에는 시설농가 유류비 지원 등 546억원만 반영됐지만 전남도는 본격적인 영농철을 앞두고 경운기 등 농기계까지 유류비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점을 국회 심의 과정에서 적

극 설명하여, 농기계 유류비 지원 확대와 농어민 유가 부담 완화를 위한 예산 2000억원이 추가 반영됐다. 다만 전남 광주 행정통합 준비 비용 등 시급한 지역 현안사업 반영을 지속 건의했지만 이번 추경은 중동 전장으로 인한 직접적 피해 지원에 한정함에 따라 지역 맞춤형 사업은 전반적으로 반영되지 않았다고 전남도는 설명했다.

전남도는 광주시와 협력, 행정안전부에 특별교부세 지원을 건의하는 한편 부족분은 예비비 등의 재원 확보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다.

전남도는 이번 추경 예산을 바탕으로 고유가로 어려움을 겪는 농어업인과 지역 산업 현장에 대한 지원을 신속히 집행, 민생안정과 지역경제 회복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전남=양수병 기자 ysn6313@

## 부산시, ‘일자리 종합계획’ 수립... 2조 투입

올해 20만800개 일자리 창출 목표

부산시가 2조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해 일자리 20만개 창출에 나서며 고용률 1위 도시 도약을 추진한다.

부산시는 ‘일자리정책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올해부터 본격 추진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종합계획은 구인·구직 간 불균형(미스매치)을 해소하고 첨단산업 중심의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해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고용 환경을 조성하는 데 목적이 있다.

시는 올해 총 2조1187억원을 투입해 20만800개의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하고 고용 지표 개선 흐름을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지난해 부산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15~64세) 고용률은 68.1%로 5년새 5.2%p 상승했다. 7대 특·광역시 가운데 1위인 서울(70%)을 근접 추격하는 수준이다.

시는 올해 OECD 기준 고용률 70% 달성과 상용근로자 100만명 안착을 목표로 삼고 7대 특·광역시 고용률 1위 도시로 도약한다는 방침이다.

종합계획은 ‘시민행복 미래 일자리 중심도시 부산’을 비전으로 ▲고용 미스매치 해소 ▲전략산업 중심 양질의 일자리 창출 ▲혁신성장 산업 생태계 확산 ▲대상별 맞춤형 일자리 확대 등 4대 전략, 16개 실천 과제로 구성됐다.

/부산=이도식 기자

# “마트에서 실속 찾는 20대, 편하게 온라인 주문하는 50대”

## 온라인 식료품 지형도 급변

50대 구매빈도 전년비 1.03회 ↑  
배송 편의성·시간 절약 ‘장점’

20대, 오프라인 구매 9%p 늘어  
필요한 만큼 구매·신선도 확인

온라인 식료품 시장의 인구통계학적 지형도가 급변하고 있다. 당연하게 여겨졌던 ‘젊은 층은 온라인, 중장년층은 오프라인’이라는 공식이 깨지고 있는 것이다. 오히려 50대 시니어층이 온라인 식료품의 핵심 소비층으로 부상하는 반면, 20대는 오프라인 매장을 찾는 비중이 늘어나는 현상이 포착됐다.

오픈서베이가 발표한 ‘온라인 식료품 구매 트렌드 리포트 2026’에 따르면, 올해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50대의 약진이다. 50대 소비자의 주당 평균 온라인 식료품 구매 빈도는 전년 대비 1.03회 증가하며 전 연령대 중 가장 높은 상승 폭



대형마트에서 식재료를 구매하는 젊은 세대와 스마트폰으로 온라인 주문하는 시니어층의 모습. /첫GPT로 생성한 이미지

을 기록했다. 이들은 주로 무거운 생수나 쌀, 보관이 용이한 냉동식품 등을 중심으로 온라인 구매를 확대하고 있으며, ‘배송 편의성’과 ‘시간 절약’을 주요 이유로 꼽았다.

20대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반대의 기

류가 흐르고 있다. 20대의 오프라인 중심 구매 비중은 전년 대비 9%p 이상 크게 늘어났다. 1인 가구 비중이 높은 20대의 경우 온라인의 대용량 묶음 판매보다는 근처 편의점이나 대형마트에서 필요한 만큼만 낱개로 구매하는 ‘실속형 소

비’를 선호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또한 신선식품의 상태를 직접 확인하고자 하는 욕구도 오프라인 회귀의 원인 중 하나로 나타났다.

30대와 40대는 여전히 온라인 식료품 시장의 든든한 버팀목이다. 30대는 냉동식품과 밀키트 등 간편식 구매에서 압도적인 이용률을 보였으며, 40대는 가성비 중심의 가공식품 구매에 집중하는 경향을 보였다. 특히 30대 여성층은 육아와 사회생활을 병행하며 ‘ 새벽 배송’ 서비스에 대해 전 세대 중 가장 높은 만족도를 나타냈다.

이러한 세대별 이용 행태 변화 속에서 플랫폼 점유율에도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 그동안 온라인 쇼핑 시장을 장악해온 쿠팡의 주구매 이용률은 전 세대에서 10%p 내외로 하락하며 성장세가 한풀 꺾인 모습을 보였다.

네이버쇼핑은 강력한 멤버십 혜택과 포인트 적립을 무기로 4050 세대를 빠르게 흡수하고 있으며,마켓컬리는 30대

여성을 중심으로 한 ‘고품질 신선식품’ 전략이 주효하며 쿠팡의 강력한 대항마로 떠올랐다.

실제로 네이버의 지난해 커머스 부문 연간 매출은 3조6884억원으로 전년 대비 약 26% 증가했다. 전체 매출에서 커머스가 차지하는 비중은 2022년 21.9%에서 지난해 30.6%로 확대되며 처음으로 30%를 넘어섰다. 지난해 12월 쿠팡의 대규모 정보 유출 이후 네이버가 수혜를 입었다는 평가도 나온다. 쿨리 역시 지난해 연간 영업이익 131억원을 기록하며, 사상 처음 연간 영업이익 흑자를 달성했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디지털에 익숙해진 50대와 실용성을 중시하는 20대의 상반된 행보가 향후 온라인 유통 전략의 핵심 변수가 될 것”이라며, “단순히 편리함을 강조하기보다 세대별 니즈에 맞춤형 세분화된 접근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진단했다.

/신원선 기자

tree6834@metroseoul.co.kr



metro

# “테라 제로, 알코올 빼고 맥주 풍미 잡았다”

## 하이트진로, 비발효 공법 적용 제조 단계부터 무알코올로 설계 칼로리·당·감미료도 ‘리얼 제로’

국내 무알코올 맥주맛 음료 시장이 대체제를 넘어 하나의 기호 시장으로 자리 잡고 있다. 과거에는 임신부나 운전자처럼 음주가 제한된 상황에서 선택하는 제품이었다면, 최근에는 ‘소버 큐리어스’ 트렌드 확산과 함께 일상적으로 찾는 소비가 늘고 있다.

시장 경쟁 구도도 제조 방식 중심으로 재편되는 모습이다. 무알코올 맥주맛 음료는 크게 발효 후 알코올을 제거하는 방식과, 애초에 알코올이 생성되지 않도록 설

계하는 비발효 방식으로 나뉜다.

발효 후 알코올을 제거하는 방식은 일반 맥주와 동일한 발효 과정을 거친 뒤 알코올만 분리하는 구조다. 맥주 고유의 향과 바디감을 구현하는 데 유리하지만, 알코올 제거 과정에서 일부 풍미가 손실될 수 있어 이를 보완하는 기술력이 중요하다.

반면 비발효 방식은 제조 단계부터 알코올이 만들어지지 않도록 설계된 공정을 적용한다. 알코올 0.00%를 유지하기에 용이하고, 열처리 등 후공정을 줄일 수 있어 원료의 맛을 비교적 깔끔하게 유지하는 데 강점이 있다.

이같은 흐름 속에서 하이

트진로음료는 비발효 공법을 적용한 무알코올 맥주맛 음료 ‘테라 제로’(사진)를 출시했다. 제조 단계부터 알코올이 생성되지 않도록 설계해 0.00%를 구현했으며, 공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풍미 변화를 줄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는 설명이다.

제품에는 호주산 맥아 농축액을 사용하고, 강한 탄산감을 더해 청량감을 강조했다. 알코올뿐 아니라 칼로리, 당류, 감미료를 제외한 ‘리얼 제로’ 콘셉트를 적용했다는 점도 특징으로 제시됐다.

업계는 무알코올 맥주맛 음료가 하나의 독립된 카테고리 자리 잡으면서, 향후에는 브랜드 인지도보다 제조공법, 원료, 풍미 등 세부 요소를 중심으로 소비자 선택이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

/신원선 기자



# N서울타워, ‘가장 서울다운’ 수제버거 선봬

CJ푸드빌, ‘N버거’ 리뉴얼 오픈  
버거 완성도, 한국적 풍미 강조  
약 2주간 매출 전년비 60% 급증

CJ푸드빌이 운영하는 N서울타워가 수제버거 하우스 ‘N버거’를 최근 리뉴얼 오픈했다고 13일 밝혔다. 서울을 대표하는 랜드마크 남산에서 수제버거 하우스로서의 정체성을 강화하고, 누구나 즐길 수 있는 ‘가장 서울다운 맛’을 선보이고자 이번 새단장을 진행했다.

먼저 버거의 완성도를 한층 끌어올렸다. 두툽한 100% 순쇠고기 수제 패티를 직화 그릴에 구워 불향을 살리고, 버터 풍미 가득한 브리오쉬 반과 세프 특제 소스를 조합해 프리미엄 퀄리티를 구현했다. 대표 메뉴인 ‘서울 불고기 버거’는 육즙 가득한 패티에 달콤짭짤한 불고기 소스와 바삭한 파채튀김을 더해 한국적

인 풍미를 강조했다. 여기에 정통 아메리칸 스타일 버거도 함께 구성해 선택의 폭을 넓혔다.

이와 함께 K-스타일의 양념치킨 소스를 더한 ‘K-양념 치킨핑거’, 상큼한 백김치에 양배추, 고추를 더한 ‘백김치 코울슬로’ 등 한국적 요소를 가미한 N버거만의 시그니처 메뉴도 함께 선보인다. 또한 취향에 따라 재료를 조합해 나만의 버거를 완성할 수 있는 ‘치킨핑거 싱글 플래터’를 선보이는 등 커스터마이징 식문화를 즐기는 글로벌 트렌드 요소도 강화했다.

관광지 특성을 반영한 메뉴도 눈길을 끈다. N서울타워를 형상화한 ‘남산 타워 컵’은 치킨핑거와 프렌치 프라이, 맥주(또는 음료)를 한 손에 즐길 수 있는 테이크아웃 메뉴로, 이동 중에도 간편하게 즐기기에 좋다.



N서울타워 수제버거. /CJ푸드빌

이러한 변화에 힘입어 리뉴얼 이후 초기 지표도 긍정적이다. 오픈 후 약 2주간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60% 급증하며 초기 안착에 성공했다. 특히 ‘서울 불고기 버거’는 고객 2명 중 1명이 주문할 정도로 압도적인 시그니처 메뉴로 등극했다.

CJ푸드빌 관계자는 “리뉴얼 이후 내·외국인 고객 방문이 눈에 띄게 늘어나고, K-스타일 메뉴에 대한 만족도도 높게 나타나고 있다”며 “남산을 찾는 글로벌 고객들에게 N버거가 색다른 미식 경험을 제공하는 공간으로 자리잡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신원선 기자

# 롯데월드푸드 ‘돼지바’, 모나카 형태로 재해석

모나카 아이스크림 ‘돼지바빵’ 선봬  
쿠키 분태 흘림 없이 편하게 섭취

롯데월드푸드가 베스트셀러 빙과 ‘돼지바’의 카테고리 확장을 통해 다가오는 빙과 성수기를 공략한다.

롯데월드푸드는 모나카 아이스크림 ‘돼지바빵’을 출시한다고 13일 밝혔다. ‘돼지바’ 브랜드를 활용한 카테고리 확장으로 쿠키 분태, 딸기 시럽 등 돼지바의 핵심적인 특징을 모나카 형태로 재해석한 신제품이다.

돼지바빵은 돼지바의 맛과 식감을 그대로 구현했다. 쿠키 분태와 초코 코팅, 아이스크림 그리고 딸기 시럽까지 특유의 4중 구조를 그대로 옮겨와 층별로 쌓았다. 그리고 먹기 아까운 느낌이 드는 귀여운 돼지모양의 병과로 모든 재료를 감쌌다. 모나카 타입으로 먹기 편하며, 돼지바의 유일한 아쉬운 점이었던 쿠키

분태 흘림 걱정도 없다.

돼지바 브랜드는 다양한 마케팅 활동을 펼치며 소비자에게 즐거움을 지속적으로 전달하고 있다. 이달 초에는 봄철 꽃놀이를 겨냥해 기간 한정 제품 ‘꽃돼지바’를 선보이기도 했다. 만개한 벚꽃을 연상시키는 딸기맛 쿠키 분태로 겉을 꾸민 요거트 아이스크림과 딸기 시럽으로 상큼한 맛을 배가했다.

한편, 돼지바는 K-아이스크림을 대표하는 글로벌 브랜드로 거듭나는 노력도 지속하고 있다. 지난해 롯데월드푸드는 인도 현지법인 ‘롯데 인디아’ 푸네 신공장을 통해 돼지바를 현지에서 처음 선보였다. 브랜드 명은 인도의 문화와 K-컬처 선호도를 고려해 ‘Krunch(크런치) 바’로 현지화했다. 가격이 비싼 프리미엄 제품임에도 출시 3개월 만에 판매량 100만개를 넘어서는 등 K-아이스크림의 위상을 높이고 있다.

/신원선 기자

# 롯데아울렛·몰, 올해 첫 초대형 할인 행사

‘블랙슈퍼쇼’... 최대 1000만원 제공

롯데아울렛·몰이 완연한 봄나들이 시즌을 맞아 2026년 첫 번째 초대형 할인 행사인 ‘블랙슈퍼쇼(BLACK SUPER SHOW)’를 진행한다. 기존 아울렛 할인가에 추가 할인 혜택을 더하고, 최대 1000만원의 연간 쇼핑 지원금을 제공하는 등 차별화된 혜택을 집약해 압도적인 쇼핑 촉진을 선보인다.

이번 행사의 핵심은 아울렛 가격에서 한번 더 할인된 가격으로 선보이는 ‘블랙 프라이스(BLACK Price)’다. 4월의 블랙프라이데이를 테마로 나이기, 아디다스, 뉴발란스, 라코스테, 마이클코어스, 피어리, 산드로 등 럭셔리·컨템포러리·스포츠·캐주얼·키즈 등 전 카테고리 가 참여해 기존 할인가에 10~30% 추가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쇼핑에 즐거움을 더할 풍성한 이벤트도 준비했다. 최대 1000만원의 연간 쇼핑 지원금을 제공하는 ‘럭키드로우’는 놓칠 수 없는 이벤트다. 13일부터 19일까지 모바일 앱 오픈 후, 행사기간 동안 점포를 방문해 구매한 고객을 대상으로 추첨을 진행한다.

주말 동안 온 가족이 즐길 수 있는 콘텐츠도 다양하다. 동부산, 김해, 기흥, 이천, 과주, 의왕 총 6개 프리미엄 아울렛에서 화려한 서커스 공연이 펼쳐진다. 아이들의 시선을 사로잡을 유쾌한 코미디 난버벌 서커스부터 박진감 넘치는 2인 대형 서커스까지 점포별로 이색적인 볼거리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벤트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롯데백화점 앱(APP)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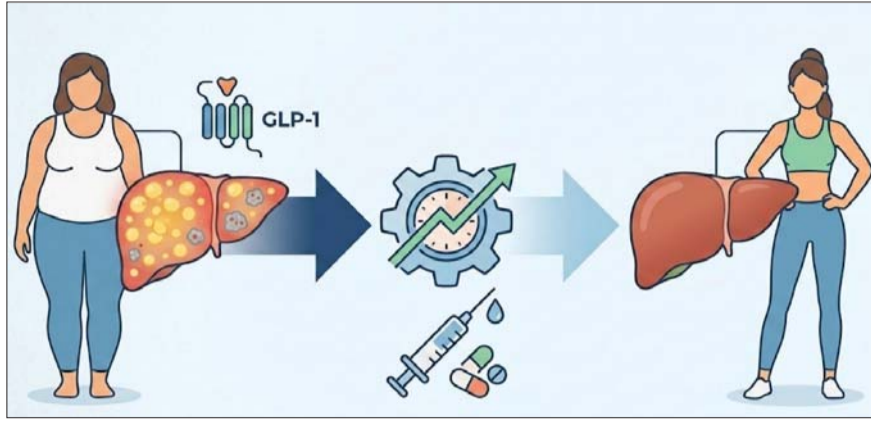
/신원선 기자

# “살 빼고 대사질환 잡고”... 제약바이오, MASH 임상 활발

(대사이상 지방간염)

체중감량서 근본 치료로 시장 재편  
비만약 중심서 당뇨 등 영역 확장  
GLP-1 대사질환 파이프라인 강화

한미약품 비만·당뇨 적응증 확대  
동아에스티 DA-1726 美 1상 개시



비만 치료제가 만성질환 치료와 맞물리고 있다.

/제미니이 생성 이미지

글로벌 제약 시장의 패러다임이 체중 감량에서 대사 질환의 근본 치료로 전환되고 있다. 앞서 비만 치료제 시장을 장악한 글루카곤 유사 펩타이드-1(GLP-1) 수용체 작용제 약물에 대한 연구개발이 확장되면서 당뇨, 대사 이상 관련 지방간염(MASH) 등 만성질환 파이프라인과 맞물리고 있다.

13일 국내 제약 업계에 따르면, 한미약품은 국산 비만치료제 등장을 예고한 가운데 후속 파이프라인에서도 성과를 거두고 있다.

한미약품 핵심 과제 중에서 가장 선두에 있는 신약 후보물질은 ‘에페글레나타이드’다. 현재 국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품목허가 절차를 밟고 있다.

해당 물질은 GLP-1 수용체에 작용하며 한국인 맞춤형 치료제로 개발된 것이 특징이다. 초고도비만이 아닌 체질량지수 30kg/m<sup>2</sup> 미만 여성에서 12.20%의 체중 감소를 기록했다.

이와 함께 한미약품은 에페글레나타이드 적응증에 당뇨를 추가한다. 올해 1월 식약처에서 ‘에페글레나타이드’를 당뇨 치료제로 개발하기 위한 임상3상시험

계획(IND)을 승인받았다. 이 임상은 기존 치료제인 메트포르민과 다파글리플로진으로 조절되지 않는 제2형 당뇨병 환자 118명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에페글레나타이드를 병용 투여해 위약 대비 혈당 조절 효과, 안전성 등을 평가한다. 대사 이상 관련 지방간염(MASH) 치료제 후보물질 ‘에피노페그듀타이드’도 한미약품의 성장 모멘텀으로 주목받는다. 올해 상반기 안에 글로벌 2b상 결과가 발표될 예정이다. 에피노페그듀타이드는 GLP-1 수용체와 글루카곤 수용체에 이중으로 작용하는 기전을 갖췄다. 2020년 8월 한미약품이 미국 빅파마 MSD에 약 1조원 규모로 기술이전한 물질이다. 이후 2023년 6월부터 글로벌 2b상에 진입해 있다.

한미약품은 현재 3종 작용제 ‘HM15275’까지 보유하고 있다. GLP-1, 위억제 펩타이드, 글루카곤 등 각각의 수용체 작용을 최적화하도록 설계했다. 체

중 감량 효과와 함께 심혈관 및 신장 질환에 대한 개선 효과 등도 구현에 중점을 뒀다.

동아에스티 역시 비만과 연계한 R&D 전략을 구체화하고 있다. 우선 지난 10일 미국에서 ‘DA-1726’ 임상1상 파트3 첫 환자 투여를 개시했다.

동아에스티의 DA-1726은 옥신토몰린 유사체 계열의 신약 후보물질이다. DA-1726은 GLP-1 수용체와 글루카곤 수용체에 동시 작용해 식욕을 억제하고, 인슐린 분비는 촉진한다. 특히 말초에서 갈색 지방을 활성화해 기초대사량을 증가시킴으로써 체중 감소와 혈당 조절을 유도한다.

이번 임상1상파트3은 16주간 건강한 비만 성인 40명에서 이뤄진다. 20명씩 두 개의 고용량 코호트로 나뉘, 파트3A는 16mg을 4주간 복용 후 48mg을 12주간 복용하는 ‘윈스텝’ 증량 방식을 평가한다.

다른 파트 3B는 16mg과 32mg을 각각 4주간 순차적으로 복용 후 64mg을 8주간 복용하는 ‘투스텝’ 증량 방식을 평가한다. 고용량 투여 시의 안전성, 내약성, 약동학적 특성은 물론 체중, 허리둘레, BMI 등 대사 지표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 분석할 예정이다.

아울러 동아에스티는 지난달 미국 회사 메타비어를 통해 MASH 치료제 후보물질 ‘바노글리펠’의 글로벌 특허 포트폴리오를 확대했다. 미국, 유럽, 일본, 중국 등에서 총 48건의 특허를 등록 및 출원해, 바노글리펠은 최소 2035년까지 특허 보호를 받는다.

바노글리펠은 G단백질 결합 수용체 119 작용제 기전을 갖춘 계열 내 최초의 경구용 합성 신약으로 개발되고 있다. 적응증은 대사 이상 관련 지방간염(MASH), 제2형 당뇨병 등이다. 동물실험에서 지질 대사, 혈당 등을 조절하며 간경화, 염증, 섬유화 등을 개선하는 효과가 확인됐다.

특히 MASH 추정 환자를 대상으로 한 글로벌 임상 2a상에서는 간과 대사 기능을 동시에 개선하는 것이 입증됐다.

국내 한 신약개발 스타트업 관계자는 “연속적 치료 모델이 중요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비만이라는 독립적인 질환에만 주력하기보다는 하나의 약물에서 적응증을 확장하는 것도 하나의 전략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청하 기자

mlee236@metroseoul.co.kr



metro



에이지투웨니스(AGE20'S) '멜라 디펜스 기미 선케어' 3종. /애경산업

## 애경산업

### 에이지투웨니스 기미 선케어 3종

선크림·선스틱·선쿠션 구성

애경산업은 스킨 퍼스트 메이크업 브랜드 에이지투웨니스(AGE20'S)에서 자외선 차단과 기미 관리가 가능한 ‘멜라 디펜스 기미 선케어’ 3종을 출시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신제품들은 글루타치온, 나이아신아마이드, 비타민C를 더한 ‘멜라 디펜스 캡슐’을 함유해 자외선이 남긴 기미 흔적에 효과를 갖췄다.

3종은 피부 톤 보정을 돕는 ‘톤업 에센스 선크림’, 외출 시 간편하게 사용하는 ‘노세범 선스틱’, 톤업과 메이크업을 한번에 제공하는 ‘톤업 메쉬 선쿠션’ 등으로 구성됐다. /이청하 기자

# 유한양행, 고셔병 신약 美 FDA 희귀의약품 지정

개발 후보물질 ‘YH35995’ 대상  
임상 세액공제·심사수수료 면제  
승인 땀 최대 7년 시장독점 혜택

유한양행은 고셔병 치료제로 개발 중인 신약 후보물질 ‘YH35995’가 미국 식품의약품(FDA)에서 희귀의약품으로 지정받았다고 13일 밝혔다.

FDA 희귀의약품 지정은 환자 수가 적고 치료 옵션이 제한적인 희귀질환 치료제 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다. 지정 품목에는 임상시험 관련 세액 공제,

FDA 심사수수료 면제, 허가 승인 시점부터 최대 7년간 시장독점권 부여 등 다양한 혜택이 적용된다.

고셔병은 유전적 돌연변이의 영향으로 특정 효소가 결핍돼 글루코실세라미드 등이 리소좀에 축적되는 질환이다.

이와 관련 유한양행의 YH35995는 글루코실세라미드 합성 효소를 억제하는 경구용 저분자 화합물이다. 글루코실세라미드 생성 자체를 감소시켜 해당 물질의 축적을 저하시키는 ‘기질감

소치료’에 쓰인다.

또 YH35995는 혈액뇌장벽(BBB)을 통과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전임상에서 높은 BBB 투과율이 확인됐고, 뇌에서 글루코실세라미드를 억제하는 수치가 기존 치료제 대비 더 크게 나타났다.

유한양행은 YH35995 글로벌 임상 추진과 허가 전략 수립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앞서 국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YH35995 임상1상시험계획(IND)을 승인받아 건강한 대상 안전성·내약성

및 약동학/약력학 평가를 위한 최초 인체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유한양행 김열홍 R&D총괄 사장은 “이번 FDA 희귀의약품 지정은 제3형 고셔병 환자들을 위한 새로운 치료 옵션 개발의 필요성과 YH35995의 잠재력을 대외적으로 확인한 성과”라며 “글로벌 규제기관과의 협의를 바탕으로 임상 개발 속도를 높여 희귀질환 환자들에게 실질적인 치료 대안을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청하 기자



마데카 비타민 15 글로잉 세럼(왼쪽)과 마데카 테카 레티놀 0.2 퍼밍 세럼(오른쪽). /동국제약

## 동국제약

### 센텔리안24

### 마데카 세럼 선택

비타민·레티놀 세럼 2종

동국제약은 더마 화장품 브랜드 센텔리안24에서 ‘마데카’ 고효능 세럼 2종을 출시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신제품은 피부 톤 개선을 위한 ‘마데카 비타민 15 글로잉 세럼’과 탄력 및 모공 관리에 특화된 ‘마데카 테카 레티놀 0.2 퍼밍 세럼’으로 피부 고민에 따라 맞춤 관리가 가능하다.

‘마데카 비타민 15 글로잉 세럼’은 동국제약 대표 성분인 센텔라아시아티카 정량추출물에 미백 기능성 성분인 나이아신아마이드, 비타민C 등을 배합했다.

‘마데카 테카 레티놀 0.2 퍼밍 세럼’은 동국제약이 독자 구축한 테카-레티놀을 0.2% 함유하는 것이 특징이다. /이청하 기자

# 셀트리온, ‘오리클로’ 유럽 점유율 확대

이탈리아 주정부 입찰 10곳 낙찰

셀트리온이 선보인 만성 특발성 두드러기 및 알레르기성 천식 치료제 ‘오리클로’ (사진)가 유럽 전역에서 처방 확대와 입찰 성과를 이어가며 시장 내 입지를 빠르게 강화하고 있다.

먼저 유럽 주요 5개국(EU5) 중 하나인 이탈리아에서 오리클로의 입찰 성과가 이어지고 있다. 지금까지 총 14개 주정부 단위의 오말리주맙 입찰이 진행된 가운데, 셀트리온 이탈리아 법인은 10개 지역 주정부 입찰에서 낙찰에 성공했다. 영국에서는 국가보건서비스(NHS)



입찰 성과가 두드러졌다. 셀트리온 영국 법인은 오말리주맙 시장 규모가 가장 큰 잉글랜드를 포함한 4개 행정구역에서 진행된 NHS 입찰을 모두 수주하는데 성공했다. /이세경 기자 seilee@

# HLB생명과학R&D, CBD 국산화 사업 선정

농식품부 원료공급망 사업 선정

HLB생명과학자회사HLB생명과학 R&D가농림축산식품부가추진하고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이 주관하는 ‘농생명자원기반 국가필수약품 원료공급망 대응기술개발사업’에 선정됐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과제는 칸나비디올(CBD) 생산 플랫폼 구축과 원료 확보를 위한 재배 기술 개발에 중점을 둔다. 현재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고순도 칸나비디올을 국산화한다는 방침이다. 칸나비디올은 의료용 원료의약품이다. 대마

에서 추출하는 비환각성 성분으로 향암·항염·피부질환 등 다양한 분야에서 쓰인다.

총 사업비는 약 57억원 규모로, 이 중 HLB생명과학R&D가 약 17억원을 활용해 햄프 유래 칸나비디올 기반 비임상, 화학·제조·품질관리(CMC) 전략, 임상시험계획(IND) 설계 등 핵심 연구개발 전반을 수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HLB생명과학R&D를 비롯해 네오켄바이오, 에이팩, 토포팩, 동국대학교, 국립경국대학교, 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 등 다수의 산학연기관이 컨소시엄을 이뤄 협력한다. /이청하 기자



AI·데이터·연계플랫폼 초월기업

# Leading AX Platform

온프레미스 & 클라우드 하이브리드형 시장 점유율 1등 기업





쿠팡, PB 중소협력사 초청 '동반성장 선포식'

쿠팡 자체브랜드(PB) 자회사 씨피엘비(CPLB)가 중소 제조협력사들과 동반성장 성과와 비전을 공유하는 제2회 '쿠팡 CPLB 2026 윈윈 어워즈(Win-Win Awards)'를 개최했다고 13일 밝혔다. 전경수 CPLB 대표가 'CPLB 2026 윈윈 어워즈'에서 환영 인사를 하고 있다. /쿠팡



CJ제일제당 '퀴진케이', 미서 쿠킹 클래스 성료

CJ제일제당은 이달 2일부터 10일까지 미국 로스앤젤레스(LA)와 뉴욕에서 총 4회 진행한 'K-푸드 쿠킹 클래스 바이 퀴진케이(K-Food Cooking Class by Cuisine.K)'를 성황리에 마쳤다고 13일 밝혔다. 이달 4일 미국 LA에서 열린 CJ제일제당 'K-쿠킹 클래스 바이 퀴진케이' 참가자들이 단체 사진을 찍고 있다. /CJ제일제당



웹젠, 자녀 초청 코딩 교육 진행... 가족 친화 경영 웹젠이 임직원 자녀를 대상으로 코딩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사내 복지 강화에 나섰다. 웹젠은 지난 11일 성남시 아담유스센터에서 임직원 자녀 42명을 초청해 상반기 'Let's PLAY 코딩!' 프로그램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웹젠 임직원 자녀 코딩 교육 프로그램 참여중인 현장. /웹젠

## LG이노텍, 대학생 솜품 공모전

LG이노텍은 미래 육성 사업 분야를 주제로 대학생 대상 유튜브 광고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13일 밝혔다. LG이노텍은 채용 브랜드 경쟁력 강화와 MZ세대(1980~2000년대 출생)와의 소통 확대를 위해 이번 기회를 마련했다.

올해 공모전 주제는 LG이노텍의 미래 육성 사업 분야인 '피지컬 AI(Physical AI)'다.

피지컬 AI는 자율주행차, 로봇처럼 인공지능(AI)이 가상공간을 넘어 실제 물리적 환경과 상호작용을 해 자율적으로 인지·판단·행동하는 기술이다. /구남경 기자 koogija\_tea@

## 유경하, 대한병원협회장 당선

(이하의료원장)

이화여자대학교 의료원은 지난 10일 서울 삼성동에 위치한 코엑스에서 열린 '대한병원협회 제67차 정기총회'에서 유경하이화여자대학교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사진)이 제43대 대한병원협회장에 당선됐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당선은 병원협회 67년 역사상 최초의 여성 회장 탄생이다. 유경하 당선인은 오는 5월 1일부터 2028년 4월 30일까지 2년간 협회장직을 수행한다. /이청하 기자



# LG, 뉴욕·런던·서울 전광판서 AI 예술 선보인다

구겐하임 어워드 수상자 작품 AI 시점 풍경·예술 철학 시각화

뉴욕과 런던, 서울 등 세계 주요 도시의 중심가에서 'LG 구겐하임 어워드 2026년' 수상자 트레버 페글렌의 작품 세계가 펼쳐진다.

LG는 올해 수상자로 선정된 트레버 페글렌의 수상 축하 영상을 미국 뉴욕 타임스 스퀘어, 영국 런던 피카딜리 서커스, 대한민국 서울 광화문 광장의 LG 전광판을 통해 상영한다고 13일 밝혔다. 뉴욕 구겐하임 미술관이 제작한 올해 영상은 페글렌의 작업 중 AI의 시점에서 인식하는 풍경들을 담아 작가의 예술 철학을 시각화했다.

축하 영상이 상영되는 세 도시는 모두 트레버 페글렌이 예술 활동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2026년 LG 구겐하임 어워드 수상자 트레버 페글렌의 수상을 축하하는 영상이 상영되고 있다. /LG

펼쳐온 핵심 거점이다. 미국 출신으로 뉴욕을 거점 삼아 활동 중인 그는 런던 바비칸 센터와 테이트 모던 등에서 전시를 진행하며 활발히 활동해 왔다. 특히 한국에서는 지난 2018년

'백남준아트센터 국제예술상'을 수상했고, 올해 LG 구겐하임 어워드의 주인공으로 선정되며 한국 미술계와의 인연을 더욱 공고히 하게 됐다.

뉴욕 타임스 스퀘어에서는 지난 6일

부터 8주간, 런던 피카딜리 서커스와 서울 광화문광장에서는 13일부터 5주간 영상이 상영될 예정이다. 수상 축하 영상은 세계 곳곳에서 약 3000만명의 눈길을 사로잡을 것으로 기대된다.

올해로 4회째를 맞은 LG 구겐하임 어워드는 LG와 뉴욕 구겐하임 미술관이 맺은 'LG 구겐하임 아트 & 테크 파트너십'의 핵심 프로그램으로, 기술을 활용해 새로운 창의적 혁신을 만들어 낸 예술가에게 상금 10만달러와 트로피를 수여하며 작가들의 도전을 지원하고 있다.

올해 수상자인 트레버 페글렌은 AI와 디지털 기술이 가진 권력 구조와 감시 체계를 사진과 영상, 조형물 등 방식으로 시각화해 왔다. /차현정 기자

hyeon@metroseoul.co.kr



metro

## SKB, '트립 인 코리아' 귀환

체험 중심 '극한 여행' 콘셉트 누적 360편... 글로벌 확장성 입증

SK브로드밴드는 13일 로컬 여행 예능 '트립 인 코리아'가 시즌7 첫 방송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SK브로드밴드와 NBS한국농업방송 등 복수 채널이 공동 제작한 이번 시즌은 기존 정보형 포맷에서 벗어나 체험 중심 '극한 여행' 콘셉트로 확장한 것이 특징이다.

시즌7은 오지호와 오정연이 MC로 나선다. 기존 시즌을 이끌어온 오지호에 더해 오정연이 합류하면서 '지인과 함께 떠나는 여행'이라는 서사

구조가 강화됐다.

프로그램은 2023년 첫 시즌 이후 누적 360편 이상 제작된 장수 콘텐츠로, 시즌5와 6은 아리랑TV를 통해 135개국, 1억6000만 가구에 송출되며 글로벌 확장성까지 입증했다.

이번 시즌은 여행지 소개를 넘어 출연자 간 관계와 체험 서사에 초점을 맞춘다. 첫 회에서는 오정연이 개그우먼 전영미와 함께 평장을 찾아 흑한기 체험을 진행하고, 오지호는 통영 옥지도에서 등반과 바다낚시 등 고강도 로컬 체험을 선보일 예정이다.

/김서현 기자 seoh@

## 하나은행, 티머니와 상생 금융협약 체결

택시사업자 금융서비스 모델 개발

하나은행은 택시사업자의 성장 및 디지털 기반의 모빌리티 금융 프로세스 구축을 위해 티머니모빌리티와 '택시사업자 상생 금융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하나은행이 보유한 차별화된 금융서비스와 인프라를 티머니모빌리티가 구축한 모빌리티 사업역량 및 노하우와 결합해 택시사업자를 위한 맞춤형 금융서비스 모델을 개발하고, 금융을 플랫폼 영역으로 확장해 택시사업자의 금융 접근성을 높이고자 마련됐다.

하나은행은 택시사업자의 안정적인 사업운영 지원을 위한 특화 금융 상품을 출시하고, 모빌리티 금융 프로세스 구축을 위해 티머니모빌리티의 택시사업자 전용 플랫폼 '택시투데이'와의 연계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하나은행의 금융 데이터와 티머니모빌리티의 운행 데이터를 활용한 신규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하는 등 데이터 기반의 신사업 발굴을 위해 상호 협력해 나갈 예정이다. 이 박



서유석 하나은행 기업그룹 부행장(오른쪽)이 조동욱 티머니모빌리티 대표이사와 협약서를 들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하나은행

에도 금융교육 지원, 온·오프라인 프 로모션 진행 등 다양한 시너지 창출을 위한 마케팅 전략 수립도 함께 추진한다.

서유석 하나은행 기업그룹 부행장은 "플랫폼 영역으로 금융을 확장해 택시사업자의 금융 접근성을 높이고, 맞춤형 금융서비스 출시를 통해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고자 이번 업무협약 체결하게 됐다"며 "양사가 보유한 금융 데이터와 운행 데이터를 기반으로 택시사업자의 성장을 지원하는 한편, 택시사업자와의 상생을 위해서도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나유리 기자 yul115@



컴투스 임직원들이 금천노인종합복지관의 디지털 교육 환경 조성 및 정화 봉사활동을 마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컴투스

## 컴투스, 노인복지관서 정화 봉사활동

노후 교육시설, 디지털 환경 개선

컴투스가 임직원과 함께 지역 복지시설의 디지털 교육 환경 개선과 시설 정비 봉사활동을 진행하며 사회공헌 활동을 이어갔다고 13일 전했다.

컴투스는 금천노인종합복지관에서 디지털 교육 환경 조성 및 시설 정화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이번 활동은 하루 평균 1000명 이상이 방문하는 복지관의 노후 교육 시설을 개선

하고, 어르신들이 보다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학습과 여가 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봉사활동은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NGO 단체 좋은변화와 협력해 진행했으며, 임직원과 가족 등 약 30명이 참여했다. 참여자들은 현장에서 시설 정비와 환경 개선 작업을 직접 수행하며 나눔의 의미를 더했다.

/최빛나 기자 vitna@

## 조아제약, 초록우산에 어린이음료 기부

경기도 내 취약계층에게 전달

조아제약이 지난 10일 서울 중구 어린이재단빌딩에서 초록우산과 '어린이 음료 기부 전달식'을 가졌다고 13일 밝혔다.

기부 물품은 스트롱디노, 룡디노 등 2종이다. 초록우산과 안산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해 경기도 내 취약계층 및 다문화가정 아동들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스트롱디노와 룡디노는 칼슘, 아연, 마그네슘 등을 함유하며 파우치 형태로 출시돼 언제 어디서든 간편하게 섭취할 수 있다. 아이들에게 친근



조아제약 정기회 홍보마케팅팀장과 초록우산 김지혜 나눔사업4팀장(오른쪽)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조아제약

한 공통 캐릭터 디자인을 적용한 것도 특징이다. 아울러 해외 수출용으로 생산돼 베트남 등 동남아시아 유통 채널에서 판매 중이다.

/이청하 기자 mlee236@

### 인사

- ◆방위사업청 ◇고위공무원 신규 임용
- ▲방위산업진흥국장 이형석 ▲우주지휘통신사업부장 김동춘 ▲첨단기술사업단장 박근영
- ◆더센뉴스 △편집국장 송정훈

### 부음

- ▲이영구 씨 별세. 이충원(교보증권 프로젝트금융본부 본부장)씨 부친상 = 12일, 대전을지대학교병원장례식장 특3호실, 발인 14일 오전 6시 30분, 장지 세종 은하수공원. 042-611-3980

| NOL 티켓 평점 9.9 공연 만족도 100%! | 대학로 NO.1 여성전용 섹시코미디 쇼뮤지컬

MUSICAL

# 헝키쇼

2025.11.28 ~ OPEN

4호선 혜화역 1번 출구

본 적 없던 섹시 코미디  
헝키쇼



입구는 있어도 출구는 없다!

나이 상관 없이 하나될 ㅋㅋ

관객 참여로 더 큰 웃음!

매번 다른 조합 매일 다른 캐릭터!

## 〈헝키쇼 NOL TICKET 리얼 후기〉

NOL티켓 바로가기

**도파민 팡팡 스트레스 타파!!**

soa\*\*\*님 ★★★★★

스트레스 너무 만병이라 탈주해서 간 공연. 너무 재밌어서 눈을 날정도로 웃고 잘생기고 섹시한 남자 6명이 눈호강 귀호강 시켜주는 잊지 못할 공연이었어요!! 매 공연마다 캐릭터가 바뀌는 것도 재미!! 한번만 볼 수 없는 공연이에요!!

**저도 모르게 공연을 보는 내내 활짝 웃고있더라고요**

a10\*\*\*님 ★★★★★

사실 요즘 몸도 마음도 너무 지치고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었는데, 공연을 보는 내내 활짝 웃고 있는 제 자신을 발견했어요!!!! 헝키쇼 덕분에 공연을 보는 그 순간에는 모든 걱정을 잊고 행복에 빠질 수 있었습니다.

**관객이 장면을 완성하는 참여형 쇼!**

ins\*\*\*님 ★★★★★

공연 끝나고 나올 땐 우울한 마음이 어디 갔는지 썩 사라져 있더라고요. 진짜 엄청 웃고 나왔습니다^^ 이 공연의 가장 큰 장점은 n회차 관람해도 n번째로 새롭다는 점. 배우분들이 매일 바뀌기도 하고, 같은 배우여도 표현이나 애드립이 달라서 여러 번 본 저도 매번 새롭게 즐기게 돼요.



카메라를 켜 위 큐알코드를 스캔해보세요!

# 픽셀라이프



연운열의  
푸드톡

최근 마트나 온라인 식품관을 둘러 보면 묘한 풍경이 펼쳐진다. 교\*마\*, 도\*, 밀\*, 타\*미\* 같은 명품 베이커리 6곳의 식빵을 작은 조각으로 나눠 담은 '식빵 취향 찾기 샘플러'가 눈길을 끈다. 한 덩어리 식빵을 구입하던 시대는 지나갔다. 이제 소비자들은 여섯 조각을 동시에 맛보고 싶어한다. 맥주도 마찬가지다. 맥주 폼에서는 500cc 한 잔 대신 250ml 잔 4개에 각기 다른 맥주를 담은 '비어 샘플러'가 테이블을 채운다. 한 잔에 올인하지 않는다. 네 가지 맛을 훌쩍훌쩍 비교하며 '오늘의 취향'을 찾는다. 커피는 드립백으로, 화장품은 펌피 사이즈로, 심지어 세제도 6개입 캡슐로 쪼개진다. 이런 소비패턴이 바로 2026년 식품 트렌드의 핵심인 '픽셀라이프'다. 디지털 이미지를 구성하는 가장 작은 화소 단위 '픽셀'처럼, 우리 식탁도 작고 많고 빠르게 쪼개지고 있다. 한 브랜드에 충성하지 않고, 한 끼에 머무르지 않으며, 한 가지 맛에 만족하지 않는다. 찰나의 경험을 탐닉한 뒤 미

련 없이 다음으로 넘어간다. 이러한 '식품 소분' 문화가 확산되는 배경에는 복합적인 경제·사회적 요인이 얽혀 있다. 첫째, 선택지가 너무 많다. 이를 전부 맛보려고 한다면 비용이 만만치 않다. 샘플러는 합리적 탐험의 도구가 된다. 둘째, 실패비용에 대한 경제적 공포로 선택에 대한 실패가 두렵다. 2만원짜리 식빵 한 덩어리를 샀는데 입맛에 안 맞으면 버리기엔 아깝고, 억지로 먹기엔 괴롭다. 하지만 샘플러는 위험을 분산시킨다. 셋째, 1인 가구의 증가와 사회적 고립이다. 혼자 사는 1인 가구에게 대용량은 폭탄과도 같다. 먹다 남은 식빵이 곰팡이 피우는 광경을 누가 보고 싶겠는가. 소용량 소분포장은 신선함을 보장한다. 넷째, FOMO(고립공포감)심리 현상이다. '두쫘쿠' 광풍 현상처럼 남들은 다 먹어봤는데 나만 모르면 소외감이 든다. 하지만 전부 사기엔 부담스럽다. 샘플러는 이 불안을 달래주는 진정제다. 흥미로운 건, 이 트렌드가 단순한 소비패턴을 넘어 우리의 미식 문화 자체를 재구성하고 있다는 점이다. 과거엔 '이 식당 맛 집이야'라고 하면 그 집 대표 메뉴 하나를 먹었다. 이제는 '이 동네 빵집 투어'를 하며

여섯 곳의 식빵을 조금씩 맛본다. 깊이보다 넓이, 몰입보다 샘플링이 미덕이 된다. 다\*소는 VT 리틀샷 미니 화장품으로 품질 대란을 일으켰고, L\*생\*건\*은 세제 향 4종을 캡슐로 쪼개 향 테스트를 제안했다. 현대인은 선택하기 전에 경험하고 싶어한다는 것을 알고있기 때문이다. 마\*컬\*의 식빵 샘플러는 상자 안에 "시식 순서 가이드"와 "취향 발견 퀴즈"까지 넣었다. 단순히 먹는 게 아니라 "내 취향을 발견하는 여정"으로 포장한다. 소비가 자아 탐구가 되는 순간이다. 픽셀라이프는 짧은 시간에 많은 경험을 쌓을 수 있다. 하지만 픽셀은 작고 빠르고, 흩어지면 이미지가 사라지듯 우리의 식문화가 파편화되어 기억에 남지 않는 휘발성 소비로 전락할 위험이 있다. 픽셀라이프는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다. 불확실성이 커질수록 우리는 큰 결정을 유보하고 작은 실험(샘플링)을 선호하게 될 것이다. 기업 입장에서 이 는 틈새시장을 공략하고 신 품종을 알리는 '원원' 전략이 된다.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균형감이다. 수많은 픽셀(조각)들 속에서 나만의 온전한 그림을 완성해 나가기 바란다.

/연운열 식품기술사, 푸드테크 칼럼니스트

# 데이터 무제한의 함정



김지수첩  
김서현  
(IT부)

2026년 봄, 정부가 내놓은 통신 정책의 수사(修辭)는 화려했다. '데이터 안심업선(QoS) 전면 도입'과 '모든 국민의 기본 통신권 보장', 기본 데이터를 다 써도 추가 요금 없이 인터넷을 쓸 수 있게 하겠다는 발표는 언뜻 파격적이다. 연간 3221억 원의 통신비 절감이라는 장밋빛 통계지도 덧붙여졌다. 하지만 발표자의 열기와 달리, 스마트폰 화면 너머 이용자들의 반응은 서늘하다. 정부가 보장하겠다는 그 '기본'의 해상도가 지나치게 낮기 때문이다. 이번 정책의 핵심인 속도 제한값 '400Kbps'를 들여다보면 실소가 나온다. 이는 20여 년 전, 3G 서비스가 갖 태동하던 시절의

속도다. 텍스트 위주의 메시지 대화 정도는 가능하겠지만, 이미지와 영상이 흐르듯 소비되는 현대 웹 환경에서 400Kbps는 사실상 '불통'에 가깝다. 포털 사이트 첫 화면을 띄우는 데 수십 초를 기다려야 하고, 실시간 길 찾기 서비스는 멈춰 서기 일쑤다. 고속도로 위에 자전거를 올려두고 이동권을 보장했다고 말하는 격이다. 정부는 "데이터가 끊겨도 최소한의 검색과 네비게이션은 가능해야 한다"는 논리를 편다. 하지만 AI와 고화질 콘텐츠가 공기처럼 존재하는 2026년에 이 기준은 너무나 빈약하다. 특히 이번 정책에서 정작 가격에 민감한 알뜰폰(MVNO) 이용자들이 초기 논의에서 배제된 점은 뼈아프다. 가장 저렴한 비용으로 통신권을 누리야 할 이들이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인 상황에서 '보편적 권리'를 논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결국 이번 QoS 전면 도입은 실질적인 이

용자 편익보다는 '통계상의 성과'를 내기 위한 생색내기용 정책이라는 의구심을 지우기 어렵다. 통신사들은 이미 고가 요금제에서 QoS를 제공해왔고, 저가 요금제로의 이탈 가능성이 낮은 것을 알기에 정부의 요구를 흔쾌히 수용했다. 소비자 입장에서 안심은 되지만 쓸모는 없는, 이른바 '계류' 같은 옵션을 하나 더 얻었을 뿐이다. 진정한 의미의 기본 통신권은 단순히 '연결'되는 것을 넘어, 최소한의 사회적·경제적 활동이 가능한 '품질'이 담보될 때 완성된다. 정부가 진심으로 통신비 부담을 덜고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고 싶다면, 현대적 기준에 맞는 실효성 있는 속도 상향과 알뜰폰 이용자에 대한 평등한 혜택을 고민해야 한다. '무제한'이라는 이름 뒤에 숨은 빈약한 속도가 국민의 권리를 오히려 좁히고 있는 것은 아닌지 되물어야 할 시점이다.

/seoh@metroseoul.co.kr

## 재미로 보는 오늘의 운세 4월 14일 (음 2월 27일) 표준토리(www.fortunetory.com)



48년생 지나친 의타심이나 의존은 좋지 못합니다. 60년생 과욕은 금물입니다. 72년생 남에게 배풀면 자기에게 운이 되어 돌아옵니다. 84년생 높은 곳만 바라보면 이루지 못합니다.



49년생 여행은 되도록 삼가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61년생 마음이 불안하고 초조해 지는 하루입니다. 73년생 건강관리에 반드시 유의하세요. 85년생 남을 비방하는 일은 하지 마세요.



50년생 불필요한 고집은 자제하세요. 62년생 부부사이에 언쟁을 높이는 일이 있겠습니다. 74년생 겉만 좋고 실속은 없으니 신중하게 대처하세요. 86년생 유혹이 심하게 다가옵니다.



51년생 주위 사람들과 같이하는 일에 이득이 있겠습니다. 63년생 여행수는 길합니다. 75년생 적당한 운동을 하여 심신을 단련하세요. 87년생 내가 가진 모든것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세요.



52년생 실패를 보게 되는 운이 있습니다. 64년생 현재에 만족한다면 별 문제는 없습니다. 76년생 바라던 바를 이루지 못하니 심기가 불편합니다. 88년생 마음의 병이나를 괴롭히는군요.



53년생 도모하는 일은 허망하게 될 확률이 높습니다. 65년생 재물을 조심하고 그것을 탐내지 마세요. 77년생 과음을 각별히 주의하세요. 89년생 노력 끝에 성취를 보게 될 것입니다.



54년생 대가만성의 운이 있으니 포기하지 마세요. 66년생 금전의 유통이 잘 될 것입니다. 78년생 좋은 기술을 배울 운이 있습니다. 90년생 원가 배울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열심히하세요.



55년생 정도를 걸어야 됩니다. 67년생 길운이 도래했으나 반드시 좋은 일이 생길 것입니다. 79년생 혼자 떠나는 여행이 길합니다. 91년생 겸허한 자세로 임한다면 흉이 적을 것입니다.



56년생 달이 구름 속에서 나오니 천지가 명명합니다. 68년생 칭송을 듣게 될 것입니다. 80년생 행복한 하루를 보냅니다. 92년생 주위의 도움을 받아 도모하는 일을 성취시켜 봅니다.



57년생 꾸준히 정진하면서 때를 기다리세요. 69년생 남과의 시비를 조심하세요. 81년생 일의 압박에서 해방이 됩니다. 93년생 주변 사람을 믿는다면 좋은 결과가 있겠습니다.



58년생 자식들에게 반갑고 좋은 소식을 듣게 됩니다. 70년생 저녁에 약속이 생깁니다. 82년생 뜻하지 않은 재물이 생깁니다. 94년생 합격운이 있으니 자신감을 가지고 임하세요.



59년생 생소한 일은 되도록 삼가하세요. 71년생 사기를 조심하세요. 83년생 오랫동안 해왔던 고민이 주변사람에 의해 해소됩니다. 95년생 귀인의 도움을 받게 될 운이 있습니다.

# 김상회의四季

## 성공의 원동력



비운의 왕으로 불리는 단종에 관한 영화가 엄청난 관객을 돌파하며 화제를 모았다. 수백 년 전의 역사 속 인물에게 사람들이 이토록 몰입하는 이유는! 그것은 아마도 거대한 시대의 흐름 앞에 놓인 한 개인의 운명이 남의 일 같지 않았기 때문일 것이다. 사람은 누구나 저마다의 생을 살아간다. 그리고 그 삶의 궤적 위에서 문득문득 자신의 운명을 궁금해한다. 새로 시작한 사업이 성공할 수 있을지, 올해는 평생의 인연을 만날 수 있을지, 이번에는 승진할 수 있을지, 시험에 합격할 수 있을지 궁금해한다. 이런 궁금증은 명리 상담 현장에서 가장 흔하게 그리고 가장 절실하게 쏟아지는 것들이다. 겉으로 보면 이런 궁금증은 미래에 일어날 일을 알고 싶은 마음처럼 보인다. 그러나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면 그 안에는 또 다른 이유가 숨어 있다. 그것은 바로 꿈이다. 사람들은 꿈이 있기에 자신의 운명을 궁금해한다. 성공하고 싶고, 자신의 노력이 결실을 이뤄서 꿈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다. 사주는 이러한 꿈이 피어날 계절을 준비해 씨를 뿌리고 수확하려는 지혜로운 농부의 마음과 같다. 더 나은 내일을 위해 오늘의 불확실성을 유심히 들여다보는 것이다. 운명에 대한 궁금증을 갖는 것은 개개인의 성장과 발전을 향한 강력한 원동력이 된다. 꿈이 없는 사람은 운명도 미래도 궁금해하지 않는다. 그냥 하루하루라는 시간을 흘려보낼 뿐이다. 그렇기에 자신의 운명을 궁금해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마음은 그 자체로 생명력 가득한 도전이라고 할 수 있다. 오늘도 수많은 사람이 자신의 운명을 궁금해하고 물어본다. 그런 질문을 하는 사람들은 이미 개운을 시작한 것이라고 말해 주고 싶다. 미래를 궁금해하는 그 마음이 좋은 운세를 끌어오는 힘으로 강력한 복의 시작이다.

'김상회의 사계'에서는 애독자를 위해 전화·방문상담을 해드립니다. 김상회 역학연구원02) 533-8877 / www.saju4000.com

## metro 메트로미디어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TEL:02)721-9800, FAX:02)730-1551

발행·편집인	이장규	편집국장	윤휘중
인쇄인		중앙일보(주)	
광고문의 / 독자센터	02)721-9851, 9826 / 02)721-9861		
일간 메트로	서울 가00206 2002년5월28일 제5892호		
일간 메트로경제	서울 가50111 2017년3월09일 제1996호		

본지는 한국신문윤리위원회의 서약사서로 신문윤리강령을 준수합니다.

### 매일매일 두뇌트레이닝

# 스도쿠365

3X3 �도쿠 X는 가로세로 3X3박스에 1부터 9의 숫자가 대각선 회색 9개에 1부터 9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푸는 퍼즐입니다.

문제출제: 손호성  
새로운 크기의 월드리얼을 즐겨보세요  
<http://www.argo9.com>

QR코드

할인도서

2		6		4	7
	8	5	2		9
1					
	4		7		6 3
		1	8		
7 6		9			8
					9
	2		9	6	3
9	8		4		5

		1		4		7	
	4						3
6			5		9		4
		9	4		7	2	
5							9
		6	9		5	8	
1			3		2		6
	6						1
		2		7		5	

9	1	9	7	2	8	8	2	6
8	8	2	9	1	6	9	2	7
6	7	2	2	9	8	9	1	8
2	8	9	8	6	7	1	9	2
7	2	6	8	9	1	2	8	9
8	9	1	9	2	2	6	7	8
9	2	8	6	8	2	7	9	1
1	6	8	2	7	9	2	8	9
2	9	7	1	8	9	8	6	2

# 서울시·SH, 이주비 대출 불가 세대에 최대 3억 용자지원

### 서울형 공공참여 주택사업 도입 SH, 갈등중재·사업촉진 등 맡아 검증기간 1개월로 단축, 비용 면제 모아타운 금융지원·인센티브 확대 아현1구역 해법, 공공모델로 확산

서울시는 민간 자력으로 개발이 어려운 지역에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가 참여하는 '서울형 공공 참여 주택 사업'을 도입한다고 13일 밝혔다.

사업성이 떨어지거나 주민간 갈등이 심하고 권리 관계가 복잡해 민간 차원에서 추진이 어려운 지역에 서울시 전담 정비 사업 지원 기구인 SH가 직접 참여한다.

SH는 단순한 시행자를 넘어 갈등 중재자이자 사업 촉진자로 개입한다. 지연 요인을 해소하고 추진 속도와 사업성을 높이는 데 집중한다.

시와 SH는 앞으로 대상지 특성과 사업 여건에 따라 공공 재개발, 모아주택, 도심 공공 주택 복합 사업 등 다양한 사업 방식을 유연하게 적용할 계획이다.



아현1구역 조감도.

공공 재개발 사업은 금융비용 지원을 중심으로 한 지원책이다.

이주비 대출 불가 세대에 최대 3억원(LTV 40%) 용자 지원을 새롭게 도입한다. 초기 주민준비위원회 운영비 지원 금액을 월800만원에서 월1200만원으로 늘린다. 관리 처분 타당성 검증 절차를

SH가 직접 수행해 평균 6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한다. 기존 2000만~6000만원인 검증 비용은 무료로 한다.

노후 주거지를 묶어서 재개발하는 모아타운의 경우 사업 정체가 우려되는 곳을 중심으로 SH '공공 참여형' 전환을 유도한다.

SH가 참여하는 모아타운은 구역 면적 확대가 가능하다. 하나은행과 협력해 개발한 전용 금융 상품을 통해 공사비 최대 70%까지 대출한다. 임대 주택 건립 비용 완화 등 추가적인 인센티브를 적용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중심으로 추진 중인 '도심 공공 주택 복합 사업'에도 SH가 가세한다.

SH는 후보지 선정부터 입주에 이르는 전 단계에서 '주민 밀착형 소통'을 강화한다. 주민들에 민감한 추정 분담금 등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한다. 인허가 절차를 효율적으로 관리해 사업 기간을 단축한다.

이와 관련해 오세훈 서울시장은 공공 재개발로 추진 중인 마포구 아현1구역 현장을 13일 직접 점검했다.

영화 기생충 촬영지인 아현1구역은 신촌로와 만리재로 사이 역세권에 위치해 있으나 노후도가 84%에 달하고 반 지하 주택이 밀집해 있어 공덕·아현 지역 내에서도 주거 환경 개선이 시급한 곳으

로 꼽혔다.

1980년대 아현1구역은 판잣집을 허물고 빌라를 지으면서 지하층 지분을 지상층 각 가구 등기부등본에 나눠 등록했다. 이후 정비 사업은 조합원 자격을 인정받을 수 없는 소규모 지분 공유자들의 반대에 부딪혔다.

전체 토지 등 소유자 2692명 가운데 4분의 1이 넘는 740명이 입주권을 받지 못하는 현금 청산 위기에 처했다.

이에 서울시와 마포구, SH공사는 '등지 내몰림'을 방지하기 위해 분양용 최소 규모 주택(최저 주거 기준 14㎡)을 도입하는 정비 계획을 수립했고 이 계획은 지난달 19일 심의를 통과했다.

이를 통해 현금 청산 대상자를 740명에서 156명으로 줄였다. 전체 79%인 584명이 조합원 자격을 얻게 됐다. 이들은 추가 분담금만 내면 조합원 물량을 분양받을 수 있게 됐다. 시는 아현1구역을 서울형 공공 참여 주택 사업 모범으로 삼고 유사 사례를 늘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현진 기자 lhj@metroseoul.co.kr

## 서울, 한강 친수공간 조류경보제 강화 운영

### 이달부터 10월까지 친수공간 대상 잠실대교~행주대교 매주 수질 검사 최근 3년간 남조류 세포수 증가세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은 기후변화로 심화하는 한강 녹조에 선제 대응하고 시민이 안심하고 한강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이달부터 10월까지 잠실대교부터 행주대교까지 친수활동구간을 대상으로 '조류경보제'를 강화 운영한다고 13일 밝혔다.

조류경보제는 하천이나 호소(호수나 저수지 등)에서 유해 남조류인 녹조가 일정 수준 이상 발생했을 때 경보를 발령해 시민 피해를 줄이고 안전을 지키는 제도다. 서울시는 녹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2016년부터 조류경보 발령 이전 단계인 자체 예비단계를 운영해 초기 대응을 강화해왔다. 친수활동구간은 수영, 수상스키, 낚시 등 친수활동 보호를 위해 관련 법령에 따라 지정·관리되는 하



한강 친수활동구간 조류경보제 채수 사진.

천 및 호소를 말한다.

연구원은 성수, 한남, 한강, 마포, 성산대교 등 5개 채수 지점에서 조류경보 발령 지표인 남조류 세포수를 포함해 용존산소, 수온 등 11개 수질 항목을 매주 검사하고 있다.

연구원의 최근 3년간 검사 결과를 보

면 2023년부터 2025년까지 남조류 세포수 평균값과 최댓값이 계속 늘었고, 지난해에는 조류경보 관심단계 기준인 2만 세포/ml에 근접했다.

올해부터는 조류경보 발령 기준이 기존 남조류 세포수 단일 항목에서 조류독소 항목까지 확대되면서 수상 활동이 집중되는 기간 조류독소 모니터링도 강화한다. 조류독소는 유해 남조류가 증식하는 과정에서 생성되는 물질로 인체에 노출되면 피부염이나 간 손상을 일으킬 수 있다.

연구원은 정밀분석 장비인 액체크로마토그래피-텐덤질량분석법(LC-MS/MS)으로 마이크로시스틴-LR, YR, R, LA, LY, LF 등 6종의 조류독소를 분석할 계획이다.

이번 기준 강화는 2025년 12월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것이다.

/이현진 기자

## 경기도, 고유가 피해지원금 신속 지급

### 27일부터 취약계층 우선 지원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정부 추가경정예산안이 지난 10일 국회를 통과하면서, 경기도가 신속한 지급을 위한 본격적인 준비에 돌입했다. 도는 행정1부지사를 단장으로 하는 '고유가 피해지원금 전담조직(TF)'을 구성하고 지급 체계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전담 TF는 ▲사업총괄반(5명) ▲현장 대응반(3명) ▲언론대응반(2명) 등 총 3개 반, 10명으로 꾸려졌다. 이들은 사업 총괄을 비롯해 중앙정부 및 시·군과의 협의, 현장 모니터링, 도민 대상 홍보 등 전반적인 업무를 맡는다.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물가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의 생계 안정을 지원하는 데 목적이 있으며, 소득 수준과 거주 지역에 따라 차등 지급될 예정

이다.

지급 규모는 범정부 특별조직(TF)의 소득 기준 확정 이후 최종 결정되지만, 현재 계획에 따르면 1차로 오는 4월 27일부터 기초생활수급자 55만 4천 명에게 55만 원, 차상위계층 7만 6천 명에게 45만 원을 우선 지급한다.

이어 2차로는 5월 18일부터 7월 3일까지 소득 하위 70% 일반 도민에게 1인당 10만 원이 지급될 예정이다. 특히 인구 감소지역인 가평군과 연천군의 경우 지원 금액이 상향돼 기초생활수급자는 60만 원, 차상위계층은 50만 원, 소득 하위 70%는 20만 원을 각각 받게 된다.

지원금은 도민 편의를 고려해 경기지역화폐, 선불카드, 신용카드, 체크카드 등 다양한 방식 중 선택해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경기=김대의 기자 dykimi@

## 서울시교육청, 올해 IB 관심학교 91곳 선정

### 올해 관심·후보·인증학교 106교 운영 미래역량 중심 수업·평가 혁신 박차

서울시교육청이 올해 '국제 바칼로레아(IB)' 관심학교로 91교를 선정, 총 106교를 운영한다.

시교육청은 초·중·고등학교를 실시한 '2026 IB 관심학교' 공모를 통해 91교를 관심학교로 선정했다고 13일 밝혔다.

'국제 바칼로레아(IB)'는 비영리 국제 교육재단인 IB에서 1968년부터 운영해 발전시켜 온 국제 공인 교육프로그램이다.

더 나은 평화로운 세상을 만드는 데 기여할 지식·탐구심·배려심이 풍부한 주도적 학습자를 기르는 학교 교육 체제 및 개념 기반 탐구 중심 수업·평가를 특징으로 한다. 전 세계 약 160개국 5900개 이상 학교에서 약 200만명의 학생이 참

여하고 있다. 이번 공모를 통해 2026년도에는 IB 관심·후보·인증학교 총 106교가 운영된다. 이를 통해 미래 역량 중심 수업·평가 혁신을 위한 한국형 바칼로레아(KB) 기반 강화 및 구현에 박차를 가하게 됐다고 시교육청은 전했다.

'한국형 바칼로레아(KB)'는 글로벌 표준인 IB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얻은 미래교육에 대한 시사점을 서울교육에 녹여내어 미래 역량 중심의 교육과정·수업·평가가 실현되는 서울 미래형 학교 교육 체제를 지향한다.

/이현진 기자

오늘의 날씨

4월 14일 (화)

음력 : 2월 27일

수도권 날씨

12 ~ 25°C

운동 지수:

빨래 지수:

세차 지수:

외출 지수:

해돋이 / 05:59 | 해질 / 19:06

연천 9/26, 동두천 11/26, 가평 9/25, 양평 9/25, 용인 11/24, 평택 9/24, 안성 11/24, 수원 11/24, 인천 12/24, 파주 10/25, 서울 12/25, 백령도 9/12

자료제공: KWeather 케이웨더(주) www.kweather.co.kr



▲美, 트럼프, 대이란 해상교통 봉쇄 발표에도 "휴전 잘 유지 중"

▲日, 트럼프 호르무즈 "역봉쇄"에 "자위대 파견 정해진 것 없어" /사진 뉴시스

▲中, 항산 수출 5월부터 중단... 원자재 시장 압박 전망

▲이스라엘, "레바논내 완충지대 위해 주택과 마을 철거 시작"

▲홍콩 증시, 중동 평화협상 불발에 반락 개장... H주 0.81% ↓

▲교황 "전쟁 광기 함께 맞서야... 종교로 학살 정당화 말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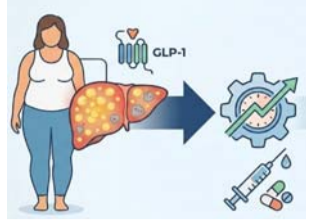


온·오프라인  
식품  
소비 지형 급변  
니



Life

제약바이오  
대사이상 지방간염  
임상 활발  
L2



# 화재피해 막고, 새출발 돕고... 사회 틈새 메우는 '희망 안전망'

## 살맛나는 세상 이야기 ESG 경영시대

### KB손해보험

KB손해보험은 '세상을 바꾸는 금융, 고객의 행복과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 갑니다'를 미션으로, 가장 신뢰받는 '평생희망파트너'를 지향한다. KB손해보험 희망은 추상적인 구호에 머물지 않는다. 취약계층의 집을 화재로부터 지키는 보험, 고령층을 직접 찾아가는 금융안심교육, 아이들의 새 학기와 청년의 자립을 돕는 지원으로 이어져 일상 가까운 곳에서 안전망을 넓혀가고 있다.

#### ◆ 보험의 본업과 생활 안전망

KB손해보험의 포용금융은 가장 기본적인 안전에서 출발한다. '경기도 주택 화재 안심보험'을 통해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이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화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주택 건물과 가재도구 피해는 물론 화재배상 책임, 임시 거주비까지 보장 범위에 담았다. 화재를 단순 사고가 아니라 삶의 기반을 흔드는 위기로 보고, 피해 회복과 생활 안정을 함께 지원하는 구조다.

금융사각지대를 직접 찾는 노력도 이어지고 있다. 실제로 KB손해보험은 전주시 서서학동 주민센터에서 독거노인과 고령층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금융안심지원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보이스피싱 예방법과 스마트폰 보험금 청구, 필요 서류와 유의사항 등을 눈높이에 맞춰 설명하며 금융 접근성이 낮은 계층의 불편을 줄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최근에는 '소비자서비스현장'도 선포했다. 소비자 보호 최우선, 피해 사전 예방, 불만의 신속한 처리, 정보 제공과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전사 행동기준으로 제시해 고객중심경영을 조직 문화로 정착시키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 ◆ 아이들의 새 출발과 응원

KB손해보험은 신학기를 맞아 소상공인 자녀와 그룹아동 등 취약계층 아동 200명에게 책가방과 운동화, 학용품 세트 등 학습물품을 지원했다. 눈길을 끄는 건 지원 방식이다. 아이들이 선호하는 모델과 사이즈를 미리 선택하도록 해 획일적 배분이 아니라 한 명 한 명의 필요를 반영한 맞춤형 지원으로 꾸렸다. 물품이 실제 생활 속에서 쓰이고, 아이들이 새 학기 출발선에서



서울 마포구 합정동 홀트아동복지회 본사에서 열린 자립준비청년 취·창업 지원사업 '런런챌린지' 6기 오리엔테이션에서 자립준비청년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KB손해보험

#### 고객 행복 위한 '희망 파트너' 일상 가까운 곳에서 이웃 도와

#### 취약계층에 화재보험 혜택 제공 고령층 찾아가는 금융프로그램 취약 아동들에 학습물품 지원도

#### 자립준비청년 돕는 '런런챌린지' 취·창업, 생활 지원 등 자립 동행

#### 펫보험 연계, 유기동물 구조 지원 동물의 생명까지 보호범위 넓혀

위축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고민이 담겼다.

그룹홈 아동 50여 명을 위한 실내 클라이밍 체험도 함께 진행했다. 새 학기를 앞둔 아이들에게 단순한 물품 전달을 넘어 도전과 성취의 경험까지 건넸다. 취약계층 여성 청소년을 위한 '동백꽃 선물함' 지원 역시 같은 맥락이다. 경제적·환경적 어려움 속에서도 건강권과 기본권을 지킬 수 있도록 위생용품 등 필수 물품을 지원한 이번 사업은, 포용금융이 금융상품을 넘어 돌봄의 틈까지 살피는 일임을 보여줬다.

#### ◆ 자립의 시간을 함께하는 동반자 KB손해보험의 대표 사회공헌

프로그램인 '런런챌린지'는 희망의 대상을 청년의 미래로 넓힌다. 홀트아동복지회와 함께 2021년부터 이어온 이 사업은 자립준비청년이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취·창업 지원, 심리·정서 지원, 생활 안정 지원을 함께 제공한다. 지금까지 84명이 참여했고, 약 94%가 과정을 수료했다. 올해 6기에는 디자인, IT, 음악, 물류, 농업 등 다양한 진로를 꿈꾸는 20명이 새로 합류했다.

이 프로그램의 의미는 단순한 경제 지원에 그치지 않는 데 있다.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청년들이 자기 이름으로 삶의 방향을 세우고, 실패

를 견딜 기반까지 갖출 수 있도록 돕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임직원의 전문성을 지역사회에 나누는 'KB 프로보노 봉사단'도 같은 흐름 위에 있다. 보험과 금융 현장에서 쌓은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청소년과 금융취약계층의 올바른 금융생활 습관 형성을 돕는 이 활동은, KB손해보험의 상생금융이 기부를 넘어 전문성의 공유로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 ◆ 사람을 넘어 생명까지 돌보다

KB손해보험의 돌봄은 반려동물 화와 동물 복지에도 확장되고 있다. 'KB 금쪽같은 펫보험'과 연계한 사회공헌 사업으로 서울시립동물복지지원센터 동대문에 유기동물 구조·이송을 위한 이동료 차량을 기증했다. 장기간 사용으로 노후화된 기존 차량으로는 신속한 현장 대응에 제약이 있었던 만큼, 구조와 의료 이송에 특화된 새 차량은 위기 상황에 놓인 유기동물의 구조와 치료, 병원 이송, 입양 연계까지 보다 안전하게 뒷받침할 것으로 기대된다.

사람의 삶을 지키는 보험이 동물의 생명까지 보호의 범위를 넓힌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도 남다르다. 펫보험과 연계한 기부 구조를 통해 고객의 보험 가입이 유기동물 구조와 치료 지원으로 이어지도록 설계한 점도 눈에 띈다. 보험의 역할을 보장에만 머물게 하지 않고, 사회가 함께 돌봐야 할 생명으로 확장한 셈이다.

KB손해보험이 말하는 '평생희망파트너'는 결국 고객과 지역사회, 아이와 청년, 고령층과 반려동물까지 더 나은 내일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한 답이다. 화재 안심보험과 금융안심지원, 신학기 지원과 자립 프로그램, 소비자 보호와 동물 복지까지 이어진 KB손해보험의 행보는 희망이 추상적인 말이 아닌 삶 가까이 놓인 안전망임을 보여주고 있다.

구분옥 KB손해보험 대표는 "국민 모두의 평생 희망파트너"라는 미션 아래, 고객과 사회의 행복과 더 나은 세상을 함께 만들어 가야 할 책임이 있다"며 "금융 소외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상품과 서비스 개발, 본업과 연계한 사회적 책임 활동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돌봄'과 '상생'의 가치를 실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주형 기자  
gh471@metroseoul.co.kr



1 KB손해보험 구분옥 사장(왼쪽) 등 임원 및 부사장들이 '소비자서비스현장' 선포식에서 금융소비자 보호 실천 의지를 다지고 있다.  
2 KB손해보험이 취약계층 아동을 위한 학습물품 전달식을 진행하고 김규동 ESG상생금융Unit장(가운데)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3 서울시립동물복지지원센터 동대문에서 이상규 KB손해보험 CPC추진본부장(왼쪽부터)과 최미금 동물과함께행복한세상 대표, 김영한 서울시 정문도시국장(가운데)이 이동료 차량 기증식을 진행했다. /KB손해보험



## 메트로 한줄뉴스



▲매길로이, 마스터스 2연패...우즈 이후 24년 만에 역대 4번째 /사진 뉴스스  
▲'3경기 연속 선발' 김혜성, 2타수 무안타...오타니 또 홈런

▲조선 첫 세계박람회 출품 '의장기' 5점...12월 국내 첫 공개  
▲23일 '저작권의 날' 서울야외도서관 개장...외국인 프로그램 확대

▲중견수 복귀한 이정후, 연속 안타 마감...시즌 타율 0.185  
▲쇼트트랙 최민정·심석희, 선발전 1·2위로 대표팀 재승선